정답 및 해설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100발100중

고등 기출 문제집

공통 국어 2

2학기 · 전과정

지학사
김철회



1 생각을 펼치는 읽기와 쓰기

(1)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하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12~015쪽

01 ① 02 ③ 03 ③ 04 ③ 05 ③ 06 ④ 07 ⑤ 08 ①
09 ⑤ 10 ①

01 1문단에서 집단 지성의 개념과 형성 과정에 대해 언급한 후, 2문단에서 별점 제도의 장점을, 3문단부터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별점 제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각 관점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집단 지성과 별점 제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둘을 비교·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④ 별점 제도로 인한 사회 변화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⑤ 별점 제도의 개념과 순기능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뒤이어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02 1문단에서 현대 사회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 진입 장벽이 낮아져 누구나 집단 지성의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의 '집단 지성이란 여러 ~ 집단의 지적 능력을 말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1문단의 '검증된 정보는 객관성을 ~ 정서를 형성하기도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2문단의 '판매자에게는 미래의 판매 전략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2문단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평가들이 모여 집단 지성으로 작동하는데'를 통해 알 수 있다.

03 1문단을 통해 집단 지성을 통해 검증된 정보는 객관적 정보로서 기능하지만 가짜 뉴스 등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잘못된 집단 지성 등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집단 지성의 양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별점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별점의 결과는 평가에 참여하는 일부 사람들의 결과이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사람의 평가가 아니다. ④ 별점 제도를 누가 가장 먼저 시행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⑤ 별점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별점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04 4문단에서 '별점 참여자는 전체 이용자를 대표하는 그룹에서 뽑은 무작위 표본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별점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사람의 평가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3문단의 '별점을 조작하거나 감정적으로 ~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3문단의 '별점 제도는 유용하지만 ~ 보여 주는 결과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판매자의 피해를, 5문단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이러한 분포 상황을 ~ 하게 되는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5 기업의 매출 현황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실적의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보고하기 위해 별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2문단에서 학교에서의 강의 평가, 공기업이나 기업의 업무 평가나 경영 평가, 공연 등의 콘텐츠 평가, 맛집, 여행 등의 서비스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06 [A]에서는 별점 제도가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는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정상 분포와 엠자형 분포를 나타내는 곡선 그래프를 활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② [A]에 별점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③ 별점 제도가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A]에서 별점 제도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별점 제도의 부정적 현상은 제시되어 있으나, 해결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7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견해를 타인과 교류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지 타인의 견해를 비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언급한 독서 모임은 수업, 교내 독서 동아리, 외부 독서 모임 등으로 사회적 독서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 ② 사회적 독서 활동은 독서를 통해 얻게 된 지식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타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점을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③ 사회적 독서 활동을 통해 독자 개인은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사회적 독서 활동을 통해 독서를 하고 얻게 된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타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

08 이 글에서는 별점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별점 제도의 해결 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이용자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③ 앞서 제시한 해결책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별점 제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별점 제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으나,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09 [자료 2]는 별점 제도가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제도 운영 방법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 3]은 별점 제도의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자료를 통해 별점 제도를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법안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글쓴이의 의견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자료 1]은 별점 제도를 악용하는 뉴스 사례로서,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다. ② [자료 2]는 별점 제도의 긍정적 측면이 많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다. ③ [자료 3]은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로 법령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별점 평가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자료 4]는 집단 지성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별점 제도를 이용하는 자들의 진솔한 태도를 촉구하는 이 글의 주제 의식을 뒷받침할 수 있다.

10 조작된 별점으로 인한 피해는 판매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역시 받게 된다.

오답 해설 ② 4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5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⑤ 7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16~019쪽

01 ④ 02 ② 03 ① 04 ④ 05 ① 06 ⑤ 07 ② 08 ⑤
09 ⑤ 10 ①

01 사회적 독서 활동의 개념을 바탕으로 볼 때 이 글은 별점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글이다.

오답 해설 ①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문제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② 집단 지성의 개념을 언급했으나 그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다. ③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 주는 다양한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⑤ 별점 제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그들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02 ㉠은 별점 제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판매자는 별점 테러, 별점 보복을, 이용자는 조작된 별점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 등을 경험할 수 있다. ②는 별점 제도를 피드백으로 사용한 긍정적 사례이다.

03 허위나 악성 평가를 더 정교하게 걸러내도록 제어 기술을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7문단에서 평가를 달 수 있는 작성자의 자격 조건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열람자들이 평가 결과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자가 평가했던 이력이나 이용 횟수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 7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평가자의 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별점을 표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작성자의 계정을 누르면 과거의 평가 이력과 같은 정보를 시각화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04 젊은 세대가 별점 제도가 지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고 해서 젊은 세대가 사회 현상에 무관심하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젊은 세대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구입 결정을 하기 전에 별점을 참고하는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점이 중요한 정보의 역할을 한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별점이나 후기 댓글 작성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젊은 세대들이 별점 제도에 적극 참여한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별점 제도의 폐해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별점을 계속 이용할 의향이 높기 때문에 별점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별점 계산 알고리즘이나 문제점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는 별점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진솔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한다.

05 별점 제도를 맹신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①과 같은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독자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별점 제도 때문에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의 피해는 언급되었으나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사례를 더 알고 싶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④ 사회적 독서 활동으로 독서 동아리 모임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반응은 적절하다. ⑤ 별점 제도가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의견으로 보아 집단 지성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는 반응은 적절하다.

06 이 글에서 글쓴이는 별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보다 우선 이용자들의 진솔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7 ㉡은 상대방의 제안에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리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의미 있는 사회적 독서 활동을 위해 모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③ 이 글을 읽고 함께 의견을 나눌 화제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있다. ④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민수의 의견에 동조하며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08 대화의 주요 논의는 별점 제도가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이에 따른 이용자의 신중한 태도 및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민수와 서연은 별점 제도가 다른 이용자에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별점 제도가 재미 요소로만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서연은 별점 제도는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지표가 된다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③ 서연의 말에서 제도적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서연과 진호는 이용자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해결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개인적 노력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09 〈카드 4〉에서는 위 아래 문장의 글꼴을 서로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글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카드 1〉에서 별점 제도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념 설명 옆에 별점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카드 2〉에서 플랫폼 업체들의 피해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숫자의 크기를 크게 설정하여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다. ③ 〈카드 2〉에 '피해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렇다'를 나타내는 원그래프를 그리고 색상을 다르게 하여 눈에 띄게 제시한다면 피해 경험이 많다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④ 〈카드 3〉에서는 실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에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담은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별점 제도에 참여하는 평가자가 적으면 소수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으로 오해하여 별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알아볼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별점 참여자는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점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 알아볼 만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③ 별점을 왜 5점 만점을 척도로 삼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 알아볼 만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④ 별점 제도에 대한 사회적 현상은 언급했으나 그 유래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알아볼 만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⑤ 가짜 뉴스나 출처 없는 정보로 잘못된 집단 지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는 언급하고 있으나 그 사례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더 알아볼 만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20쪽

01 • 별점을 조작하거나 감정적으로 별점을 주는 행위는 판매자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 • 별점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 별점 제도는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 낸다. **02** ㉠ 이용자가 진솔한 태도로 별점 평가를 한다. /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문제점을 해결한다.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단점을 보완한다.

01 제시된 글의 각 문단에 문제점 세 가지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02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나 기술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2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7 별점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수이므로 전체 이용자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09 글쓴이는 별점 제도가 우리 사회의 한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주제 통합적 읽기와 논증하는 글 쓰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24~029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④ 06 ⑤ 07 ② 08 ③
09 ④ 10 ① 11 ③ 12 ⑤ 13 ② 14 ②

01 대담자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달하면 지성적으로 보이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스티븐 핑커 교수는 인공지능은 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할 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③ 대담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간이 쌓아 놓은 데이터를 모아 원하는 결과를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 지능을 흉내 내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④ 대담자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지성을 흉내 내는 수준일 것이며 인간의 감정을 지니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02 (가)에서 대담자는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면 지성적으로 보이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이나 그것은 인간의 지성을 흉내 내는 수준으로, 인간의 감정을 지니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가)에는 이와 같은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인공지능은 인간이 인터넷 공간에 쌓아 놓은 데이터를 모아 원하는 결과를 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지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03 '이제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달하면 지성적으로 보이는 인공지능이 나타나겠죠.'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지능은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으로 인지 능력에 해당한다. ③ '어떤 상황에 내 자신을 투영해 보고 반성해 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성이다. ⑤ 대담자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지성을 흉내 내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04 (나)에서 신경 세포는 시냅스에서 전기 신호를 화학 물질(아세틸콜린)로 변환하여 전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기 신호만을 통해 신호를 전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신경 세포를 줄기 달린 양파 모양으로 비유하고 있다. 글쓴이는 신경 세포를 가지 돌기(뿌리), 몸통(양파), 축삭 돌기(줄기)라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② 자전거 타기와 같은 학습 과정에서 신경 세포 간 연결이 강화되며, 이는 신경 가소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③ 시냅스는 신호 전달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특징, 즉 유연성을 가지며, 이는 신경 가소성의 기초가 된다. ④ 신경 세포는 입력된 신호가 몸통에서 합쳐져 임곗값을 초과할 경우에만 축삭 돌기를 통해 신호를 출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05 신경 세포의 가지 돌기로 들어온 신호는 몸통으로 모여 축삭 돌기로 나가게 된다.

오답 해설 ① '뇌는 신경 세포의 집합일 뿐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신경 세포는 뇌를 구성하는 주요 단위로, 뇌는 신경 세포와 이를 지지하는 여러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② '신경 세포들은 시냅스라는 좁은 간격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신경 세포의 신호는 전기적 활동으로 표현되며, 이는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는 두 가지 상태로 나타난다. ⑤ 신경 세포는 동물의 운동과 생존에 필수적인 신호 전달 체계를 담당하며, 그 기원은 동물이 처음 등장한 시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06 같은 입력 신호라도 시냅스의 결합 강도에 따라 출력이 달라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달팽이부터 인간까지 신경계의 학습 원리는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③, ④ 학습 능력의 핵심은 신경 가소성이며 이는 시냅스의 결합 강도가 강할수록 출력의 세기도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냅스의 결합 강도가 강화

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한다.

07 처음 자전거를 타게 되면 뇌에서 신경을 통해 다리의 근육에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는 신경 신호의 전달 속도가 느려 넘어지기 쉽다. 이는 자전거를 학습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자전거를 자주 타 학습이 되면 근육들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된다.

오답 해설 ① 자전거 타기를 통해 신경계의 연결 강화, 즉 학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④, ⑤ 자전거를 자주 타면 특정 시냅스를 자주 이용하게 되고, 신경 가소성 때문에 이들의 연결이 강화된다. 이후에는 강화된 신경계로 연결된 다른 근육들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된다.

08 (나)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견해를 제시한 글이다.

오답 해설 ① (나)의 1문단에서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이 부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인간과 동물이 지닌 속성은 (나)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인간은 지능이나 의식, 고통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나)에서 제기한 문제가 아니다.

09 주제 통합적 읽기는 동일한 화제나 주제를 다룬 글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룬 글을 읽는 것과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③ 주제 통합적 읽기를 통해 주제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주제와 관련한 새로운 관점이나 창의적 사고를 생성할 수 있다. ②, ⑤ 주제 통합적 읽기는 동일한 화제나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형식의 글이나 자료를 읽고 읽기 목적에 따라 비판적으로 견해를 재구성하는 읽기 방법이다.

10 (가)의 글쓴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모방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인공지능은 인간이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모방하고 이를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인공지능은 시냅스의 결합 강도를 최적화시켜 학습하는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개발되고 있다. ④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므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은 만들지 못할 것이다. ⑤ 인공지능은 인공 신경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단지 신경망의 연결 구조를 실제 인간의 뇌와 유사하게 만들고 다른 프로그램 기법을 추가하여 개량한 것이다.

11 ㄴ은 인공지능 로봇이 지능이나 의식, 고통 감수성을 지니지 않으므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능이나 의식, 고통 감수성과 같은 성질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인공지능 로봇이 지능, 의식, 고통 감수성을 지니는지에 따라 ㄱ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ㄴ은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⑤ ㄱ과 ㄴ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속성, 즉 지능이나 의식, 고통 감수성 같은 성질을 지니는지에 따라 도덕적 지위 부여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12 (나)에서 글쓴이는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을 도구로 만들었다 해도, 그것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데 학대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ㄷ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대우하는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ㄷ을 두고 '조금 과격해 보인다.'라고 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ㄷ의 입장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대우하는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한다.'라고 하였다. 기존에 인공지능 로봇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충돌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③ 글쓴이의 ㄷ에 대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④ 인공지능 로봇이 지능이나 의식, 고통을 느끼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ㄷ의 입장이지 글쓴이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13 관계론적 접근은 도덕적 지위를 제작 목적이나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인간과 로봇 간의 관계와 상호 작용 속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작 목적을 도덕적 지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관계론적 접근과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가정이나 요양원에서 만난 감정 로봇은 가족과 같은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관계론적 접근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이 맺고 있는 다양한 일상적 관계의 방식 속에서 정해지는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④ 관계론적 접근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이 맺는 다양한 일상적 관계 방식 속에서 도덕적 지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⑤ 관계론적 접근에서는 '로봇이 진짜 감정이 있는지를 묻기보다, 그것이 감정이 있는 존재로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14 (나)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주체는 인간(㉠)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에게 드러나는 방식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인간이 부여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인공지능 로봇과 더불어 사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이들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30~035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①	05 ⑤	06 ③	07 ①	08 ③
09 ③	10 ②	11 ④	12 ①	13 ③	14 ①		

01 (가)와 (나)는 동일한 화제인 '인간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02 양파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지 돌기(ㄱ)로 신호가 입력되며, 가느다란 줄기 부분은 축삭 돌기(ㄴ)로 신호가 출력된다.

03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간이 인터넷 공간에 쌓아 놓은 데이터를 모아 원하는 결과를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 같이 말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인공지능의 발전과 ㉠은 무관하다. ② 인공지능의 쓰임새는 ㉠과 무관하다. ③ 인공지능은 집단 지능을 흉내 내는 수준이라고 했으므로 인간의 집단 지능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인공지능은 인간이 쌓아 놓은 데이터를 모아 원하는 결과를 되돌려주기 때문에 집단 지능을 흉내 내는 수준이라고 한 것이다. 인간이 더 많은 지식을 쌓도록 돕기 때문이라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04 ⓐ는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의 강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주 사용하는 연결은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약화된다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② 시냅스의 연결로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신경 세포들이 시냅스라는 좁은 간격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④, ⑤ 시냅스의 특징이기는 하나 ⓐ와는 무관하다.

05 (나)에서는 신경 세포의 신호 전달 원리와 신경 가소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설계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가)에서는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는 신경 가소성을 학습과 기억의 핵심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지 인간의 집단 지능을 흉내 내는 수준에 그친다고 하고 있다. ③ (나)에서는 신경 가소성이 학습의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이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인공지능은

신경 가소성을 기반으로 구현한 모델을 흉내 내는 것이지, 생물학적 원리를 그대로 구현한 것은 아니다. ④ (가)에서 '인간의 감정을 지닌 인공지능을 만드는 건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06 입력 신호가 신경 세포의 시냅스를 따라 이동하면서 학습(출력)이 이루어지는데 시냅스의 결합 강도에 따라 학습 능력이 달라진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가지 돌기의 수나 임곗값,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일치성에 따라 학습 능력이 달라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④ 같은 입력이라도 시냅스의 결합 강도에 따라 출력(학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력된 값의 종류에 따라 학습 능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07 처음 자전거를 타게 되면 뇌에서 신경을 통해 다리 근육에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신경 신호의 전달 속도가 느려 균형을 잃을 수 있어 넘어지기 쉬운 것이다.

오답 해설 ②, ③, ④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의 연결은 강화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약화되는 것이 신경 가소성 원리이다. 시냅스의 연결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자전거를 처음 타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 ⑤ 신경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일 뿐 이것이 ㉠의 이유인 것은 아니다.

08 글쓴이는 ㄱ과 ㄴ의 입장에서 철학적으로 쉽게 해결하기 힘든 까닭으로 ⓒ와 ⓓ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는 ㄱ, ㄴ의 주장과 관련이 없다. ⓑ는 (나)에서 해결해야 하는 철학적 문제로 제시된 내용이 아니다.

09 주제 통합적 읽기는 동일한 화제나 주제를 다룬 글을 읽기 목적에 따라 읽고 자신의 견해를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ㄹ의 읽기 목적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주제 통합적 읽기를 통해 주제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주제와 관련한 새로운 관점이나 창의적 사고를 생성할 수 있다.

10 (가)와 (나)는 인공지능이라는 동일한 제재를 다루고 있으나 (가)는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인간 뇌의 학습 원리를 모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의견이 드러난 글이다. (가)와 (나) 모두 제재에 대해 설명하거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견해를 제시했을 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한 쪽의 관점으로 대상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④ (가)와 (나) 모두 인간과 인공지능이라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다. ⑤ (가)는 정보 중심의 글, (나)는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난 글로서 과학 분야를 다루고 있다.

11 가중치는 학습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즉 반복을 통해 적절한 가중치를 학습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중치는 시냅스의 결합 강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 ② 인공지능과 인공 신경망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인공 신경망은 신경계의 특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만든 것이다. ⑤ 결합 강도가 변하는 시냅스를 인공적으로 만들면 학습하는 기계, 즉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

12 소셜 로봇은 사람이 다른 존재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을 이용해 정서적 반응을 인위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인공지능 로봇이다. 이러한 로봇과 오래 교감하며 지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정적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⑤ ㄹ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지능이나 의식, 고통 감수성을 지니지 않음을 전제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ㄹ은 일반적 상식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는 했으나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의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④ 사회 통념이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3 (가)에서 인간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시냅스 결합 강도를 최적화한다고 설명했으며, 인공 신경망 또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가중치를 최적화한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인간의 학습과 인공 신경망은 가중치와 결합 강도 변화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가)에서 인공 신경망과 인간 학습의 공통점은 반복적인 최적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감정은 학습 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가)에서 인공 신경망의 가중치는 학습 과정을 통해 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신경 가소성과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다. ⑤ (가)에서는 인공 신경망의 학습이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으며, 이와 유사하게 인간의 학습은 시냅스 결합 강도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따라서 인간 학습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이 존재한다.

14 ⓐ는 인공지능 로봇이 진짜 감정이 있는지를 묻기보다 그것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이 진짜 감정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와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②, ④, ⑤ 관계론적 접근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도덕적 지위가 정해진다고 보고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마크 쿠헬버그는 도덕적 지위 문제에서 관계론적 접근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철학자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36~037쪽

01 지능이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 인지 능력이라면, 지성은 어떤 상황에 자신을 투영해 보고 반성해 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02 지성적으로 보이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이나 인간의 지성을 흉내 내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며 인간의 감정을 지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03** 자전거 타기를 학습했다는 것은 강화된 신경계로 연결된 다른 근육들이 움직임을 기억하여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04 •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과 같은 특성들이 왜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가? •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지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01 대담자는 지능을 해결책을 찾는 인지 능력, 지성을 어떤 상황에 자신을 투영하고 반성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02 대담자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감정을 지닌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03 자전거를 자꾸 타다 보면 관련 시냅스들을 자주 이용해 이들의 연결이 강화된다. 자전거에 올라타 일부 근육이 움직이면 강화된 신경계로 다른 근육이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이를 자전거를 '학습'했다고 본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38~03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2 논증하는 글을 쓸 때는 주장, 이유, 근거,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등의 논증 요소를 정리하고 적절한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

을 조직해야 한다.

04 지능은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 지성은 어떤 상황에 자신을 투영해 보고 반성해 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06 글쓴이는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지성적으로 보이는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간의 지성을 흉내 내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09 신경 가소성은 신경 세포들 사이의 연결 강도가 변하는 것이며 이것이 학습 능력의 핵심이다.

17 인공지능의 지능이나 의식, 고통 감수성에 따라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적 속성 유무에 따른 것이다.

20 관계론적 접근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는 객관적 속성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 방식 속에서 정해지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2 우리 문학의 흐름을 따라

(1) 옛 노래의 향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44~047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②	05 ④	06 ②	07 ③	08 ④
09 ④	10 ③	11 ①	12 ②	13 ⑤	14 ②	15 ⑤	16 ③
17 ⑤	18 ②						

01 10구체 향가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시조의 3장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

오답 해설 ①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나눌 수 있으며, 10구체가 가장 정제된 형식이다. ②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한 향찰로 기록되어 있다. ③ 10구체 향가는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거나 집약하고 정리한다. ④ 향가는 삼국 시대 말부터 고려 초까지 승려나 화랑 등에 의해 향유된 시가 양식이다.

02 '한 가지'는 대상과 화자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모든 생명의 기원이 하나의 뿌리에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잎'은 누이를 비유한 시어로, 잎이 떨어졌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을 의미한다. ②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을 암시하고 있다. ④ '생사 길'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뜻한다. ⑤ '미타찰'은 화자가 누이와의 재회를 바라는 공간이다.

03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누이를 추모하고 있다.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 힘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② '-겠-'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 누이와 미타찰에서 재회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④ 5~8구에는 삶과 죽음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⑤ 유언 한 마디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은 누이에 대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04 ⓑ의 '나'는 '누이'를 가리키며 '나는 간다는 말도 / 몯다 이르고'는 누이가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죽었음을 의미한다. 인생무상에 대한 감정은 화자가 느끼는 것이지 누이의 깨달음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린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고뇌의 표현이다. ③ ⓒ는 누이의 요절을 이르다고 표현한 것이다. ④ ⓓ는 한 부모를 비유한 것으로 이를 통해 누이와 화자가 육친 관계임을 드러낸다. ⑤ ⓔ에는 누이와 미타찰에서 만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05 ㉠은 '이승', ㉡은 '극락'으로 서로 대립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나'가 ㉡에서 만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은 '도'를 닦는 행위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① ㉠은 현실적인 공간으로, 생사의 고뇌가 담겨 있는 공간이며, ㉡은 극락으로, 비현실적 공간이자 '도' 닦는 행위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② ㉡은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도'를 닦는 행위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 현실적 공간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과 ㉡은 대립적인 공간이지만, ㉠은 '도'를 닦는 현실적 공간이고, ㉡은 '도' 닦는 행위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⑤ ㉠과 ㉡은 동일한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다.

06 (가)는 평시조, (나)는 사설시조이다. (가)와 (나) 모두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평시조로 3(4)·4조의 음수율과 4음보의 음보율이라는 규칙성을 보이지만, (나)는 사설시조로 규칙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③ (나)는 사설시조로 평시조의 3장 6구에서 중장이 길어지는 변형된 형식을 보인다. ④ (나)는 조선 후기 사설시조로 작자층이 확대되면서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진 형식을 보이는데, 이때 중장은 4음보의 규칙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조로 고려 말에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창작되고 있다.

07 (가)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친화적 태도가 드러나 있지만, 사계절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변화가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집 안의 달, 집 밖의 강산을 집 주위에 둘러 두고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② '초려삼간'은 화자가 자연과 더불어 안빈낙도(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하는 공간이다. ④ 자연물인 '달', '청풍' 등을 의인화하여 함께 살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십 년을 경영하야'는 그만큼 오랫동안 계획했다는 의미이다.

08 ㉠은 '탐관오리'나 '허세 있는 양반'을, ㉡은 '힘없는 백성'을, ㉢은 '중앙 관리' 혹은 '외세'를 상징한다. ㉠은 부패한 탐관오리로서 강자인 ㉢에게 약하고 약자인 ㉡에게 강한 이중적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은 ㉠으로부터 ㉡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

09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10년을 계획하여 세 칸밖에 안 되는 작은 초가를 짓고 '달', '청풍'과 어우러져 사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입신양명(立身揚名)은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을 의미하므로,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화자의 삶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 ②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 ③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⑤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따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

10 '두터비'는 '탐관오리, 허세 있는 양반'을,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백송골'은 '중앙 관리, 외세'를 의미한다. (나)에는 이들의 관계를 통해 탐관오리의 횡포를 풍자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두터비'의 외모가 아니라 행위를 희화화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② '백송골'은 중앙 관리를 의미하지만, 이를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여 풍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다. ④ 종장은 '두터비'의 허장성세와 자기 합리화를 드러낸 것이지 건강한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파리'는 탐관오리에 수탈당하는 백성으로 연민과 동정심을 유발하는 존재이다. '두터비'에게 의존하려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11 (가)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이라는 부정적 현실에서 삶의 무상감을 느끼고는 이를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의 화자가 자연을 친화적 대상으로 여기고 완상하는 모습은 드러나나 시상의 전환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다)는 횡포와 허세를 부리는 지배 계층을 풍자하고 있으나 화자의 소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가)는 비유의 방법으로, (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한 간'이라는 시어가 반복되고 있지만, (다)에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12 (나)의 화자는 안빈낙도, 자연 친화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는 학문 수양에 정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③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을 노래하고 있다. ④ 자연(양단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있다. ⑤ 자연에 묻혀 사는 이가 느끼는 삶의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13 (다)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두터비'를 관찰하기는 하나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시적 대상인 '두터비'의 말을 인용하여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중장에서 '두터비'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비판하고 있다. ②, ④ '두터비'는 '탐관오리, 허세 있는 양반'을,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백송골'은 '중앙 관리, 외세'를 비유하는데, 이를 통해 부조리한 당대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③ 종장에서는 '두터비'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두터비의 허장성세를 풍자하고 있다.

14 (가)는 10구체 향가로, 4음보의 운율을 형성하지 않는다. 〈보기〉에서는 3단 구성이 시조의 3장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일반적으로 10구체 향가는 결구 부분에서, 시조는 종장에서 시상이 집약되거나 마무리된다. ③ (가)의 3단 구성이 (나), (다)의 3장 구성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④ (다)는 사설시조로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진 형식이다. ⑤ (나)는 평시조, (다)는 사설시조로 3장과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 (다) 상춘곡_정극인

핵심 정리

갈래	가사
성격	서정적, 자연 친화적, 풍류적
주제	봄의 아름다운 경치와 이를 즐기는 풍류
해제	조선 성종 때 정극인이 지은 가사로,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내용을 담고 있음.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을 추구하는 작가의 모습이 잘 드러나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가사 문학의 대표작임.

15 누이의 죽음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화자의 무상감과 종교적 승화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의 무한함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괴로운 심정이 '어찌 갑니까'에 드러나 있다. ② 누이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도를 닦는 행위로 극복하여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③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의 섭리인 바람에 잎이 떨어지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④ 누이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인생무상의 정서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 / 가는 곳 모르온저.'에 드러나 있다.

16 ㉢은 '지극한 즐거움을 안다.'는 의미로 조롱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붉은 먼지'라는 뜻으로, 속세를 의미하며 자연과 대비되는 세속적 공간이다. ② ㉡에는 자연에서의 화자의 삶이 옛사람의 풍류를 충분히 따른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④ ㉣은 화자가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⑤ ㉤의 '새'는 봄기운에 흥겨운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물아일체를 느끼는 대상이다.

17 (나)는 달과 청풍에 각기 방 한 칸을 나누어 주겠다는 부분에서, (다)는 수풀에 우는 새에 감정을 이입하는 부분에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친화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한 간'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나, (다)에는 시어가 반복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나)와 (다) 모두 자연과 인간의 삶을 대비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나)의 '둘너 두고 보리라'와, (다)의 '엇더ᄒᆞᆫ고'에 쓰인 영탄적 표현은 자연에 긍정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지, 속세에서의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나)는 계절감이 드러나지 않고, (다)는 봄이라는 계절감이 드러나 있지만 무상감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18 (나)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과 안분지족을 노래한 작품이고, (다)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와 그로 말미암은 흥취를 노래한 작품이다. (나), (다)에서 자연은 화자가 풍류를 즐기는 안빈낙도의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① (나)와 (다)의 화자는 자연을 즐기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③ (나)와 (다)의 자연은 감상의 공간이지, 삶의 반성을 유도하는 공간이 아니다. ④ (나)와 (다)의 자연은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인간 세상과 대비되는 공간임은 (다)에서만 확인된다. ⑤ 인간의 삶과의 대비는 (나)와 (다)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48~051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④ 05 ① 06 ④ 07 ② 08 ⑤
09 ② 10 ⑤ 11 ④ 12 ④ 13 ④

01 (다)는 4음보 연속체의 가사로, 시조의 3(4)·4조의 음수율과 4음보의 율격이라는 형식적 특성을 이어받았다.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운율을 형성하기 때문에 운문 문학의 갈래로 본다.

오답 해설 ① (가)는 평시조로 주로 양반 사대부에 의해, (나)는 사설시조로 서민들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향유층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진 형식을 가진 사설시조이다. 이는 3장 6구로 규격화되어 있는 평시조에 비해 형식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와 (다)는 자연이라는 대상을 물아일체, 풍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면, (나)는 대상인 '두터비'를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 풍자하고 있다. ⑤ (가)와 (다)에는 개인적 정서가 담겨 있지만, (나)에는 당대 사회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다.

02 (가)의 종장에서 '강산'을 '둘너 두고 보리라'라고 한 것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므로 화자가 '강산'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가 자연 속에 지은 '초려삼간'은 초라한 세 칸의 초가집으로, '돌', '청풍'과 함께 하는 공간을 의미하므로 안빈낙도하며 사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 1〉의 '묵은 풀'을 매는 '밭'은 건강한 노동을 하는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 1〉의 한 그릇의 '보리밥'과 한 사발의 '콩잎 나물'은 농부들이 일한 뒤 먹는 점심을 나타내므로 노동의 현장에서 맛보는 소박한 음식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 1〉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농부가 듣는 '우배초적'은 건강한 노동 후의 흥취로 볼 수 있다.

Plus 〈보기 1〉 **농가구장**_위백규

갈래	연시조
성격	사실적, 현실적, 전원적, 묘사적
주제	농촌 생활의 보람
해제	작가가 자신의 생활과 농민의 생활을 동일시하여 농촌에 사는 삶에 대한 만족을 드러내며,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삶의 흥취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전 9장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계절 변화와 하루 농사일의 상황을 드러냄.

03 (나)의 '두터비－파리－백송골'의 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도식화하면 '파리＜두터비＜백송골'이다. 이러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③의 '쥐＜솔개＜봉황'이다. 즉 '솔개－쥐－봉황'의 관계와 (나)의 관계가 유사하다.

오답 해설 ① '닭'과 '개'는 화자가 기르고 있는 동물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동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② '까마귀'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상이며, '백로'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상이다. '너'는 '백로'를 지칭하는 말이다. ④ 화자가 기대하고 있는 결과는 '봉황'인데, 실제로 얻은 결과는 '오작'으로 불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화자는 '동자'에게 '봉황'을 데려오라는 명을 내리고 있다. ⑤ '나비'와 '범나비'는 동등한 관계로 화자는 이들과 함께 지향하는 곳인 '청산'에 가고자 한다. '꽃'은 '청산'에 가는 중간에 쉴 수 있는 중간 기착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04 종장을 Ⓐ로 보면, 종장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인 두터비의 변명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두터비의 허세를 비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초장은 Ⓐ, Ⓑ 어느 견해로 보더라도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화자가 두터비의 행동을 관찰하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중장을 Ⓐ로 보면, 중장은 화자가 두터비가 놀라서 달아나다가 자빠지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두터비를 희화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중장을 Ⓑ로 보면, 화자인 두터비가 '가슴이 금즉하여'라며 '백송골'을 보고 느낀 두려움을 직접 드러내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⑤ 종장을 Ⓑ로 보면, 두터비는 몸이 날쌔다는 자기의 장점을 거론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5 석양 속에 피어 있는 '도화 행화'와 가랑비 속에 푸른 '녹양방초'의 모습은 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오답 해설 ② '풍월주인'은 자연에 도취된 화자를 의미하고, '정자'는 봄의 흥취를 느끼는 구체적 공간이다. ③ '홍진'은 '속세'를, '산림'은 '자연'을 의미한다.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몰입한 삶의 모습은 '산림'에서 드러난다. ④ 술잔을 세며 '술'을 마신다는 것은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자연을 쾌락의 장소로 여기는 모습이 아니다. ⑤ '한중진미'는 한가함 속의 즐거움을 뜻하는 말로,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다.

▸ (라) 율리유곡_김광욱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성격	전원적, 한정가(閑情歌), 강호한정가
주제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취와 안빈낙도의 삶
해제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취하여 소박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음.

06 [A]에는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봄의 정경 속에서 흥에 겨운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이에 반해 [B]에는 눈이 녹아 푸른색을 되찾아가는 봄의 풍경과 달리 늙음을 탄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어 서글픔을 느끼게 한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봄은 화자에게 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계절이고, [B]에서 봄은 화자에게 서글픔을 느끼게 하는 계절이다. 인간의 유한성과는 관련이 없다. ② [A]에 봄과 겨울을 대조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B]에 의인화를 사용하여 봄의 속성을 강조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A]와 [B] 모두 원경과 근경이 나타나 있지 않다. [A]는 대구나 감정 이입 등의 수사법을 사용하여 봄의 아름다운 정경을, [B]는 흰머리를 해묵은 서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07 삶에 대한 무상감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절망적 어조보다는 도를 닦는 행위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를 '한 가지'라는 시구를 통해 동기간임을 드러냈다. ③ '기(1~4구) – 서(5~8구) – 결(9~10)'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형식이 후에 시조의 '초장 – 중장 – 종장'의 3장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 ④ 이 글은 향가 중 가장 정제된 형식인 10구체 향가로, 낙구에 감탄사를 사용해 시상을 집약한다. ⑤ 누이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08 [C]에는 누이와 미타찰에서 재회를 위해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에 종교적 극복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C]에서 고뇌와 번뇌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A]에는 누이를 떠나보내는 화자의 고통과 탄식이 '어찌 갑니까'라는 설의적 표현에 드러나 있다. ② [A]에는 삶과 죽음으로 나누어지는 세상에서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묻다 이르고'에 드러나 있다. ③ [B]에는 유한한 인간

적 삶의 무상감이 '(저승) 가는 곳 모르온저'라는 영탄적 표현에 드러나 있다. ④ [B]에서 '잎'은 유한한 인간을, '바람'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연의 섭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속성을 통해 인간의 유한한 삶을 표현하였다.

09 (가)는 신라 시대 때 지어진 향가로,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어순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한자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배경 설화에 함께 전해지고 있지만, (나)는 배경 설화가 전해지지 않는다. ③ (가)의 3단 구성이 (나), (다)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가)~(다)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조선 후기 작품으로 서민들의 다양한 정서를 드러낸 작품은 (다)이다. ⑤ (가)는 신라 시대 때, (나)와 (다)는 조선 시대에 불리던 노래이다. 창작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형식이 유사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A]는 화자와 누이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죽음 이후를 알 수 없다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슬픔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삶과 죽음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한 가지에 나고 / 가는 곳 모르온저'를 통해 존재의 태어남과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인간과 자연물 모두 생성과 소멸의 공통적 속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③ '가는 곳 모르온저'는 죽음의 덧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화자는 '가는 곳 모르온저'에서 누이가 간 곳을 모른다고 탄식하고 있다.

Plus 〈보기〉 귀천_천상병

갈래	서정시, 자유시
성격	초월적, 낙천적, 낭만적
주제	죽음을 초월한 자유인의 아름다운 삶
해제	평이한 시어와 단순한 진술을 반복함으로써 정신적 자유인의 경지를 드러냄.

11 (가)는 누이의 죽음을 자연의 섭리에 비유하여 그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슬픔을 종교에 의지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보기〉의 화자는 삶이란 잠시의 소풍이며 죽음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달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나뭇잎은 때가 되면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존재는 죽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12 ㉠은 극락 세계로서 이승과 대비되는 공간이자 죽은 누이와 재회할 수 있는 초월적 세계를 의미한다. ㉡은 화자가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이자, 안빈낙도의 삶을 누리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 공간은 ㉠이다. ② ㉡에서 화자가 연군지정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③ ㉠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며, ㉡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 ⑤ ㉡의 화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다.

13 〈보기〉에 따르면 (다)는 백성에 대한 탐관오리의 수탈과 횡포를 다루고 있다. ④는 백성들에게 도박과 송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백성을 교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작품이다.

오답 해설 ① 피땀 흘려 짜낸 무명을 황두가 빼앗아가고, 성화 같은 세금 독촉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 ② 농민들이 애써 지은 곡식을 참새가 없애는 행태를 묘사하는데 이를 통해 농민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③ 탐관오리가 부리는 횡포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⑤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지배층의 횡포를, 제비를 괴롭히는 황새와 뱀에 빗대어 풍자한 작품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52~053쪽

01 (1) ⓐ: 인생무상(무상감), ⓑ: 종교(불도), ⓒ: 청풍, ⓓ: 강산, ⓔ: 파리, ⓕ: 자화자찬 (2) 10구체 향가인 (가)는 1~4구, 5~8구, 9~10구의 '기 – 서 – 결' 3단 구성을, (나)는 '초장 – 중장 – 종장'의 3단 구성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형식적인 공통점이 있다. **02** [A]의 '기다리겠노라'와 〈보기〉의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에서 헤어진 대상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와 〈보기〉 모두 불교적 (윤회) 사상이 나타난다. **03**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두터비'는 탐관오리를, '백송골'은 중앙 관리나 외세를 나타낸다.

01 10구체 향가와 시조는 3단 구성이라는 공통된 형식을 가진다. 이 구조는 시상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정리하는 데 기여한다.

02 (가)의 화자는 '기다리겠노라'에서 불교적 믿음을 통해 죽은 누이와 재회할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이별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54~05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3 시조는 고려 말에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창작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이다.

14 〈십 년을 경영하야〉의 화자는 초려삼간에 달, 청풍은 각각 방 하나씩을 내주지만, 강산은 들일 데가 없어서 병풍처럼 둘러 두고 보겠다고 하였다.

18 〈두터비 파리를 물고〉의 종장에서는 관찰자였던 화자가 작품 속 인물인 두터비로 바뀌어 스스로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다.

(2) 옛이야기의 즐거움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58~065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④	05 ③	06 ②	07 ④	08 ①
09 ①	10 ②	11 ⑤	12 ②	13 ⑤	14 ④	15 ①	16 ①
17 ②	18 ②	19 ⑤	20 ④	21 ③			

01 이 글은 성진이 환생과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구조를 보여 주는 전형적인 환몽 구조의 몽자류 소설이다.

오답 해설 ① 가전체는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대기를 다룬 갈래로, 이 글은 사물을 의인화하고 있지 않다. ② 가문 소설은 가족 또는 가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성진과 팔선녀의 이야기라는 가족의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꿈의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성진의 깨달음과 환생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문 소설로 보기 어렵다. ③ 판소리계 소설은 〈춘향전〉, 〈흥부전〉처럼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갈래이며, 이 글은 판소리계 소설에 속하지 않는다. ⑤ 군담 소설은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설로, 이 글에서 양소유가 토번 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이는 작품의 중심 내용이 아니며, 양소유가 실존하는 인물도 아니다.

02 이 글에서 성진은 현실에서 꿈속으로 이동하지만 이에 따라 성진의 성격이 변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성진이 염라대왕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이야기하거나, 팔선녀가 대왕 앞에서 탄원하는 말 등은 사건을 직접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지옥에서 양 처사의 집으로 가는 장면의 묘사 역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③ 이 글은 기본적으로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과 도교 사상 등이 드러난다. ④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생각할수록 슬펐다.' 등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이 글은 '현실 → 꿈 → 현실'의 이원적 환몽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03 '성진은 아주 부끄러웠다. 오랜 후에 입을 열었다.'에서 성진이 참회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팔선녀는 '대왕께서는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저희를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 주소서.'라며 자비를 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팔선녀는 '위 부인의 명령을 받들어 육관 대사께 인사드리러 갔다가'라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염라대왕의 처분을 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염라대왕은 성진의 죄를 논하기 위해 지장보살의 의견을 물을 뿐, 추방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④ 성진은 '제 멋모르고 연화봉 돌다리에서 선녀들을 만나 한때 마음을 누르지 못하였다.'라며 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육관 대사는 성진과 팔선녀를 모두 환생하도록 지옥으로 보낸다.

오답 해설 ① '양 처사 부인은 나이가 쉰이 넘었는데도 태기가 있소.', '방 안에서는 부인의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에서 유씨 부인이 곧 출산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성진은 저승사자의 재촉에도 의심하며 '뒷걸음질을 쳤다'는 표현에서 환생을 망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돌연 사자가 뒤에서 ~ 뒤집히는 것 같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도를 닦는 사람이 가고 오는 것은 마땅히 그 하고자 하는 바에 달렸소. 물을 일이 뭐가 있소.'를 통해 지장보살이 도를 닦는 사람의 운명을 본인의 선택과 업에 달린 것으로 여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5 '황건역사가 육관 대사의 명을 받아 여덟 죄인을 거느리고 문밖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두 졸개 귀신의 말 이후에 팔선녀가 환생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죄를 짓고 환생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지장보살은 성진에 대해 '도를 닦는 사람이 가고 오는 것은 마땅히 그 하고자 하는 바에 달렸소.'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성진이 꿈에서 양소유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결국 성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의미로, 윤회 사상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② 저승사자가 성진에게 환생 장소를 일러주는 장면은 성진이 세속적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④ 염라대왕이 성진에게 한 말은 성진이 수행자로서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닌 인물임을 시사한다. 이는 성진이 단순히 죄인으로만 평가되지 않고,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팔선녀는 염라대왕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이 지옥에 오게 된 연유를 고백한다. 이 말을 통해 성진과의 만남이 그들의 환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06 '이제는 세속의 인연이 다 끝날 때였다. 소유의 말을 듣고 절로 감동하는 마음이 생겨 말했다.'라는 부분을 통해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에 있는 낭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건의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시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글에 제시된 대화는 구체적이고 긴 대화가 주를 이루므로 간결하고 함축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 대화가 사건의 실마리를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⑤ 인물들의 심리가 담긴 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07 〈보기〉는 작품의 내적 구조에 집중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유의 내적 갈등과 결심이 서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는 ④가 이러한 관점으로 글을 감상한 것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소유의 결심을 시대적 배경과 연결하여 해석한 것이다. ② 작품을 작가의 의도와 연결하여 작가의 의도를 추론한 것이다. ③ 작품 속의 상황을 불교적 사상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맥락으로 해석한 것이다. ⑤ 작품의 내용을 당시 역사적 인식과 연계하여 해석한 것이다.

08 '슬픈 마음이 절로 퉁소에 나타났소.'라고 말한 이는 소유이다. 즉 이는 소유의 감정이지 처첩들의 마음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소유는 유도, 불도, 선도 중 불도를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③ 소유는 유도에 대해 '유도는 그것이 온전히 ~ 데 그칠 뿐'이라고 말하며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④ 소유는 인연에 대해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라며, 모든 인연이 끝날 때 이별이 찾아옴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⑤ 소유는 진시황의 아방궁, 한 무제의 무릉, 현종의 화청궁을 바라보며 '천년이 흐른 지금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소?'라고 말하며 세속적 영광의 덧없음을 한탄한다.

09 '상전벽해'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이 크게 변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 역시 높은 누대와 연못이 변할 것이라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무주공산'은 '주인이 없는 빈 산'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살지 않아 황폐해진 산이나 주인이 없어 버려진 곳을 비유하는 말이다. ③ '염량세태'는 '뜨거움과 서늘함 같은 세태'라는 뜻으로, 권세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따르다가 권세가 없어지면 멀리하는 세속적인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④ '만시지탄'은 '때가 늦었음을 한탄함.'이라는 뜻으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말이다. ⑤ '오리무중'은 '오 리나 되는 안개 속'이라는 뜻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10 ㉡은 처첩들의 전생을 드러내는 것으로, 과거에 불도를 닦은 수행자였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소유가 불교에 귀의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양소유로서의 삶이 실은 성진의 꿈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③ 처첩들이 불도에 귀의하려는 소유의 의지를 칭송하며 그가 도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처첩들은 소유가 도를 닦고 득도한 후 자신들을 제도해 주기를 요청하며 불교에 귀의할 뜻을 보이므로 적절하다. ⑤ 처첩들이 술잔을 들어 소유를 전송하며 그의 길을 축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1 소유는 자신의 결심을 설명하면서 '슬픈 마음이 절로 퉁소에 나

타났소.'와 같이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객관적 사실의 나열이나 논리적 전달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처첩들은 '모두 깊은 규중에 거하며 아침저녁으로 예불을 올리며 상공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며 감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감정이 중심이 되는 말하기 방식이다. ② 처첩들은 소유의 결심에 감동하며 '득도하신 후에는 반드시 저희를 먼저 가르치소서'라고 말하며 감정적인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③ 소유는 '천년이 흐른 지금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소?'라고 말하며,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인생의 덧없음을 감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소유는 '전생에 다하지 못한 인연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수 있겠소?'라며 처첩들과 전생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유롭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12 '부귀영화와 남녀 정욕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게 한 것이리라.'를 통해 양소유가 꿈속에서 부귀영화와 욕망을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꿈을 깸으로써 이는 결국 허무한 것이며 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는 필시 사부께서 ~ 알게 한 것이리라.'를 통해 양소유는 꿈속에서 불승을 만나고 꿈에서 깨어난 후 깨달음을 얻게 되며, 불승이 사부로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려 했음을 인지한다. ③ 구운몽의 '구(九)'는 성진, 팔선녀(꿈속 양소유의 2처 6첩)를 의미한다. ④ 양소유의 꿈속 경험은 인간적 욕망, 특히 부귀공명과 남녀 정욕의 상징적 표현이다. ⑤ 향로의 불이 꺼지고 달이 기우는 것은 꿈속에서의 긴 시간이 흐른 뒤 현실로 돌아오는 전환점을 보여 준다. 이는 꿈을 꾸는 동안 시간의 경과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3 [B]에서 [C]로 넘어가는 장면은 불승이 사라지고, 성진이 홀로 암자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순간인 '각몽'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A]에 해당하는 현실에서의 주인공은 성진이다. ② 불승이 지팡이를 높이 들어 난간을 두드리고 흰 구름이 누대를 감싸는 순간이 각몽의 시점이다. ③ 이 글에서 입몽의 순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A]에서 [B]로 넘어가는 계기는 성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처첩과 함께 술자리를 즐기던 순간은 꿈속에서 소유였을 때의 일이다.

14 ㉠, ㉢, ㉤은 주인공인 양소유(성진)를 지시하며, ㉡, ㉣, ㉥은 성진의 스승(불승)을 가리킨다.

15 ⓐ는 성진이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해설 ② ⓐ는 소유가 꿈속에서 부귀영화와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는 핵심적인 존재이다. 불승의 등장과 환술은 양소유로 하여금 꿈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직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삶의 본질을 깨닫도록 이끈다. 하지만 주변 인물의 심경 변화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는 소유의 총명하지 못함을 꼬집긴 하지만, 이를 성진의 영특함과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④ ⓐ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몽 구조를 통해 소유(성진)의 내적 성찰을 돕고 있다. 갈등의 심화와는 거리가 멀다. ⑤ ⓐ의 등장과 그의 환술은 고전 소설 특유의 비현실적 요소를 부각한다. 따라서 ⓐ가 현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성진은 사부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도 '현실 아닌 꿈과 꿈 아닌 현실'의 구분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드러냈다. 이 글에서 성진은 '제자가 어리석어 현실 아닌 꿈과 꿈 아닌 현실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해가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사부는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현실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며 성진에게 꿈과 현실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며, 경계를 분별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함을 가르치고 있다. ③ 사부는 성진이 꿈과 현실을 나누어 보는 관점에 대해 '네 아직 꿈에서 완전히 깨지 못했도다.'라며 그의 시각이 완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사부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성진은 사부에게 인간 세상에서의 경험을 꿈으로 이해하고 사부의 가르침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⑤ 장자의 꿈 이야기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글에서도 사부는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데, 꿈속의 나비 입장에서 보면 나비가 현실에서 장자가 된 것이라'고 말하며 정체성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 (나) 조신 설화

핵심 정리

갈래	설화, 전설
성격	불교적, 환몽적, 서사적, 교훈적
주제	속세의 욕망과 집착에 대한 무상감
해제	현실에서의 생각과 집착으로 인해 가상 세계인 꿈속에서 일련의 사건을 체험하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 참 이치를 깨닫는 환몽 설화로 정토사의 사원 연기 설화임.

17 (나)는 전설로서 돌미륵을 발견한 장소가 구체적 증거로 제시되어 서사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현실에서는 하룻밤이지만 꿈에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 ③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으로 공간을 묘사하여 장면을 전환하고 있는 것은 (가)이다. ④ 꿈에서 부정적인 현실이 드러나는 것은 (나)이다. ⑤ (가)와 (나) 모두 '현실 – 꿈 – 현실'이라는 환몽 구조를 취하고 있다.

18 양소유는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꿈에서 깨어 본래의 모습인 불승으로 돌아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양소유는 꿈에서 자신의 세속적 삶이 헛됨을 깨닫고 있다. ③ 조신의 아내는 가난과 고난 속에서 이별을 결심하고 조신에게 이를 제안하고 있다. ④ 조신은 꿈에서 깨어난 뒤 세속적 욕망을 내려놓고 정토사를 세웠다. ⑤ 조신과 김흔의 딸은 꿈속에서 가난한 삶을 살았다.

19 성진과 조신 모두 현실의 소중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고 세속을 초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성진과 조신 모두 세속적 욕망을 꿈꾸었다. ② 조신은 꿈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정토사를 짓는다. ③ 성진은 꿈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반면 조신은 꿈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산 후 깨달음을 얻었다. ④ 성진과 조신 모두 꿈을 통해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는다.

20 이 글에서 서술자의 감정적 동조는 드러나지 않으며, 언급된 장면은 단순한 객관적 서술에 불과하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양소유의 삶을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일대기적 구조를 보인다. ② 육관 대사는 성진의 깨달음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③ 양소유는 고전 소설 주인공의 이상적인 특성인 빼어난 외모와 지위, 능력 등을 지닌 인물이다. ⑤ 각몽의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상황 설정은 고전 소설 작품의 특징이다.

21 ⓒ는 꿈속에서 고통을 겪는 부분으로, 욕망의 한계를 깨달은 상태는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조신은 현실에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 ② 조신은 입몽을 통해 꿈으로 들어간다. ④ ⓓ는 각몽으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⑤ 조신은 꿈을 통해 세속적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정토사를 건립하며 불교적 삶에 전념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66~071쪽

01 ② 02 ② 03 ② 04 ③ 05 ③ 06 ② 07 ② 08 ③
09 ④ 10 ⑤ 11 ① 12 ①

01 성진은 '꿈속에서 양소유가 되어 인간 세상의 부귀를 누린 일'을 회상하며 그것을 '일장춘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성진이 꿈속에서 속세의 영화를 경험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양소유는 처첩들의 의견에 따라 그들의 곁을 떠나려 한 것이 아니

라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로 인해 인생무상을 느끼고 떠나려 하는 것이다. ③ 양소유의 처첩들은 꿈속 이야기의 인물이며, 성진이 꿈에서 깬 후 그들과 함께 연화 도량에서 도를 닦았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양소유가 벼슬을 여러 번 사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⑤ 성진은 꿈에서 깨어난 후 인간의 부귀한 생활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허무한 일장춘몽'으로 깨닫고 불도를 구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02 성진은 꿈에서 속세의 부귀영화가 허망함을 경험한 후, 꿈에서 깨어나 불도를 구하고자 하는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에 이른다.

오답 해설 ① [B]는 [A]와 [C]의 동일성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며, [B]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더 높은 차원의 [C]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③ [B]와 [C]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라, [B]가 [C]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④ [A]는 [B] 및 [C]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⑤ [B]의 경험은 [C]에 도달하는 계기가 되므로, [A]가 [C]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은 세상의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나타낸다. 그런데 '사필귀정(事必歸正)'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회자정리(會者定離: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짐. 모든 것이 무상함을 나타내는 말.)', '거자필반(去者必反: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음.)' 등이 있다.

오답 해설 ① '포의한사'는 가난한 선비를 뜻하므로 ㉠과 연결될 수 있다. ③ ㉢은 세상사의 무상함을 나타내며, 이는 '상전벽해'와 연결될 수 있다. ④ ㉣은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내며, '일장춘몽'과 연결될 수 있다. ⑤ ㉤은 출세하여 이름을 떨친다는 뜻의 '입신양명'과 연결될 수 있다.

04 〈보기〉의 소자는 손에게 자연의 영원함을 깨닫게 하고, 이 글의 사부는 성진에게 속세의 허무함을 깨닫게 한다. 두 인물 모두 깨우침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손과 이 글의 양소유는 모두 인간의 유한함을 탄식하지만, 갈등을 드러내는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보기〉의 소자는 자연의 영원함을 즐기고 깨달음을 이야기하지만, 양소유는 꿈속에서 부귀를 누리며 허무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서로 대조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④ 이 글의 성진은 불도를 추구하지만, 〈보기〉의 손은 자연 속 풍류를 지향하기보다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⑤ 〈보기〉의 손은 인간의 유한함을 탄식하고 있으나, 이 글의 양소유는 유한함을 인정하고 불도를 행하려 하고 있다.

05 '갑자기 흰 구름이 사방의 산골짜기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마침내 누대를 감쌌다.'와 같은 장면 묘사를 통해 꿈에서 현실로 돌아가는 전환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불승과의 대화 및 구름 속 환술 장면을 통해 극적 전환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② 대화를 통해 인물이 대립하기보다는 성진(양소유)이 깨달음을 얻도록 이끄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④ 시대적 배경은 일부 드러나지만, 내용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대 상황이 언급되는 것은 아니다. ⑤ 서술자가 과거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6 성진은 '사부께서는 꿈속에서 만났던 그 스님 아니십니까?'라고 하며, 꿈속에서 만난 노승이 육관 대사임을 깨닫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성진은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깨달음을 얻으려 하고 있다. 이 글에서 성진은 '바라옵건대 사부께서는 설법을 하시어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가르침을 요청하고 있다. ③ 양소유는 팔 낭자와 함께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불승에 의해 현실로 돌아왔다. ④ 불승(육관 대사)은 성진이 깨달음을 얻도록 꿈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⑤ 성진은 양소유에서 성진이 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을 넘어, 부귀영화의 허망함을 깨닫고 불교적 깨달음을 추구하게 된다.

07 ㉡은 성진이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시점으로,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후 세속적 삶에 빠진 상태로, 세속적 삶에 대한 허망함을 깨달아가는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의 과정의 중간 지점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성진이 꿈에서 양소유로서 살 때의 내용으로,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이후의 일이다. ③ ㉢은 성진이 꿈에서 깨어난 직후 '제자가 못나서, 한때 마음을 잘못 먹어 만든 앙화니'라며 깨달음을 얻는 단계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하기 전의 일이다. ④ ㉣은 장자의 나비 꿈을 인용하며 참과 거짓의 이분법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의 내용이다. ⑤ ㉤은 성진이 깨달음을 얻고자 육관 대사에게 설법을 요청하는 장면으로,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후의 상황이다.

08 육관 대사는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것인지'라는 호접지몽 고사를 통해 성진에게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육관 대사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호접지몽을 인용하여 성진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② 육관 대사는 자신의 경험을 직설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비유와 고사를 통해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④ 사례와 비유를 들고 있지만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보다는 성진의 깨달음을 이끌기 위한 설법을 진행하고 있다. ⑤ 육관 대사는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설득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다.

09 고승의 환술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선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과 현실이 분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성진과 소유, 둘 중에 누가 꿈이고 누가 꿈이 아니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성진이 대승상에서 젊은 불승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현실의 자아와 꿈속 자아가 서로 다른 존재임을 드러낸다. ② 양소유가 노승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은 꿈속 자아가 현실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성진이 '제자가 못나서, 한때 마음을 잘못 먹어 만든 앙화니'라고 깨닫는 장면은 몽자류 소설의 일장춘몽이라는 현실 인식을 보여 준다. ⑤ 꿈에서 깨어난 성진이 양소유로서의 삶을 기억하고, 자신이 그 삶을 경험한 주체임을 자각하는 것은 꿈속 자아와 현실 자아의 일치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10 ⓔ에서 성진이 처첩들을 떠올리는 것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던 ⓒ의 흔적일 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에서 성진은 이미 꿈에서 깨어난 후 깨달음을 얻고 천상적 가치를 지향하는 상태에 있다.

오답 해설 ① 팔선녀를 만나는 것은 성진이 천상적 가치를 지향하던 ⓐ의 상태에서 불도에 대한 회의를 보이는 ⓑ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이다. ② 성진이 부처의 법문을 적막하다고 받아들이는 장면은 불도에 대한 회의를 보이는 ⓑ의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③ '열여섯에 과거에 급제한 다음 계속 벼슬에 있'다는 것은 소유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에서 소유는 세속적 가치에 회의를 느낀 후 불승과의 만남을 통해 꿈에서 깨어나 천상으로 회귀하게 된다.

11 (가)에서는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서술이 드러나 있지 않다. 양소유가 '열여섯에 과거에 급제한 다음 계속 벼슬에 있어서 서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라며 과거의 행적을 일부 드러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양소유와 불승의 대화를 통해 양소유가 '꿈속에서 만났던 스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나고, 불승은 양소유가 아직 꿈에서 깨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③ '갑자기 흰 구름이 사방의 산골짜기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와 같은 환술적 장면이 전기적 요소이다. ④ 양소유의 과거 행적은 '돌이켜 생각하니'라는 서술을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⑤ '정신이 황홀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와 같은 표현은 양소유의 내적 심리를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12 (나)는 환몽 설화의 전형으로, 주인공이 꿈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현실로 돌아와 삶의 본질을 깨닫는 구조이다. 〈보기〉에 따르면, 이 환몽 구조는 김만중의 〈구운몽〉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 역시 주인공 성진이 꿈속에서 겪은 삶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내용으로, (나)의 환몽 구조와 직접적인 유사성을 지닌다.

오답 해설 ② (나)의 주인공은 꿈에서 고통을 겪다 깨어난 후 머리가 하얗게 되는 신체적 변화가 생기지만, (가)의 주인공은 단지 현실로 돌아온 것일 뿐, 신체적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의 주인공은 꿈속에서 현실과 비슷한 신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분으로 태어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양소유는 세속적 욕망을 실현하며 기쁨을 누리지만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는다 (나) 역시 욕망을 긍정하고 있지 않다. ⑤ 꿈의 시작과 끝을 특정 인물에 의하도록 한 설정은 (가)에만 확인할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72~073쪽

01 작가는 장자의 꿈 이야기를 통해 꿈과 현실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결국 무의미하며, 두 세계가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02** ⓐ: 성진과 팔선녀, ⓑ: 인생무상(인생의 덧없음) **03** (1) 용왕이나 선녀 등 신비로운 존재들이 등장하는 점이 흥미로웠을 것이다. / 주인공 성진이 속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변화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2) 환몽 구조를 통해 꿈속과 현실을 교차하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점이 신선하고 몰입감을 주었을 것이다. / 속세와 초월적 세계를 넘나드는 서사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했을 것이다. (3) 꿈과 현실을 대비하며 삶의 허망함과 깨달음을 주제로 한 점이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 인간의 욕망과 성취, 그로 인한 덧없음을 통해 세속적 가치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다. **04** '성진'은 '막힘이 없이 돌아가는 경지'를 뜻하며, 주인공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깨달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는 인간이 욕망을 초월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반면 '소유'는 '잠깐 노닐다'라는 뜻으로, 주인공이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덧없음을 깨닫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속적 삶의 허망함과 깨달음을 위한 일시적 과정을 암시한다. 결국 깨달음과 세속적 경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성진'과 '소유'는 소설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이다.

01 김만중의 〈구운몽〉은 장자의 나비 꿈(호접지몽)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두 이야기 모두 꿈과 현실의 경계를 탐구하며 삶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구운몽〉은 호접지몽의 사상을 확장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02 '구운몽'이라는 작품의 제목은 '아홉 개의 구름 같은 꿈'을 뜻하는 것으로, 작품의 핵심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03 〈구운몽〉은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생의 허망함과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모든 계층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어, 상층 귀족부터 하층 민중까지 폭넓은 독자층의 사랑을 받았다.

04 '성진'과 '소유'는 각각 깨달음과 세속적 경험을 상징하며, 소설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74~07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4 성진은 높은 관직에 오르지만 왕의 자리까지 오른 것은 아니며 세속적 가치의 허무함을 깨닫는다.

10 꿈속에서 성진은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며 다양한 경험을 하나, 꿈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

15 팔선녀는 꿈속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등장하며, 후에 성진과 함께 불문에 귀의한다.

19 성진은 꿈속에서 입신양명을 이뤘지만, 꿈에서 깬 후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는다.

(3) 현대 시의 시선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78~081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②	05 ③	06 ③	07 ④	08 ②
09 ⑤	10 ③	11 ③	12 ③	13 ⑤	14 ④	15 ②	16 ②

▸ (나) 저문 강에 삽을 씻고_정희성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회고적
주제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
해제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로 삶의 모습을 자연물에 빗대어 형상화함.

01 (가)에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의 방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2연에서 우물에 비친 아름다운 자연물을 나열하여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② 전체적으로 고백적이고 차분한 어조로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를 보며 자신에 대한 미움, 연민, 그리움의 심리 상태를 보이는데 이를 돌아가 보는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⑤ '사나이가 ~ㅂ니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02 (가)의 4연에서 화자는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다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졌다고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1, 3연에서 화자는 외딴 우물에 비친 사나이를 들여다보다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간다. ④, ⑤ 5연에서 화자는 다시 돌아가다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다고 말하고 있다.

03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고 부끄러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가엾어 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다. 즉 화자는 성찰의 과정을 통해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어 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우물에 비친 자연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로부터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화자가 고된 삶을 살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화자는 자신을 '사나이'로 객관화하여 관찰하고 있지만, 무기력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④ 화자가 고난에 처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여기며 순응하고 있지도 않다.

04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은 화자의 초라한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화자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으나, ㉡은 흐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④ (가)의 화자는 ㉠을 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을 보며 우리(자신)의 삶이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⑤ ㉠과 ㉡은 둘 다 '물'로 본질적 속성은 같으나 ㉠은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은 흐르고 있어 존재 양상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05 (가)의 화자는 표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우물에 비친 '사나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즉, 화자는 보이지 않지만 우물에 비친 '사나이'의 모습을 통해서, '사나이'가 바로 화자 자신을 객관화한 대상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청자는 화자(=사나이)의 말을 듣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나이'와 동일 인물이 될 수 없다. ②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관적 평가를 내린다. ④ '미움'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내적 갈등을 의미한다. ⑤ 경어체를 쓰는 것이 화자와 청자의 신분 관계를 부각시키는 것은 아니다.

06 ⓐ는 공감각적 심상(촉각의 시각화)으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표현이다. ③의 '울음이 타는 가을 강' 역시 시각의 청각화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⑤ 시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② 미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④ 촉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07 〈보기〉를 참고할 때, 윤동주는 자기혐오와 연민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사나이'를 혐오와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사나이'는 곧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작가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⑤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의 모습으로, 시대 현실이나 민족, 국가로 보기 어렵다. ②, ③ 화자가 '사나이'에 대해 미움이나 가엾음 등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민족을 구원할 절대자나 선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08 (나)는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추진되던 1970년대 작품으로, 소외된 민중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로서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는 구절에서 고단하고 소외된 삶을 드러내고 있다. 즉 (나)는 무기력한 노동자로서의 삶의 현실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계급 갈등이나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화자는 개인의 노동과 고된 삶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계급 문제를 비판하는 사회적 메시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화자는 자신의 삶의 무게를 성찰하고 있을 뿐, 시대적 현실을 외면하거나 내적 갈등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 ④ '삽'을 통해 노동자의 삶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존재 가치를 잃은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나)에는 삶에 대한 체념과 고단함이 드러나 있다. 양심이나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기보다 노동에 얽매인 무기력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09 '삽을 씻으며',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로 보아 (나)의 화자는 노동자이며, 지식인으로서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순수했던 자신의 과거 모습을 '추억처럼' 그리워하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자신을 객관화한 '사나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미움 – 연민 –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③ (가)에서 우물 속 자연의 모습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풍경으로 그려진 반면, (나)에서는 도시화, 산업화로 오염된 '썩은 물'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④ (가)에서는 2연과 6연의 반복과 변조를 통해, (나)에서는 '우리가 저와 같아서'라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0 (가)에는 '-ㅂ니다'를 사용한 경어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것이 청자와의 신분 차이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파아란 바람'에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② 구어체를 사용하여 줄글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④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고 돌아가는 행동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다. ⑤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성찰과 갈등의 과정을 겪으며 과거의 순수했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11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를 보며 미움, 연민, 그리움을 느끼는 등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자아 성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는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의 현실은 변하고 있지 않다. ② 화자가 무력감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이를 통해 정서와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가)에 사회에 대한 불만은 담겨 있지 않다. ⑤ 화자는 고백적이고 담담한 어조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우물'은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 화자를 자아 성찰에 이르게 하고 이를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한다.

오답 해설 ①, ② 우물 속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이를 통해 화자는 자

신의 초라한 모습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사나이'를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거나 스스로 이상적으로 느끼도록 만든다고 볼 수 없다. ④, ⑤ 우물 속 평화로운 풍경은 화자가 동경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하거나 고통스러운 시대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13 우물 속에 비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한 '사나이'로 표현된 현실적 화자의 초라한 모습을 대조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구체적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독백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규칙적인 음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ㅂ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통해 산문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시적 대상에 대한 예찬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화자는 산모퉁이를 돌아 우물을 들여다보다가 돌아간 후 다시 우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화자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다.

14 (나)의 화자는 삶의 비애로 무기력하고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현실을 극복하려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강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② 13행의 '우리가 저와 같아서'는 '우리가 흐르는 물과 같다', '우리가 반복해서 뜨는 달과 같다'와 같이 중의적 의미로 해석된다. ③ 화자의 어조는 시종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로, 이를 통해 삶의 비애와 한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하루 일을 마치고 강물에 삽을 씻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노동자인 화자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15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것'은 시적 허용이다. ⓑ는 문법상 '파란'이라고 해야 하지만, '파아란'이라는 시적 허용을 통해서 바람의 느낌을 강조하며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6 〈보기〉의 '구리 거울'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화자는 구리 거울을 통해 자신의 부끄러운 삶에 대한 참회를 하고 있다. 이는 (가)의 ㉡과 그 역할이 유사하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보기〉의 '구리 거울'이 자아 성찰의 기능을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 ㉢, ㉣, ㉤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Plus 〈보기〉 참회록_윤동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반성적
주제	자기 성찰을 통한 참회와 현실 극복 의지
해제	치욕스러운 역사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를 참회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함.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82~085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② 05 ① 06 ② 07 ② 08 ②
09 ② 10 ② 11 ⑤ 12 ③ 13 ④

▶ (다) 길_윤동주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주제	참된 자아와 역사 회복에 대한 의지
해제	잃어버린 자아의 참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를 차분한 어조로 표현함.

01 (가)~(다)는 작가가 자신의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서정 갈래이다.

오답 해설 ① 극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③ 서사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④ 서사 갈래와 극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⑤ 교술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02 화자는 '그 사나이'(화자 자신)가 가엾어진다고 하며 연민의 태도, 즉 딱하게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시적 대상인 '사나이'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②, ③ 화자는 '사나이'와 일체가 되려는 마음이나 대결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화자는 마지막에 대상인 '사나이'와의 화해에 이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03 (가)의 '우물'은 화자의 정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화자는 우물 속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파아란'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시적 허용에 해당한다. ② 종결 어미 '-ㅂ니다'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파아란 바람이 불고'는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⑤ 화자는 우물을 들여다보고 돌아가기를 거듭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04 (가)의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에서 화자는 과거 순수했던 자아를 발견하고 있고, (다)의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에서 화자는 이상적인 자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다) 모두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아를 상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열거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다)에는 자연의 모습이 제시되지 않았다. ③ (가)와 (다) 모두 '-ㅂ니다'로 끝나는 구어체를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가)의 '우물', (다)의 '하늘'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이다. ⑤ (가)와 (다)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면을 성찰하고 있다.

05 ㉠은 화자가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의 모습을 '사나이'로 표현하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다. ③ 화자는 자신에 대해 연민을 느끼며 다시 우물로 돌아가고 있다. ④ 화자는 하루 일을 마치고 삽을 씻고 있다. 따라서 ㉣은 노동자로서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오염된 '썩은' 자연을 의미한다.

06 (가)에서 '우물'은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우물에 비친 '사나이'의 모습으로 객관화하여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이다.

오답 해설 ㄴ, ㄷ. 우물은 존재의 자정 작용, 비극적 시대 모습과 거리가 멀다.

07 (가)에서 화자는 미움, 가엾음, 그리움 등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물'이라는 시어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다양한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우물'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즉, '우물'은 성찰의 매개체이다. ③ 화자는 미움과 연민, 그리움의 정서를 반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사나이'에 대한 미움, 연민, 그리움 등 화자의 정서의 변화에 따라 화자는 우물로 와 들여다보기도 하고 우물을 떠나기도 하는 등 구체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⑤ 일상어를 사용하여 사나이의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시상을 자연스럽게 전개하고 있다.

08 '푸른 종소리'는 종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푸르다는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 드러난 구절이다. '파아란 바람'은 촉각의 시각화가 일어난 구절로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④, ⑤ 시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③ 추상적 개념인 '슬픔'을 '퍼다 버'린다고 구체적으로 형상화 하였다.

Plus 〈보기〉 외인촌_김광균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감각적, 회화적

주제	도시인이 느끼는 고독과 우수
해제	이국적인 외인촌의 어둠과 공허한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현대 도시인이 느끼는 고독과 우수를 형상화함.

▸ (나) 선제리 아낙네들_고은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감각적
주제	고단하지만 정겹게 살아가는 민중의 삶
해제	선제리 아낙네들이 밤에 장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통해 그들의 고단한 삶과 정겨운 마음을 표현함.

▸ (다) 그 나무_김명인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관조적
주제	늦된 그 나무를 통한 깨달음에 대한 소망
해제	늦되고 병든 나무를 바라보며 느끼는 연민과 기대감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도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함.

09 (가)에서 '그 사나이'(화자)가 가엾어진다고 말하고 있고, (나)에서는 배고픈 '아낙네들'을 딱하게 여기며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는 '늦된 나무'를 안쓰러워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10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작가, 독자, 작품이 쓰인 당시 현실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외재적 방법, 화자나 표현법 등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내재적 방법이 있다. ②는 내재적 방법으로 감상한 것이며 나머지는 외재적 방법에 해당한다.

11 (가)의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를 미워하고 가엾어하는 등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다)의 화자는 늦된 나무의 늦은 성장을 안쓰럽게 여기고 끝내 꽃을 피울 가능성을 응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대상을 미워하고 있지만, (다)의 화자는 대상을 멸시하지 않는다. ② (가)의 화자는 대상을 동경하지는 않으며, (다)의 화자는 대상을 비웃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③ (가)의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으며, (다)의 화자는 늦된 나무를 경멸하고 있지 않다. ④ (가)의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다)의 화자는 늦된 나무에 대한 경외를 보이고 있지 않다.

12 (가)에는 식민지 현실에서 안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화자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화자는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해 가엾다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그 '사나이'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다. 즉 결코 버릴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이기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일 뿐 이를 통해 자신을 합리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사나이'는 화자이자 작가의 내면세계로 볼 수 있다. (가)의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를 객관화하여 관찰함으로써 화자의 내면이 '사나이'와 동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우물 속 '사나이'가 미워진 것은 일제 강점기에 어떤 적극적 행동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자괴감 때문이다. ④ 그래도 다시 한번 바라본 '사나이'의 모습에서 화자는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발견할 뿐이다. 따라서 다시 그 무기력한 '사나이'가 미워진다. ⑤ 돌아가다 그 '사나이'가 그리워지는데, 그 '사나이'는 현실이 아닌 과거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추억의 '사나이'이다.

13 6연에서 화자는 과거의 자아를 발견하고 다시 그런 자아를 갖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화자의 존재 탐구가 끝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는 화자의 행위가 우물이라는 공간에 화자 자신의 내적 모습을 투영해 보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② 2연에서 우물에 비친 자연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세계를 상징한다. ③ 3~5연에 나타나 있는 '미워져 돌아갑니다 → 가엾어집니다 → 미워져 돌아갑니다 → 그리워집니다'라는 심경의 변화는 자아 성찰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추억처럼'이란 말은 동경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6연에서 화자는 우물에서 비친 모습에서 추억과도 같은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86~087쪽

01 화자는 식민지 현실에 안주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미움'을 느끼다가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가엾음'을 느낀다. **02** (1) 우물 (2) '구리 거울'과 '우물'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이다. **03**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은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04** 화자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01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미움과 부끄러움, 연민 등을 느끼고 있다.

02 '구리 거울'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이 글의 '우물'과 그 역할이 유사하다.

03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04 '자화상'은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라는 뜻으로, 이 글의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성찰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자화상'이라고 지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88~08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3 우물 속에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드러나 있다.

05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의 모습으로 현실의 초라한 자아를 의미한다.

07 화자는 '사나이'에 대한 감정 변화를 드러내어 자신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14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으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모습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18 이 글에 반어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20 이 글에 영탄적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4) 현대 소설의 빛깔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92~099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⑤	05 ⑤	06 ⑤	07 ②	08 ④
09 ②	10 ④	11 ⑤	12 ③	13 ②	14 ④	15 ④	16 ④
17 ④	18 ①	19 ①	20 ⑤	21 ⑤	22 ①		

01 서사 갈래는 서술자가 사건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사건을 보여 주기도 한다.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만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문학의 갈래는 극 갈래이다.

오답 해설 ① 서사 갈래는 인간의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적으로 형상화한다. ② 서사 갈래는 허구적 사건을 통해 삶의 진실을 전달한다. ④ 인물, 사건, 배경이 서사 갈래의 내용상 구성 요소이며, 이 요소를 통해 작가의 주제 의식을 전하고 있다. ⑤ 서사 갈래는 어떤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시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Plus 〈참고〉 서술자의 위치

1인칭 시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직접 등장하여 사건을 서술한다.
3인칭 시점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과 사건에 대해 서술한다.

02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은 현재 시제로 서술을 종결하여 사건을 현장감 있게 전하고 있다. ③ '필름 같다고나 할까.', '발견하지 못했는데, 뭐지?', '새의 펼친 날개인가?' 등에서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 ④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속에서 자신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나는 지(G)–그리핀의 음악을 듣는 기분에 대해 '흰 파도의 영상을 빠르게 돌린 필름 같다고'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03 '나'는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낙서를 보고 의문을 가졌다. 즉, 이사 오자마자 희미한 낙서의 얼룩을 발견했던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이사를 오고 전학을 한 뒤 독고태수를 만나 음악을 매개로 친해지게 되었다. ② '나'는 낙서를 발견하기 전부터 방의 전 주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낙서를 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③ '나'에게 지(G)–그리핀의 음악을 소개한 사람이 독고태수이다. ⑤ '나'는 방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낙서가 새의 날개이며, 거울에 비춰 보면 거울 앞에 선 사람의 날개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04 이 글에서 '나'는 낙서를 한 그가 거울 앞에서 서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상상하고 있다. 거울 속에 날개를 펼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우주로 날아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G)–그리핀의 음악을 들을 정도로 그에게 푹 빠져 있다. ② '나'가 지(G)–그리핀의 음악을 좋아하는 까닭은 그의 말이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만 같기 때문이다. ③ '나'는 방의 전 주인이 왜 불편한 위치에 낙서를 한 것인지 궁금해한다. ④ '나'는 그림이 거울에 비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희미하게 남은 그림의 윤곽을 따라 새의 날개를 다시 그린다. 그리고 전 주인이 새의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올라 가는 모습을 상상한다.

05 연우는 기존의 그림에 덧그려 자신만의 그리핀을 만들고 날아가는 상상을 한다.

오답 해설 ① 연우는 지금이 아닌 자신만의 '연우–그리핀'이 탄생하는 순간 날개를 펼치고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② 방의 전 주인이 그린 것은 그리핀이 아니라 새이다. ③ 연우는 기존의 그림을 똑같이 그리지 않고 날개를 더 크게 그리고 사자의 꼬리까지 덧붙여 그려 자신만의 그리핀을 완성하고자 한다. ④ 연우가 그리는 그리핀에 몸통을 그릴 필요는 없다. 몸통은 거울 앞에 선 연우가 대체하게 된다.

06 '강연우, 여기 있으면 네가 혹시 올까 했어.'라는 채영의 말은 다른 대화와 달리 큰따옴표 없이 서술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현재형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긴장감이 유발되지는 않는다. ② 이 글은 구어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내면 심리와 대화를 잘 드러내고 있지만, 인물 사이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으며, 구어체가 갈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③ 이 글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위치하고 있다. ④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학교 운동장으로, 학교 운동장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07 연우는 채영이 학교를 결석한 동안 채영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이후 만났을 때에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함께 비행기를 타고 싶어 하는 것은 채영이 아니라, 연우이다. ③ 연우와 채영은 서로에게 호감을 지니고 있고, 서로 이를 자각하지 못한 상태는 아니다. ④ 연우가 채영을 먼저 찾아간 것은 아니고 방과 후에 학교 주변을 배회하다 우연히 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것이다. ⑤ 채영이 학교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던 것은 거기에 있으면 연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

08 ⓐ에는 오랜만에 만난 채영에 대한 반가움과, 채영의 웃는 모습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심리가 담겨 있다.

오답 해설 ① 연우는 채영이 웃는 모습에 숨 막힐 듯 기쁜 마음을 느끼고 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 ② 연우가 오랜만에 채영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에 담긴 주된 심정은 아니다. ③ 연우가 연락이 없었던 채영에게 서운함을 느꼈다는 근거는 없다. ⑤ 채영이 예상보다 밝은 모습이라 기뻤다기보다 지금 채영을 보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을 느낀 것이다.

09 채영이 자기 키에 맞지 않는 농구 골대에 골을 넣으려고 여러 번 노력하는 모습은 채영의 의지적인 모습이 아니라 채영이 사회적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채영은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께 소리 지른 일을 창피하게 여겨 사흘 동안 결석하였다. ③ [중략 부분 줄거리]의 '연우는 채영을 좋아하게 되고 채영도 연우에 호감을 드러낸다.'를 통해 채영이 연우에게 호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채영은 비행기를 타고 세상의 끝, 가장 먼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 이는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⑤ 연우는 채영과 비행기를 타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가 채영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10 [A]에서와 같은 1인칭 시점을 〈보기〉와 같은 3인칭 시점으로 바꾸어도 인물의 심리를 드러낼 수 있지만, 작품 속 인물이 독자에게 직접 자신의 내면을 말할 때의 친밀감은 사라진다.

오답 해설 ① 현재 시제의 서술을 과거 시제로 바꾸었으나 사건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꾸어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③ 〈보기〉가 [A]보다 더 생동감 있는 진술이라 볼 수 없다. ⑤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하면 독자와의 거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다. 즉 1인칭 주인공 시점과 비교하여 가까워지지 않는다.

11 이 글은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청소년기에 느끼는 불안과 고민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연우의 속마음이 인용 부호 없이 서술되어 있다. ② 이 글은 순행적 구성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③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는 주인공이다. ④ 이 글은 문장의 길이를 길게 서술하여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12 채영이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어떤 어른이 될 것이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채영은 부모님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② 채영은 자신이 답을 찾기 전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현실에 부담을 느낀다. ④ 연우는 자신이 방목되고 있다고 여기며 언젠가 어른이 되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⑤ 연우는 어른이 되어야만 한다고 느끼는데 이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무엇을 해서 어른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13 채영은 학교에서 아버지가 선생님께 소리 지른 일에 대해 창피하게 여겼으나 채영이 아버지와 직접 싸운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채영은 아버지와의 일로 학교를 사흘간 결석한다. ③ 채영의 아버지는 상담실에서 선생님께 소리를 질렀고 이에 대해 채영은 창피하게 생각한다. ④ 채영은 야간 자율 학습에 불참해 학교에서 혼난 적이 있다. ⑤ 채영의 아버지는 상담실에서 선생님께 소리를 질렀고 이에 대해 채영은 창피하게 여겨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

14 채영은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서 시간이 멈춘 곳에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오답 해설 ① 채영은 연우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고 함께 세상의 끝에 가고자 한다. ② 채영이 버림받을까 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으로 여기는 곳이다. ③ 채영이, 엄마와 아빠가 싸워서 자신이 버려질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여기는 공간이다. ⑤ 채영에게 ㉡은 지금의 사회와 다르게 관습과 강요가 없는 곳이다.

15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 시간의 주인이 되어 남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성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른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②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른들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시간을 지키는 것'이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⑤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6 채영이 자주 꾸는 꿈은 버림받는 꿈이다. 연우와 채영이 세상의 끝에 있는 우주 정거장에 가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성을 찾고 싶은 소망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채영이 자주 꾸는 꿈이 어른이 되라는 강요를 받는 꿈은 아니다. 또한 이 글을 통해 작가가 사랑과 우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②, ③ 인물들이 우주 정거장에 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모두 불완전한 존재여서라고 볼 수 없다. ⑤ 이 글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자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다.

17 서술어를 생략하고 명사형으로 끝내 간결하게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통해 글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사건을 현재 시제로 서술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② 이 글은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푸른 기운이 감도는 검은 하늘 가득 하얀 구름이 깃털처럼 깔려 있다.'와 같이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은 노래를 삽입하여 서술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있다. ⑤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8 이 글에서 연우와 채영의 관계가 어색했던 부분이나,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부분은 없다.

오답 해설 ② 연우가 부르는 노래는 채영의 고민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③ 연우가 부르는 노래를 삽입하여, 서사의 단조로움이 깨지게 된다. ④ 연우는 고민이 많은 채영을 위해 노래를 부르며 함께 우주로 가자고 위로한다. ⑤ 연우와 채영이 노래를 통해 '우주로 가자'고 외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러 가겠다는 의미이다.

19 연우는 채영과 우주 정거장에 가기로 하는데 이것이 가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② 연우는 채영이 자신을 향해 웃는 것에 대해 자신만 볼 수 있는 웃음인 것 같아 기뻐한다. ③ 연우는 채영이 자신과 손을 잡고 걸어가며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는 것이 자신을 믿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④ 연우와 채영이 이야기하는 동안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되어 바람이 부는데 연우는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⑤ 평소 즐겨 듣던 노래가 떠올라 노래를 부른 연우 역시 채영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20 연우와 채영이 우주 정거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연우의 바람은 채영과 우주 정거장에 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채영과 우주 정거장에 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를 벗어나고자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은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기보다 우주 정거장에 가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을 찾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연우가 우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단지 채영과 단둘이 있기 위함만은 아니다.

21 삽입된 노래는 글의 주제에 부합하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성장 소설로 청소년이 어른이 되기 전에 겪는 고민과 방황을 다루고 있다. ②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이 사회나 타인의 기준에 맞춰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③ 독자들 역시 사회적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면 이 글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에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 ④ 사회에서 정한 기준이나 가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불안감은 대부분의 인간이 경험하는 것으로 이 글을 통해 인물들의 처지에 공감하거나 위로받을 수 있다.

22 인터넷으로 연재되는 소설에 댓글을 다는 것은 소설을 다 읽은 독자들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작가는 자신의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인터넷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것은 작품을 더 깊이 수용하는 방법이 된다. ④ 작가는 작품을 올리는 것 외에도 소설과 관련된 정보를 올려 독자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다. ⑤ 독자는 댓글을 통해 작가나 다른 독자와 소통할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00~105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①	05 ②	06 ④	07 ④	08 ⑤
09 ②	10 ⑤	11 ①	12 ②	13 ④	14 ④	15 ④	

01 이 글은 현재 시제로 서술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서사 갈래가 모두 현재형으로 사건을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서사 갈래는 인간의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달한다. ② 서사 갈래는 서술자의 위치, 즉 시점에 따라 내용 전달의 효과가 달라진다. ④ 서사 갈래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실을 전달한다. ⑤ 서사 갈래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그 이야기 속의 삶은 있음직한 것이다.

02 연우는 자신의 키보다 높은 위치에 그려진 날개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까치발을 들었다.

오답 해설 ① 연우는 독고태수를 통해 힙합을 접하게 되었다. ② 연우는 일어나서 지(G) – 그리핀의 음악을 듣는 시간을 좋아한다. ③ 연우는 희미하게 남은 낙서의 흔적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으나 거울이 비치면 날개를 단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⑤ 연우는 자신의 방 전 주인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며 자꾸 그의 그림자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03 연우는 자신의 생각을 대변하는 듯한 지(G)–그리핀의 음악을

듣고 벅차고 설레는 감정을 느낀다.

오답 해설 ① 지(G)–그리핀의 음악이 연우의 양심을 일깨우는 것은 아니다. ② 연우는 남자다움이라는 관습을 강요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지(G)–그리핀의 음악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담고 있다고 여긴다. ④ 연우가 지(G)–그리핀의 음악을 듣고 있지만 따로 가사를 적고 있지는 않다. ⑤ 연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드러내었는지 알 수 없다.

04 '연우–그리핀'의 몸통은 연우 자신이기 때문에 몸통을 그릴 필요는 없다.

오답 해설 ② 연우는 기존의 새의 날개가 아닌 자신만의 그리핀을 그려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날기를 소망하고 있다. ③ 연우는 처음에 낙서가 그리기 불편한 위치에 있어 의아했으나 곧 거울에 비치는 낙서를 보기 위한 위치임을 깨닫고 거울 앞에 서 보았다. ④ 연우는 자신의 방 전 주인도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⑤ 연우가 우주를 날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소망의 표현이다.

05 이 글에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또한 채영과 부모님 사이의 외적 갈등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독자는 인물의 상황이나 정서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 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인물의 심리가 직접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06 채영은 사회의 기준이나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지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채영이 농구를 하고 싶은데 집안에 반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② 채영이 세상의 끝에 있는 우주 정거장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어린아이로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③ 채영은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 아니다. ⑤ 채영이 부모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07 연우의 어머니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사람이다. 연우는 그래서 자신이 방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답 해설 ① 채영은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② 채영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③ 연우는 언젠가 어른이 되어야만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⑤ 채영과 연우가 하는 고민은 모두 자아가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08 채영과 연우가 가고자 하는 우주 정거장이 계속 행복한 순간에만 머무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세상의 끝에 있는 우주 정거장은 채영이 자신을 믿어 주는 연우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이다. ② 세상의 끝에 있는 우주 정거장은 채영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다. ③ 세상의 끝에 있는 우주 정거장은 실재하는 곳은 아니다. ④ 채영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요가 없는 곳이다.

09 연우가 자신의 고유성을 이미 찾았다고 볼 수 없다. 연우 역시 자신만의 날개를 달고 어른이 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연우는 채영이 가출을 해도 채영이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우는 채영에게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③ 연우는 자신이 원하는 어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 중이다. ④ 채영이 가족에게 버림받을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은 '낯선 우주에 던져진 고독한 소년'의 마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채영은 학교나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10 이 글에 비현실적인 요소는 없다. 연우가 우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상상이자 소망일 뿐이다.

오답 해설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② 이 글은 부분적으로 문장을 명사형으로 종결하여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③ 이 글은 노래를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④ 연우와 채영이 우주로 가고자 할 때 밤하늘에 부는 바람은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과 관련지어 서술되고 있다.

11 이 글에 삽입된 노래는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해설 ② 연우가 채영과 함께 가고자 하는 곳은 현실에 실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③ 연우와 채영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 ④ 연우가 채영이 앞에서 부르는 노래는 자작곡이 아니다. ⑤ 연우가 부르는 노래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래이지, 세상에 나갈 의지를 다지는 노래가 아니다.

12 연우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채영과 달리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답 해설 ① 채영은 현재 사회와 타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 ③ 연우와 채영이 함께 가고 싶은 '세상의 끝'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④ 채영은 연우가 자신을 믿어 준다고 여겨 연우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⑤ 채영이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아직 모르는데 누군가가 정해 놓은 대로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13 연우 역시 사회의 관습에서 무엇다워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연우는 사회의 관습에 익숙한 척하며 살고 있지만 내면에 고민이 있는 상태이다. ② 노랫말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여기는 것으로 볼 때 연우는 남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연우는 사회의 기준에 따라 살기보다 자신만의 원칙을 찾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⑤ 연우는 강한 척을 하는 것보다 강하지 않아도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4 연우는 지(G)–그리핀의 음악을 듣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오답 해설 ① 연우가 지(G)–그리핀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채영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연우가 지(G)–그리핀의 음악을 통해 남자다울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은 아니다. ③ 연우가 지(G)–그리핀의 음악을 들을 때 가슴 벅찬 이유는 자신의 고민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지, 고민을 잊을 수 있어서가 아니다. ⑤ 연우가 지(G)–그리핀의 음악을 들을 때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든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15 이 글이 성장 소설인 것은 맞지만, 독자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일 수 있다.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민을 다루는 글이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공감만 받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일반적인 소설과 달리 인터넷으로 연재되어 독자의 반응을 비교적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독자는 댓글을 통해 작가와 소통하기 때문에 자신도 작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③ 독자는 댓글을 통해 다른 독자와 소통하며 작품에 대한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⑤ 작가는 작품을 연재하는 과정에서 독자들과 소통하며 인물의 심리나 상황에 대해 독자들의 반응을 참고하여 집필할 수도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06~107쪽

01 전 주인이 그린 새와 달리 연우의 그리핀은 연우만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연우의 소망을 의미한다. 02 삽입된 노래는 우주로 가서 기존의 사회적 관습과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유성을 찾고 싶은 인물의 심리를 대변한다. 03 연우는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사회적 시선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G)-그리핀의 노래를 들으면 그런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아 위로를 받는다. 04 ⓐ: 버림받는 ⓑ: 자신의 고유성(정체성)

01 전 주인이 그린 것은 새의 날개였지만, 연우는 새의 날개를 더 크게 그리고 사자의 꼬리를 붙여 자신만의 그리핀을 그리고자 한다. 이를 거울에 비춰 보며 '연우-그리핀'이 되어 날고자 하는 것은 연우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소망이 있음을 나타낸다.

02 연우가 가고자 하는 우주는 기존의 사회적 관습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고유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연우가 부르는 노래는 이러한 곳에 가고 싶은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03 지(G)-그리핀의 노래는 연우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 연우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

04 채영이 느끼는 불안감은 타인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느끼는 낯선 우주에 던져진 듯한 고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사회나 타인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는 연우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너인 채로 괜찮아.'라는 말을 해 주고 싶었다고 볼 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08~10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2 성장 소설은 인물이 내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그리는 소설이다. 반드시 일대기를 담을 필요는 없다.

03 이 글은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구조이다.

11 연우는 이사 오고 나서 방의 전 주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12 채영이 민기훈과 좋아하던 사이였지만 연우가 민기훈과 닮아서 연우를 좋아했다는 근거는 드러나지 않는다.

13 채영이 사흘 동안 결석한 뒤 학교 운동장에 있었던 것은 '나'와 만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지만, '나'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5 채영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와 가정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3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소통

(1) 함께 만족하는 협상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14~117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④ 05 ③ 06 ③ 07 ⑤ 08 ⑤
09 ② 10 ③ 11 ④

01 연극 동아리 대표는 학교 강당 공사 때문에 연극 공연과 연습을 진행할 장소를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다빛아파트 주민 문화 센터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이 대화는 이익이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할 만한 타협이나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협상은 가치관이나 재능을 알리는 목적과는 무관하다. ②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발화이기는 하나, 문제 해결은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③ 전문적인 정보 교환과는 관련이 없다. ⑤ 삶이나 생각을 탐문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관련이 없다.

02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관점이나 이익을 관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설득을 통해 두 주체 모두 실현 가능한 타협안을 찾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상대방이 자신의 제안 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협상은 서로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실현 가능한 타협안을 찾는 담화이다. 이러한 대화를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말하기가 필요하다. ③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다. ⑤ 말이 주는 파급력을 잊지 않음으로써 책임감 있게 말하고 거짓이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03 협상의 절차 중 '시작하기'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며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③ '해결하기' 단계에서 가져야 할 태도이다. ②, ④ '조정하기' 단계에서 가져야 할 태도이다.

04 연극반 동아리는 매년 학교 강당에서 공연을 해 왔는데, 올해는 강당 지붕 공사를 하게 되어 다음 달 예정된 정기 공연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다빛아파트 주민 문화 센터는 학교와 인접하고, 소극장 무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연극 공연을 하는 데 최적의 장소라 생각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다빛아파트 주민 문화 센터 소극장에서 연극을 진행하고자 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풀빛고등학교 연극은 매년 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② 다빛아파트 주민을 위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풀빛고등학교 학생들 절반가량이 다빛아파트에 사는 것은 소극장을 빌려 주는 것을 꺼려하는 주민 대표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논거이다. ⑤ 주민 문화 센터 소극장이 연극 공연을 하는 데 최적의 장소인 것이 협상의 배경은 아니다.

05 협상은 이익과 입장이 충돌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모여 서로의 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의사 결정의 과정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상대를 설득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기도 한다. 풀빛고등학교 연극 동아리 대표는 다빛아파트 주민 센터 소극장을 빌리는 것

을 최소한의 요구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다빛아파트 주민 대표가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협상 참여자는 풀빛고등학교 연극 동아리 대표와 다빛아파트 주민 대표이다. ② 주민 대표는 아파트 내 시설을 외부에 대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외부에 대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④ 주민 대표는 외부 기관에 대여한 적이 없다는 점, 비용 발생 및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들어 소극장의 외부 대여 여부를 보류하고 있다. ⑤ 동아리 대표는 학교 학생의 절반가량이 다빛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 문화 센터 소극장 대관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06 주민 대표는 추가적인 관리 비용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이유로 들어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화 센터 노인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는 연극 공연에 동아리 학생들이 도움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다빛아파트 주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쪽은 동아리 대표이다. ② 아파트 주민이 감수해야 할 불편 사항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다른 장소를 빌릴 것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④ 아파트 내 시설을 외부에 대여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관리 비용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장소 대여 비용을 지불할 것은 제안하지는 않았다. ⑤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학업에 전념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7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실현 가능한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 상대방에게 최대한 양보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상대방의 처지와 요구 사항을 예상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② 어조나 성량, 속도와 같은 준언어적 표현과 몸짓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 ③ 협상 참여자는 협상 목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만, 구체적 국면에서는 유연성 있는 자세와 전략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협상의 진행에 따라 원안을 적절히 수정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④ 협상의 목적,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에게 말할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08 동아리 대표는 공연 후 배우들이 분장도 지우고 소품들도 정리해야 하므로 문화 센터 안팎을 모두 청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주민 대표는 동아리 대표에게 무대 정리와 무대 주변 청소만을 부탁하고 있다. 객석 청소와 문화 센터 주변 청소는 주민 측이 감당하기로 조정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④ 동아리 측에서는 공연 일주일 전부터 매일 오후 4~9시까지 연습하기를 원했으나, 주민 측이 난색을 표하자 4~7시로 연습 시간을 조정하되, 공연 전날은 9시까지 연습하기로 조정하였다. ② 주민 측의 소음과 쓰레기 발생에 관한 방안으로 동아리 측은 안내 요원을 배치하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③ 주민 측은 공연이 끝나고 동아리 측이 소극장 안팎을 청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09 동아리 대표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에 공연을 하되, 직장 생활을 하는 주민들을 고려하여 토요일 오후 3시에 추가 공연할 것을 제안한 것이지, 토요일에 3회 공연에 대해 합의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공연은 다음 달 첫째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1시, 토요일은 오후 3시 사흘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③ 동아리 학생들 2~3명씩 당번을 정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노인 학교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에 도움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④ 노인 학교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은 연기 기초 훈련을 돕기로 하였다. ⑤ 다빛아파트 측은 공연 시작 일주일 전부터 동아리 학생들이 소극장에서 4시부터 7시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공연 전날은 9시까지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

10 주민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겨울 방학 때 단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제안에 주민 대표는 정기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억누르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주민 대표는 소극장을 빌려주게 된 이유 중 주민들이 연극 공연을 관람하기를 바랐으나 직장 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노인 학교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아리 대표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④ 주민 대표는 동아리 대표의 말을 듣고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상대측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학생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고 있다. ⑤ 주민 대표는 협상을 통해 주민 측이 얻게 된 이익을 나열하며 상호 이익이 된 협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1 [A]에서 주민 대표가 동아리 대표의 대답을 듣고 '연기 기초 훈련'이 무엇인지 묻자, 동아리 대표가 연기 기초 훈련의 개념과 세부적인 훈련 내용을 설명해 줌으로써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점검 항목 중 '상대방의 이해가 부족할 경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는가?'에 해당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18~121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③ 05 ② 06 ④ 07 ⑤ 08 ①
09 ② 10 ③ 11 ②

01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하여 입장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조정하기 단계이다.

오답 해설 ① 시작하기 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며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③ 조정하기 단계에서는 문제를 확인하여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합의를 유도한다. ④ 협상하기의 모든 단계에서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를 고려하여 의사소통 과정의 각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⑤ 해결하기 단계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타협안과 조정을 통해 서로에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02 협상은 각자의 이익과 주장이 다른 경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서로의 요구와 양보가 가능한 지점을 찾아 합의하는 것이다. 이 글은 동아리 측과 주민 측이 소극장 대여를 두고 타협이나 대안을 찾기 위한 담화이다.

오답 해설 ① 어렵고 전문적인 정보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상은 무관하다. ②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상대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협상의 본질이 아니다. ③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⑤ 성격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담화는 협상과 거리가 멀다.

03 주민 대표는 동아리 대표에게 학교 강당이 아닌 자신들의 주민 센터 소극장에서 연극을 하려는 이유를 묻고 있을 뿐, 동아리 대표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동아리 대표는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있다. ② 동아리 대표는 학교 강당의 지붕 공사 때문에 공연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다빛아파트 문화 센터 소극장이 여러 면에서 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주민 대표는 '아파트 내 시설을 외부에 대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⑤ 주민 대표의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에서 상대측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상대측 요구 사항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04 주민 측이 소극장을 대여하는 대가로 얻는 이익은 주민들이 동

아리에서 공연하는 연극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과 노인 학교의 연극 프로그램 활동에서 연극 동아리 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주민 대표는 관내 시설을 외부에 대여하면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② 동아리 대표는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상연한다고 했을 뿐,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관람 대상으로 하는 연극을 상연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④ 동아리 대표는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했지, 연극의 주제가 다빛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파트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⑤ 주민 대표는 노인 학교의 연극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여 연극 동아리 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제안하고 있다.

05 [A]에서 동아리 대표와 주민 대표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예의 바르고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의사소통에서는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며,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책임감 있는 듣기와 말하기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을 삼가는 것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입장 차이를 좁히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양보하는 지점을 찾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06 주민 대표는 동아리 측에서 소음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 안내 요원 배치와 캠페인 등의 예방책을 제시한 내용을 만족스러워한다. 하지만 또 다른 요구 사항을 추가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주민 대표는 노인 학교 연극 공연 기획의 어려움을 동아리 측에 전달하고 동아리 측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② 동아리 대표는 아파트 주민들도 연극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이익을 들어 소극장 대관을 부탁하고 있다. ③ 주민 대표는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자신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다. ⑤ 주민 대표는 관리 비용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이유로 들어 동아리 측에 이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어야 소극장을 빌려 줄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07 상대방과 자신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협상 상대방을 교체하는 것은 올바른 협상의 전략이라 볼 수 없으며 이 글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협상은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상호 검토해 입장 차를 줄여 나가는 담화이다.

오답 해설 ① 동아리 대표는 연기 기초 훈련의 개념과 세부적인 훈련 내용을 설명해 줌으로써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동아리 대표와 주민 대표 모두 상대방과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여 요구 사항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동아리 대표는 평일 저녁 공연의 어려움을 토대로 평일 저녁 공연을 하기 어려움을, 주민 대표는 연극 활동을 위한 정기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함으로써 동아리 대표의 단기간 도움을 거절하고 있다. ④ 동아리 대표는 학생들의 늦은 귀가 시간을 이유로 주민 측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토요일에 한 번 공연하는 대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8 ㉠에서 동아리 대표는 주민들이 꾸준히 연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주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주민 대표의 발언을 듣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찾아가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남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상대방의 발화에 동조하고 상대방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③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제시하지는 않다.

09 주민 대표는 노인 학교 연극 활동 시기에 대해 매주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 있으나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오답 해설 ① 동아리 대표는 직장 생활을 하는 다빛아파트 주민들을 고려하여, 공연 일정을 평일 2회에서 토요일 포함 3회로 추가하기로 조정했다. ③ 주민 대표는 쓰레기 발생으로 주민 민원이 나올 수 있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동아리 측에 예방책을 요구하였다. ④ 동아리 대표는 공연 연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연 전날만이라도 시간을 늘려 줄 것을 제안하고, 이에 주민 대표는 공연 전날에는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주민 대표의 노인 학교의 연극 활동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동아리 대표는 상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기 기초 훈련의 구체적인 예를 듦으로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10 주민 대표는 공연 후 소극장 안팎을 청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동아리 대표는 공연 후 배우들이 분장을 지우고 소품들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극장 안팎을 모두 청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주민 대표는 학생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무대 정리와 무대 주변 청소만 해 주기를 제안하였으며 동아리 측은 이를 수용하였다.

오답 해설 ① (가)에 대해 동아리 측은 공연 일주일 전부터 매일 9시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주민 측은 주민 문화 센터 관리 직원의 퇴근 시간을 근거로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② (나)에 대해 동아리 측은 소음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민원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연장 주변에 안내 요원을 배치하고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주민 측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④ (다)에 대해 주민 측은 직장 생활을 하는 주민들을 위해 저녁 시간에 공연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동아리 측은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을 추가하는 것으로 요청을 수용하였다. ⑤ (라)에 대해 주민 측은 노인 학교 어르신들이 꾸준히 연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도움 받기를 요청하였고, 동아리 측은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하여 도움을 주기로 함으로써 제안을 수용하였다.

11 동아리 측과 주민 측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각각 대안을 제시하며 양보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아 올바른 협상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협상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아리 측만 구체적이고 유리한 협상을 이끌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주민 대표도 협상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양보한 실패한 협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주민 대표가 동아리 대표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하고 수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⑤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협의안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올바른 협상이라 할 수 없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22~123쪽

0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은 바로 '협상'이다. 협상이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협상은 시작하기 단계, 조정하기 단계, 해결하기 단계의 세 가지 절차로 구성된다. **02** ㉠: 직장 생활을 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을 추가하기로 함, ㉡: 동아리 학생 2~3명씩 당번을 정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하여 도움을 주기로 함. **03** ㉠, 주민 대표가 동아리 대표의 대답을 듣고 '연기 기초 훈련'이 무엇인지 묻자, 동아리 대표가 연기 기초 훈련의 개념과 세부적인 훈련 내용을 설명해 줌으로써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있다.

0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화는 협상으로 협상은 세 가지 절차로 구성된다.

02 양측이 공연 일정 및 시간, 주민 연극 활동 지원 문제에 대해 조정한 내용이다.

03 협상과 같은 사회적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24~12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4 시작하기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06 해결하기 단계에서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합의해야 한다.

10 협상은 타협이 가능한 협상 목표를 정하고, 한 가지의 대안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동아리 대표와 주민 대표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예의 바르고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18 협상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의사소통이다. 양보와 설득을 통해 양측이 목적을 달성하였다.

(2) 작문 관습을 고려한 글쓰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28~133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④	05 ④	06 ②	07 ⑤	08 ④
09 ③	10 ⑤	11 ③	12 ①	13 ③	14 ⑤	15 ⑤	16 ④
17 ③	18 ⑤	19 ③	20 ⑤	21 ④	22 ⑤		

01 기행문은 여정, 견문, 감상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수필의 한 갈래이다.

오답 해설 ① 기행문을 현재형으로 서술하면 생동감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반드시 현재형으로 서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기행문은 글쓴이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때문에 허구적 대리인인 서술자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③ 기행문의 종결 어미가 반복적으로 쓰일 수는 있으나 특별히 리듬감을 형성하기 위함은 아니다. ④ 여행지에서 느낀 점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과장을 할 필요는 없다.

02 이 글에 원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반어법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그리움과 희망 역시 강에서 나고 자랄 테다.'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한 표현이다. ② 2문단에서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③ '-ㄴ다'의 현재형 문장을 사용하여 사건을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풀과 나무, 강과 길 등의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03 5문단에서 삼례는 만경강 상류에 위치한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글쓴이는 봄이 되면 세상 모든 푸른 것들의 고향인 강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③ 글쓴이의 목적지는 '삼례 문화 예술촌'이다. ④ 삼례 문화 예술촌은 여섯 곳의 문화 예술 공간과 삼례역이 이전한 자리에 있는 막사발 미술관까지 합해 총 일곱 곳이다. ⑤ 5문단에서 삼례역이 일제 강점기에 양곡을 나르던 거점이었음이 드러난다.

04 '삼례 문화 예술촌'은 원형 보전에 역점을 두어 외관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나 내부는 대부분 개조하여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오답 해설 ① '삼례 문화 예술촌'은 오래된 목재 창고를 몇 동 모아 둔 곳으로 일반적인 예술촌의 모습과 다르다고 하였다. ② '삼례 문화 예술촌'의 벽에는 아직도 '협동 생산 공동 판매', '삼례 ○○ 창고' 같은 글씨가 남아 있다. ③ '삼례 문화 예술촌'은 일제 강점기 때 양곡 수탈을 겪은 역사가 담긴 양곡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곳이다. ⑤ '삼례 문화 예술촌'은 1970~80년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재 창고 형태의 외관을 갖춘 문화 예술 공간이다.

05 글쓴이가 삼례에 간 이유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삼례 문화 예술촌'에 방문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가 그리운 대상을 만나기 위해 삼례에 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글쓴이가 만경강에 대한 추억이 있다는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③ 만경강 부근이 글쓴이의 고향은 아니다. ⑤ 글쓴이는 전부터 가 보려고 벼르던 '삼례 문화 예술촌'에 가려고 여행을 한 것이지 우연히 삼례에 간 것이 아니다.

06 이 글은 작문 관습에 따라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생생하고 솔직하게 쓴 작품이다.

오답 해설 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기행문에서도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관적 감흥을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④ 이 글은 기행문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⑤ 글쓴이는 자신의 정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었으나 과장되게 서술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07 기행문은 경험한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허구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글을 쓰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여행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글쓴이가 염두에 두는 예상 독자로 적절하다. ② 역사와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글쓴이가 염두에 두는 예상 독자로 적절하다. ③ 기행문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글쓴이가 염두에 두는 예상 독자로 적절하다. ④ 삼례 또는 삼례 문화 예술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글쓴이가 염두에 두는 예상 독자로 적절하다.

08 ㉡의 '보전'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을 뜻한다.

09 현재형 서술을 통해 글의 생동감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긴장감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기행문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였다. ② 이 글은 글쓴이의 여정과 그곳에서의 견문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④ '순식간에 100년을 이동한 느낌이랄까?' 등에서 의문형 표현으로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동과 동 사이를 나비처럼 옮겨 다니며' 등에서 비유적 표현이 드러난다.

10 '미디어 아트 미술관'은 벽과 천장의 원형을 그대로 살린 채 내부 디자인을 하여 바람이 잘 통하고 여름에는 서늘하다고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이는 견문이지 글쓴이의 감상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인터랙티브 아트'를 통해 스스로 물고기가 되어 천으로 된 물속을 유영하는 체험을 한 것이 신기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목재 창고의 모습인 외관과 대비되는 '미디어 아트 미술관'의 내부를 보고 아날로그의 세계에서 디지털의 세계로 이동한 느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목재 창고의 모습인 외관과 대비되는 '미디어 아트 미술관'의 내부를 보고 순식간에 100년을 이동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다. ④ '미디어 아트 미술관'의 벽을 구성한 통나무들의 배열 자체가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11 교과서 삽화를 그렸던 김태형 작가 코너에서는 오래 잊고 있었던 '철수와 영희'를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목궤선'을 국가유산급의 전시 작품으로 본 것이지 실제로 '목궤선'이 국가유산인 것은 아니다. ② 책 공방에서는 요즘은 보기 어려워진 각종 인쇄 장비들을 볼 수 있었다. ④ 김환기 작가는 북 디자이너가 별도로 없던 시절에 윤동주 시집의 표지를 디자인한 화가이지 북 디자이너는 아니다. ⑤ '전라도 여자' 기획전은 상설 전시가 아니고, 글쓴이가 이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12 ㉠는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활유법을 사용하여 나무 향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훨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에서도 활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② 은유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대유법을 사용하여 빼앗긴 국토를 표현하고 있다. ④ 직유법을 사용하여 국화꽃을 빗대고 있다. ⑤ 영탄법과 역설법을 사용하여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Plus 〈개념〉 의인법과 활유법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기법
활유법	생명체가 아닌 것을 생명체처럼 표현하는 기법

13 '미디어 아트 미술관' 내부에 '첨단 예술'을 전시하고 있으나, 벽과 천장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채 내부 디자인을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책 공방에는 요즘 보기 어려운 각종 인쇄 장비나 목궤선이 전시되어 있다. ② 문화 카페의 통유리로 내다보이는 풍경은 눈을 떼지 못할 만큼 매혹적이었다. ④ 글쓴이는 문화 예술촌 곳곳을 관람하며 색다른 음식을 이것저것 먹어 보는 듯한 재미를 느꼈다. ⑤ 글쓴이는 목공소의 나무 향에 오래 그리워하던 고향 소식을 들은 듯 반가움을 느꼈다.

14 기행문으로서 여정, 견문, 감상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생성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은 작문 관습에 대한 점검 사항이다.

오답 해설 ①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 허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②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 느낀 점을 과장해서 쓴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③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 느낀 점을 거짓 없이 진실하게 썼는지 점검해야 한다. ④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15 '디자인 박물관'은 젊은 방문객들이 무척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전해 들었다.

오답 해설 ① '미디어 아트 미술관'은 통나무 벽으로 지어져 바람이 잘 통하고 여름에 서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② 요즘은 보기 어려운 '목궤선'을 보며 국가유산급의 전시 작품이라고 생각하였다. ③ '전라도 여자' 기획전에서 전라도 여인의 삶을 다룬 작품들을 보았는데 그중 프랑스어로 번역된 『춘향전』도 있었다. ④ 목공소는 내부가 깔끔하고 조용해서 목공소라기보다 문화 공간으로서의 품격이 느껴졌다.

16 기행문에서 감상을 드러낼 때는 글쓴이의 주관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기행문은 일반적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한다. ② 견문에 대한 감상을 쓸 때는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써야 한다. ③ 기행문은 대체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간이 흘러가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경우가 많다. ⑤ 비유와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해 글쓴이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7 봄이 깊어 가는 날에 푸른 강에 가고 싶은 글쓴이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글쓴이가 경험한 사실 외에도 역사적 사실, 들은 이야기, 글쓴이의 주관적인 감흥 등이 서술되어 있다. ② 이 글에 글쓴이와 동행한 이의 말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글쓴이는 만경강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인상을 주관적으로 표현하였다. 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 율치의 밤샘에서부터 새만금을 지나 바다와 만나는 것은 만경강으로 글쓴이의 여정이 아니다.

18 이 글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삼례 문화 예술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삼례 문화 예술촌에 '첨단 예술'만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삼례 문화 예술촌은 역사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이 글은 삼례 문화 예술촌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글이 아니다. ③ 삼례 문화 예술촌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곳이다. ④ 삼례 문화 예술촌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언급은 없다.

19 글쓴이는 여름이 아닌, 어느 봄날에 푸른 것들의 고향인 만경강을 찾아가려고 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삼례 문화 예술촌을 꼭 한번 가 보리라 벼르고 있었다. ② 비옥한 평야 지대를 흐르는 만경강 상류 부근에 삼례라는 마을이 있다. ④ 삼례 문화 예술촌은 다른 예술촌의 모습과 다르게 목재 창고 몇 동이 모여 있는 외관이었다. ⑤ 삼례 문화 예술촌 마당의 조형물과 근처의 삼례 성당은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경험하게 하였다.

20 삼례 문화 예술촌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지, 과거의 것이 현대적인 것으로 교체된 곳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밖으로 나와 삼례 성당을 보고 창고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② 삼례 문화 예술촌 마당의 조형물은 오래된 풍경에 스며들어 있다고 느낀다. ③ 삼례 문화 예술촌은 디지털 세상 속에 아날로그적인 문화를 이어 가는 곳이라고 느낀다. ④ 글쓴이는 현대 문화 예술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 외부의 아날로그적 공간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어져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21 글쓴이가 글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작문 관습을 따르지 않기로 계획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글을 쓰기 전에 예상 독자를 생각하고 그에 맞게 글을 쓰려고 했을 것이다. ② 글쓴이는 글을 쓰는 목적에 어울리는 주제를 선정하고 글을 쓰려고 했을 것이다. ③ 글쓴이는 작품 관습을 지켜 글을 써서 독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자 했을 것이다. ⑤ 작문 윤리를 지키기 위해 책임감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22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 전략을 점검하는 것은 작문 윤리와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경험을 사실대로 썼는지 점검해야 한다. ②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드러냈는지 점검해야 한다. ③ 개인적 차원에서 글에 거짓이나 허위 사실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④ 사회적 차원에서 인용한 글에 확실하게 인용 표시를 하고, 출처를 밝혔는지 점검해야 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34~137쪽

01 ④ 02 ① 03 ⑤ 04 ⑤ 05 ⑤ 06 ⑤ 07 ② 08 ③
09 ① 10 ⑤ 11 ④ 12 ④ 13 ④

01 기행문은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서술한다.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술자의 위치에 변화를 주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여정, 견문, 감상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서술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글쓴이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은 현재형으로 서술하여 생동감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0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 율치의 밤샘에서 발원, 새만금을 지나 바다로 나가는 만경강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삼례 문화 예술촌은 만경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봄이 깊어 가는 어느 날, 푸른 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④ 삼례 문화 예술촌의 외관이 다른 문화 예술촌과 달리 무뚝뚝하게 생긴 목재 창고의 모습이지만, 이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겼다는 내용은 없다. ⑤ 삼례 문화 예술촌의 원형인 양곡 창고의 슬픈 역사가 남아 있을 뿐이다.

03 ㉤은 애써 기른 곡식을 수탈당하는 현장의 소리를 인용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바다와 몸을 섞는 강'은 강이 바다 근처에 있으며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이 있음을 의미한다. ② '그들'은 만경강과 강을 따라 이어진 길을 의인화한 표현이다. ③ '족보'는 '삼례 문화 예술촌'의 역사를 의미한다. ④ '수모'는 양곡 수탈 기지였던 삼례가 받았던 모욕을 의미한다.

04 삼례 문화 예술촌의 첫인상은 무뚝뚝하고 평범한 창고라고 하였다. '무슨 문화 예술촌이 이렇게 생겼어?'는 기대와 다른 첫인상을 표현한 문장으로, 독자의 의문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오답 해설 ① 삼례 문화 예술촌은 화려하게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옛 창고의 투박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화려함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② 삼례 문화 예술촌의 건축물은 최근에 새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100년 가까이 창고로 사용되었던 기존 건물을 활용한 것이다. ③ 문화 예술촌의 매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무뚝뚝한 분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④ 삼례 문화 예술촌이 농촌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존했다기보다는 과거 창고의 흔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05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완주의 삼례에 있는 문화 예술촌에 가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목적이 단순히 여행지에서 들은 정보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이 글이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이 새로운 여행지를 소개하며 기행문 쓰기의 형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글쓴이가 국내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근거는 없다.

06 글을 쓰고 나서 인용한 부분에 출처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글을 쓰기 전에 계획할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기행문의 작문 관습을 지켜 글쓴이가 보고 들은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려고 계획했을 것이다. ② 글쓴이는 기행문을 쓰기 전에 삼례 문화 예술촌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였을 것이다. ③ 글쓴이는 글을 쓰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글의 주제에 벗어나는 자료를 배제하였을 것이다. ④ 글쓴이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삼례 문화 예술촌을 방문하고 기행문을 쓰기로 계획하였을 것이다.

07 글을 쓸 때는 글의 종류에 따라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해야 한다. 모든 글이 동일한 형식으로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기행문으로 여정, 견문, 감상에 따라 내용을 구성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글에는 그 글에 적합한 작문 관습을 적용해야 한다. ③ 글쓰기의 전 과정에서 글쓴이는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글을 써야 한다. ④ 글쓴이는 작문 관습에 따라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것을 생생하고 솔직하게 기록하려고 했을 것이다. ⑤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글을 쓰면 글쓰기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08 이 글은 글쓴이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삼례 문화 예술촌을 다녀온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② 문장의 길이를 비교적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글쓴이의 감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글쓴이가 직접 본 것 외에도 들은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

09 미디어 아트 미술관은 목재 창고였던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내부는 첨단 예술의 세상에 걸맞게 개조되어 있었다.

오답 해설 ② 글쓴이가 책 공방에서 직접 책을 만들어 본 것은 아니다. ③ 박물관에 전시된 『춘향전』은 프랑스어로 번역된 작품으로 완판본인지는 알 수 없다. ④ '정크 아트'는 관람자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⑤ 문화 예술촌 곳곳을 돌아다니는 기분을 색다른 음식을 맛보는 것 같다고 빗대었다.

10 1문단과 2문단에서 미디어 아트 미술관은 관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체험하기도 하며 첨단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미디어 아트 미술관이 아날로그로 복원된 세상을 전시하는 곳은 아니다. ② 미디어 아트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직접 정크 아트 작품을 만들어 볼 수는 없다. ③ 미디어 아트 미술관 내부의 벽과 천장은 원형을 보전하였지만, 그것이 전시품은 아니다. ④ 인터랙티브 아트는 관람자가 천으로 된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가 된 듯한 체험을 하는 것이지, 실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11 ㄹ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ㄱ에 대한 감상은 '반갑다, 품격이 읽힌다, 마음이 편안하다.' 등으로 나타난다. ② ㄴ에 대한 감상은 '눈길을 끈다, 국가 유산급의 전시 작품이다.' 등이 있다. ③ ㄷ에 대한 감상은 '눈길을 끈다.'가 있다. ⑤ ㅁ에 대한 감상은 '순식간에 100년을 이동한 느낌이랄까?' 등에서 나타난다.

12 ㉠, ㉣은 견문이고, ㉡, ㉢, ㉤은 감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13 '목공소'는 내부가 깔끔하고 조용해서 목공소라기보다 문화 공간으로서의 품격이 읽힌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미디어 아트 미술관'에서 여러 예술 작품들을 경험하고 체험하였다. ② 글쓴이는 책 공방에 있는 '목궤선'을 보고 국가유산급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였다. ③ '전라도 여자' 기획전에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춘향전』이 전시되어 있

었다. ⑤ '디자인 박물관'은 한국산업디자인협회 공모전의 수상 작품들을 모아 놓아 젊은 관람객들의 호응이 높은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38쪽

01 기행문을 쓸 때는 여정, 견문, 감상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해야 하며, 여행에서 겪은 일과 감상을 생생하고 솔직하게 써야 한다. **02** ⓐ: 과거의 역사 ⓑ: 오늘날(현재)의 문화 예술

01 기행문을 쓸 때는 기행문의 작문 관습에 따라 여정, 견문, 감상을 구성 요소로 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해야 한다. 또한 여행에서 겪은 일과 감상은 허위나 과장 없이 생생하고 솔직하게 써야 한다.

02 이 글은 과거의 역사와 오늘날의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삼례 문화 예술촌'에 대해 쓴 글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3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3 이 글에 글쓴이가 다른 작가의 글이나 표현을 인용한 부분은 없다.

08 '삼례 문화 예술촌'은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양곡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곳이다.

09 작가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글쓰기를 계획해야 한다.

4 우리 언어생활의 변화와 발전

(1) 국어가 걸어온 길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44~149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③ **05** ⑤ **06** ② **07** ④ **08** ③
09 ⑤ **10** ② **11** ③ **12** ③ **13** ① **14** ③ **15** ③ **16** ①
17 ⑤ **18** ④ **19** ④ **20** ② **21** ④ **22** ② **23** ③ **24** ⑤
25 ③

01 글자 왼쪽에 찍는 방점은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이다.

오답 해설 ① 중세 국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기록하였다. ② (가)에서는 한자어를 표기할 때는 한자와 우리말을 병기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이다. ③ 중세 국어는 주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였다. ④ 중세 국어 시기에는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음운 'ㆍ', 'ㆁ' 등이 사용되었다.

02 〈보기〉는 이어 적기에 대한 설명이다. ②의 '아·니홀·씨'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므로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말ᄊᆞ·미(:말ᄉᆞᆷ + ·이)'는 'ᄉᆞᆷ'의 끝소리 'ㅁ'을 뒤 음절인 '이'의 첫소리로 옮겨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형태이다. ③ '·쁘·들(·ᄠᅳᆯ + ·을)'은 '·ᄠᅳᆯ-'의 끝소리 'ㄷ'을 뒤 음절인 '을'의 첫소리로 옮겨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형태이다. ④ '·노·미(·놈 + ·이)'는 '·놈'의 끝소리 'ㅁ'을 뒤 음절인 '·이'의 첫소리로 옮겨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형태이다. ⑤ '·ᄯᅳ르·미니·라(·ᄯᅳ롬 + ·이니라)'는 '·ᄯᅳ롬'의 끝소리 'ㅁ'을 뒤 음절인 '·이'의 첫소리로 옮겨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형태이다.

03 '中듕國·귁·에달·아'의 '에'는 [현대어 풀이]의 '중국과 달라'로 보아,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현대어 풀이]로 보아, '나·랏:말ᄊᆞ·미'의 'ㅅ'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이다. ③ '百·빅姓·셩·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百·빅姓·셩' 뒤에서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④ '·홇·배'는 '·바'의 모음 'ㅏ' 뒤에서 주격 조사 'ㅣ'가 결합된 형태이다. ⑤ '·쁘·들'은 자음 '·ᄠᅳᆯ' 뒤에서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된 형태이다.

04 (가)에서는 백성들이 문자(한자)를 몰라서 자신의 뜻을 쉽게 펼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자를 알아도 한자는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기 위한 글자가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다.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자신의 뜻을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문자(한자)가 우리나라 말과 달라서 우리의 뜻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없다고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② 자신의 뜻을 문자(한자)로 드러낼 수 없는 가엾은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④ 백성들이 새로운 문자를 쉽게 익혀서 문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⑤ 우리나라 말은 중국의 말과 달라서 문자(한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05 (가)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법을 적용하여 한자어를 표기하였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모음 조화를 엄격히 지켜서 기록된 글이다. ② (가)에 사용된 일부 조사('에': 비교 부사격 조사)는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지만 조사의 형태가 현대와 전부 다른 것은 아니다. ③ 현대 국어도 종성에는 자음을 병서하여, 즉 나란히 붙여 사용하고 있다. ④ 모든 글자마다 방점을 찍는 것은 아니다. 방점이 없

으면 낮은 소리이다.

06 'ᄉᆞᄆᆞᄃᆡ'는 '통하지'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로 현대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말ᄊᆞᄆᆡ'는 '말'을 의미한다. 말을 높여 부른 것은 아니다. ③ '어린'은 '어리석은'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④ '노미'는 '사람이'란 뜻이다. ⑤ '어엿비'는 '가엾게'라는 뜻이다.

07 (나)는 중국의 옛 왕과 조선 태조의 업적을 비교하고 있지만, 태조 이성계가 중국의 왕보다 더 뛰어나다고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용비어천가』는 대체로 2절 4구의 형식을 지키고 있다. 제34장도 마찬가지이다. ②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학 작품이다. ③ (나)의 전절은 중국 옛 왕인 금나라 태조의 업적을 제시하고 있다. ⑤ (나)의 후절은 중국의 옛 왕에 못지않은 태조 이성계의 능력을 제시하여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08 단어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을 함께 사용한 것은 어두 자음군으로, (나)에 어두 자음군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ㆍ(아래아)'와 같은 음운이 나타나 있다. ④ '높ᄒᆞ고(높- + -고)' 등은 양성 모음끼리 결합한 형태로, 중세 국어에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으로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⑤ '하늘히(하늘ㅎ + 이)' 등은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앞말의 받침을 뒷말의 초성 자리에 옮겨 적는 이어 적기 방식이 나타난 사례이다.

09 '높고'의 종성 'ㅍ'은 8종성법의 8개 자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팔종성법의 예외를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믈', '하ᄂᆞᆯ', '도ᄫᅳ·실·씨'의 'ㄹ'은 팔종성법에서 받침으로 사용하는 8개 자음 중 하나이다. ④ '건·너시·니이·다'의 'ㄴ'은 팔종성법에서 받침으로 사용하는 8개 자음 중 하나이다.

10 ㉡의 [현대어 풀이] '중국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 '에'는 오늘날과 달리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의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로 보아 'ㅅ'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의 '수·빙'에는 현대 국어에서 사라진 자음자 'ㅱ(순경음 비읍)'이 나타나 있다. ⑤ ㉤은 'ᄯᅳ롬'과 'ᄒᆞ니라'를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은 형태이다.

11 'ᄡᅮ·메'는 '쓰-(동사 '쓰다'의 어간)+-움(명사형 전성 어미)+에'로 분석되는데, 앞 음절의 끝소리 'ㅁ'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은 형태이다. 따라서 'ᄡᅮ·메'가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쓰-'의 'ㅡ', '-움'의 'ㅜ', '에'는 모두 음성 모음이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단어의 초성에 서로 다른 두 자음자를 나란히 적은 어두 자음군 'ㅺ'이 사용되었다. ④ 'ᄆᆡ'는 글자 왼쪽에 방점 하나가 찍혀 있는데, 이는 거성(높은 소리)을 나타내는 방점이다.

12 '字·ᄌᆞᆼ·ᄅᆞᆯ'은 'ᄒᆞᆼ'에 사용된 양성 모음 'ㅗ' 뒤에서 목적격 조사 'ᄅᆞᆯ'이 실현된 형태이다. 'ᄡᅳ·들(쁟 + 을)'은 'ᄡᅳᆮ'에 사용된 음성 모음 'ㅡ' 뒤에서 목적격 조사 '을'이 실현된 형태이다.

13 '-ㄹ씨'는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오답 해설 ②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의 '달라'와 달리 '달아'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용언을 ㄹㅇ형 활용 용언이라고 한다. ③ 중세 국어에서 무정 명사나 높임의 대상 뒤에 쓰이는 관형격 조사는 'ㅅ'이었다. ④ 중세 국어에는 입술소리 다음에 오는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⑤ 중세 국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14 ㄱ. (가)에는 합용 병서를 어두에 표기하는 어두 자음군이 나타난다. ㄴ. 'ㆍ'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모음이다. ㄹ. 'ㅇ'과 달리 'ㆁ(옛이응)'은 주로 음가가 있는 종성에 표기되었다.

오답 해설 ㄷ. 'ㆆ'이나 'ㅱ'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이다.

15 (나)에는 한자어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한글의 우수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 아니라, 한글이 실제로 유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나)는 태조 이성계와 그 선조들의 업적을 밝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작되었다. ② 전절에는 중국의 왕을, 후절에는 조선의 왕의 선조들을 언급하여 조선 왕의 뛰어난 능력과 업적을 찬양하고 있다. ④ (나)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뒤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다. ⑤ 뛰어난 선조들의 업적을 밝혀, 후대 왕들을 권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다.

16 '믈'은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단어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아직 원순 모음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ᄇᆡ' 뒤에는 주격 조사 'ㅣ'가 생략되었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가 생략되지 않는다. ③ '하ᄂᆞᆯ히'에 쓰인 주격 조사는 '이'이다. ④ 선어말 어미 '-시-'와 '-니-', '-이-'가 함께 쓰였다. 하지만 현재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뿐이다. ⑤ '-ㄹ씨'는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17 중세 국어에서 글자 왼쪽에 점이 없는 음절이 낮은 소리임을 나타내기는 하나, 이러한 방식이 현대 국어에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방점은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어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기능을 하였다. ② 방점이 표시하는 것은 소리의 높낮이이다. ③ 글자 왼쪽에 점이 하나 있으면 높은 소리를 나타낸다. ④ 글자 왼쪽에 점이 두 개 있으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나타낸다.

18 ㄴ. '깊고, 높고'는 8종성법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적인 표기이다. ㄷ. 중세 국어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ㅁ. '하ᄂᆞᆯ히'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ㅎ' 종성 체언의 'ㅎ'이 드러났다.

오답 해설 ㄱ. (나)에는 어두 자음군이 나타나지 않는다. ㄹ. (나)에는 끊어적기가 아니라 이어적기를 사용하고 있다.

19 '듕귁'의 종성은 옛이응과 기역으로, 모두 음가를 지니고 있다. 음가를 지니지 않은 것의 예는 '문ᄍᆞᆼ'에서 'ᄍᆞᆼ'의 종성 'ㅇ'이다.

오답 해설 ① '빅셩'의 'ㅇ'은 음가를 지니고 있는 옛이응이다. ② '문ᄍᆞᆼ'의 'ㅇ'은 형식 종성으로 실제로 발음되지 않는다. ③ '윙'과 'ᄍᆞᆼ'는 한자어와 함께 표기되어 음가의 유무는 한자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⑤ '뼌한'은 '편안'을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이다.

20 중세 국어와 달리 현대 국어의 '말씀'은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끼리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중세 국어가 모음 조화를 엄격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서르'는 한 단어 내의 모음이 모두 음성 모음으로 결합되어 있다. ③ 'ᄠᅳ메'에 쓰인 명사형 전성 어미 '-움'은 어간 '쓰-'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성 어미 역시 모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쁟 + 을'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를 지킨 경우이다. ⑤ 어간 '밍ᄀᆞᆯ-'에 결합한 어미 '-ᄂᆞ오니'는 모두 양성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21 '내'는 '나'가 모음으로 끝났으므로 〈보기〉에 따라 주격 조사 'ㅣ'

가 결합한 형태이다.

오답 해설 ① '놈'은 자음으로 끝났으므로 〈보기〉에 따라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였다. ② 의존 명사 '바' 뒤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였다. ③ '말ᄉᆞᆷ'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였다. ⑤ '하ᄂᆞᆯㅎ'은 자음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였다.

22 '몯ᄒᆞᆷ노미'에서 'ㅎ'은 소리값을 갖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세 음절의 방점이 모두 다른 것으로 보아 세 음절의 소리의 높낮이, 즉 성조가 모두 다름을 알 수 있다. ③ '니르고져'를 현대 국어로 표기하면 '이르고자'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현대 국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④ '달아'에 '이어적기'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ㅇ'이 음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⑤ 구개음화는 'ㄷ'이 'ㅈ'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아직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3 (나)가 쓰인 15세기에는 주로 이어적기를 표기법으로 사용하였다.

오답 해설 ① 『용비어천가』에도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이 있다. ② '깊고, 높고'와 같이 8종성법이 적용되지 않은 단어가 있다. ④ 『용비어천가』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⑤ 현대 국어에 없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되었다.

24 (나)에서 조선을 건국할 때 중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중국 고사와 태조 이성계의 능력을 비교하여 조선 건국의 천명을 강조하였다. ② 태조 이성계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하여 조선이 훌륭한 왕을 지닌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③ 금나라 태조와 태조 이성계 모두 하늘의 명이나 도움을 받은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다. ④ 전절에서 금나라 태조의 신이한 능력을 밝히고, 후절에서 태조 이성계의 뛰어난 능력을 밝히고 있다.

25 훈민정음의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

오답 해설 ① 'ᄉᆞᇙ-'의 'ㅊ'이 'ㅅ'으로 바뀌어 표기된 8종성법을 적용하였다. ② '깊고'는 8종성법이 적용되지 않은 단어이다. ④ 8종성법은 17개의 자음(초성) 중 실제로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 8개만을 종성에 표기하기로 한 것이다. ⑤ 종성에는 실제로 발음되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의 8개 자음만을 표기하기로 하였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50~155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②	05 ②	06 ②	07 ④	08 ⑤
09 ④	10 ④	11 ④	12 ②	13 ②	14 ④	15 ⑤	16 ③
17 ④	18 ④	19 ③	20 ⑤	21 ②	22 ①	23 ⑤	24 ④
25 ⑤	26 ②	27 ①	28 ②				

01 (가)와 (나) 모두 모음 조화를 잘 지키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는 합용 병서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나)에는 한자어를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와 (나)에는 문장 부호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와 (나)는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를 방점으로 표시하였다.

02 ㉡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현대 국어에서 의미가 축소되어 사용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말ᄉᆞᆷ'은 '말'이라는 뜻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의미가 축소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대 국어에서 '말씀'은 남의 말을 높이거나 자신의 말을 낮추는 의미로 쓰인다. ② '시러'는 '능히'로 풀이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 '시러'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④ '어엿브다'는 '가엾다'라는 뜻으로 현대 국어에 '어엿비'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⑤ ㉤은 '말을 탄 채'로 해석할 수 있다.

03 현대 국어에도 비교 부사격 조사가 존재한다. 다만 그 형태가 다른데, 중세 국어와 달리, 현대 국어에는 '와/과'가 비교 부사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오답 해설 ① 중세 국어는 관형격 조사가 'ㅅ'이나 '의/의' 등 다양한 형태로 쓰였다. ② 중세 국어의 평서형 종결 어미로는 주로 '-라'가 사용되었다. ④ 목적격 조사는 앞말의 음운 환경에 따라 달리 선택되었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을/을'을 쓰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ᄅᆞᆯ/를'을 썼다. 이는 현대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지 여부에 따라 '을/를'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자음 뒤에서 '이', 모음 뒤에서 'ㅣ'가 사용되었다. 반모음 'ㅣ'나 'ㅣ' 모음 뒤에서는 영형태가 사용되었다.

04 'ᄯᅳ ᄅᆞ미니라'에는 서술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주격 조사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모음 'ㅏ' 뒤에 주격 조사 'ㅣ'가 쓰였다. ③ 자음 'ㅁ'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④ 자음 'ㅎ'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⑤ 자음 'ㄹ' 뒤에 쓰일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되었다.

05 '-움-'은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어미는 접사와 달리 단어를 만드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ㄹ씨'는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③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없는 '-ᄂᆞ-'나 '-오-'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④ '-고져'는 어떠한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⑤ 중세 국어에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였다.

06 (가)는 「세종어제훈민정음」으로, 이 글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동기를 밝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가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글은 아니다. ③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창작된 것은 (나)이다. ④ (가)에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제목인 '세종어제훈민정음'의 뜻은 '세종이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다.

07 ㄴ. (나)는 중세 국어의 문학 작품으로, 중세 국어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ㄷ. (나)는 조선을 건국한 왕과 그 선조들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창작되었다.

오답 해설 ㄱ. 『용비어천가』는 세종이 직접 지은 작품이 아니라, 정인지 등 집현전의 학자들이 지은 것이다. ㄹ. (나)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훈민정음으로 쓸 수 있는지 시험하려는 의도로 창작되었으나, 한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08 '돕다'의 의미를 가진 어간 '돌-'의 어간 일부 'ㅸ'은 모음과 결합할 때 주로 '우/오'의 형태로 변하였다.

오답 해설 ① 두음 법칙이 적용되면 'ㅣ' 모음 앞에서 단어 첫머리의 'ㄴ'이 탈락한다. ② 구개음화가 적용되면 'ㅣ' 모음 앞에서 'ㄷ'이 'ㅈ'으로 바뀐다. ③ '하ᄂᆞᆯㅎ'은 현대 국어에서 체언 끝의 'ㅎ'이 소멸되었다. ④ '도ㅸ실씨'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도우시므로'이다.

09 (가)와 (나)에는 현대 국어에 없는 'ㆍ'나 'ㅸ'과 같은 자음과 모음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나)에는 '깊고, 높고'와 같이 8종성법의 예외가 확인된다. ② (가)와 달리 (나)에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③ (가)와 (나) 모두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⑤ (나)의 '하ᄂᆞᆯㅎ'처럼 (가)의 '나라ㅎ' 역시 'ㅎ' 종성 체언이지만 그 형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10 '쁴한킈'의 '쁴한'은 한자어를 중국어 원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모음 조화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듕귁'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붙여 모음 조화를 이루었다. ② 'ᄇᆞᆮ-'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을 붙여 음성 모음끼리 이어지게 하였다. ③ 'ᄡᅳ-' 뒤에 명사형 전성 어미 '-움'을 사용하여 모음 조화를 지켰다. ⑤ '하ᄂᆞᆯ'은 양성 모음으로만 쓰인 체언이다.

11 '이셔도'는 현대 국어의 '있어도'를 이어적기의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듕귁에'는 한자어와 조사가 결합하여 이어적기를 적용하지 않았다. ② '달아'의 'ㅇ'은 음가가 있어 이어적기를 적용하지 않았다. ③ '빅셩이'는 한자어와 조사가 결합하여 이어적기를 적용하지 않았다. ⑤ 'ᄃᆞ리'는 '다리'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어적기를 할 종성이 없다.

12 'ᄲᅮ메'는 'ᄡᅳ-'에 명사형 전성 어미 '-움'이 쓰인 활용이 드러난다. 한편 'ᄠᅳᆮ'은 명사로 뒤에 조사가 붙은 것이다. 즉 용언의 활용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ᄲᅮ메'와 'ᄠᅳ들' 모두 어두에 합용 병서를 사용하였다. ③ 'ᄲᅮ메'와 'ᄠᅳ들' 모두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여 조사를 표기하였다. ④ 'ᄲᅮ메'의 '에', 'ᄠᅳ들'의 '을'은 현대 국어의 조사와 형태가 동일하다. ⑤ 'ᄲᅮ메'와 'ᄠᅳ들' 모두 이어적기의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13 'ㅸ'은 오늘날 소실되었지만, 모음과 결합할 때 반모음 'ㅗ/ㅜ' 등의 형태로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오답 해설 ① 'ㆁ'과 달리 종성의 'ㅇ'은 음가가 없었다. ③ 음가가 있는 'ㆁ'은 점차 'ㅇ'으로 통합되어 쓰였다. ④ 'ㆆ'은 한자어를 원음에 가깝게 발음할 때 표기되거나 된소리 부호 등으로 사용되었다. ⑤ 'ㆍ'는 16세기부터 점차 음가를 잃어 둘째 음절 이하에서 주로 'ㅡ'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14 '말ᄊᆞᆷ'과 '노미'는 현대 국어에 이르러 의미가 축소된 어휘이다.

오답 해설 ① '어린'은 오늘날 의미가 이동한 단어이다. ② '문ᄍᆞᆼ'는 의미가 축소된 어휘가 아니다. ③ '젼ᄎᆞ'는 오늘날 사라진 어휘이다. ⑤ '어엿비'는 오늘날 의미가 이동한 단어이다.

15 현대 국어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는 환경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이와 달리 중세 국어는 한 음절 내부도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실제로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ᄉᆞᄆᆞᆺ다'의 종성은 실제 발음을 고려해 'ㅅ'으로 교체되었다. ② 'ᄎᆞ'을 'ㅅ'으로 교체한 것은 실제 발음이 고려되었으며, 8종성법이 적용된 것이다. ③ 'ᄉᆞᄆᆞᆺ디'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말이다. ④ 중세 국어 당시에는 구개음화를 적용하지 않았다.

16 (나)에 쓰인 선어말 어미 '-이-'는 상대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해설 ① '깊고, 높고'에서 8종성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하ᄂᆞᆯ히'에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④ (나)에는 주체인 하늘과 태조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⑤ 중세 국어에는 원순 모음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17 'ㆆ' 종성 체언의 적절한 예는 '하ᄂᆞᆯ히'(하ᄂᆞᆯㆆ + 이)이다.

오답 해설 ① '아니ᄒᆞᆯ씨'는 체언이 아니다. ② '몯ᄒᆞᆯ'에는 체언이 없다. ③ 'ᄒᆡ여'는 체언이 아니다. ⑤ 'ᄂᆞ리시니이다'는 체언이 아니다.

18 'ᄉᆞᄆᆞᆺ디, 젼ᄎᆞ, 시러'는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어휘이다.

오답 해설 ① '서르'는 현대 국어의 '서로'이고, '어린'은 현대 국어에서 의미가 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② '니르고져'는 현대 국어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이르고자'로 쓰이고 있다. ③ '노미'는 현대 국어에서 '남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⑤ '수ᄇᆡ'는 '쉽게'라는 의미로 현대 국어에서 쓰이고 있고, '믈'은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어 '물'로 쓰이고 있다. 'ᄃᆞ리'는 '다리'로 'ㆍ'가 'ㅏ'로 바뀌어 쓰였고, '하ᄂᆞᆯㆆ'은 'ㆆ'이 생략된 채로 쓰이고 있다.

19 ㉠과 ㉣의 주격 조사는 '이'로 동일하다.

오답 해설 ① ㉠의 주격 조사와 달리 ㉢의 주격 조사는 'ㅣ'이다. ② ㉡은 'ㅣ'를 주격 조사로 표기하였고, ㉤은 주격 조사를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④ ㉤은 주격 조사를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⑤ ㉡과 ㉢은 주격 조사 'ㅣ'를 사용하였지만 ㉤은 주격 조사를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20 ㄴ. (가)와 (나)는 모두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 ㄹ. (가)와 (나) 모두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ㅁ. (가)와 (나)에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ㄱ. (나)에는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지 않았다. ㄷ. (가)와 (나)는 모두 방점으로 성조를 표시하여 음의 높낮이를 표현하였다. ㅂ. (나)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ㅅ. (가)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21 중세 국어의 'ᄠᅳ들'과 현대 국어의 '뜻을'은 모두 음성 모음끼리 결합한 것으로 이는 모음 조화를 지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중세 국어의 '달아'를 현대 국어로 표기하면 '달라'이다. ③ 중세 국어는 대체로 이어적기의 방식으로 표기했지만, 한자어와 우리말이 결합할 때는 한자어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또한 현대 국어에서는 이어적기와 끊어 적기 방식으로 표기한다. ④ 방점으로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냈다. ⑤ '뮝ᄀᆞ노니'와 '만드니' 모두 어간의 'ㄹ'이 탈락한 것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22 음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체언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결합하여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듕귁에'에 형식 종성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듕귁에'는 한자어의 원형을 밝혀 적기 위해 이어적기를 하지 않고 있다. ④ '듕귁에'에 사용된 조사 '에'는 현대 국어의 '과'와 같은 기능을 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한자어를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여 이상적인 한자음을 표기하려고 한 것이다.

23 'ᄲᅮ메'를 '쓤에'로 표기하는 것은 원순 모음화와 관계 없다.

오답 해설 ① 'ᄲᅮ메'를 '쓤에'로 표기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보기〉를 통해 어두에 쓰이는 'ㅺ'이 당시에 'ㅂ'과 'ㅅ'을 모두 발음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ᄲᅮ메'는 동사 어간 'ᄡᅳ-'에 명사형 전성 어미 '-움'이 결합한 뒤 부사격 조사와 함께 쓰인 말이다. ④ 현대 국어에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지 않는다.

24 ⓓ가 높이고 있는 주체는 '하ᄂᆞᆯㆆ'이다.

오답 해설 ① ⓐ가 높이고 있는 주체는 '하ᄂᆞᆯㆆ'이다. ② ⓑ가 높이고 있는 주체는 금나라 태조이다. ③ ⓒ와 같이 청자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⑤ ⓔ가 높이고 있는 주체는 태조 이성계이다.

25 '나흘'은 '나ᄒᆞᆯ'에서 온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ᄉᆞᆶ'의 'ㆆ'은 고기와 결합해 격음화되었다. ② '술'에 관형격 조사 'ㅅ'이 붙은 뒤 '가락'이 결합해 '숫가락 > 숟가락'이 되었다. ③ '않 + 봐'에서 'ㆆ'이 'ㅂ'과 결합해 'ㅍ'이 되고, 'ㅘ'은 'ㅝ'이 되었다. ④ '조 + ᄯᆞᆯ'의 결합형 '조 + ᄯᆞᆯ'의 어두 자음군 'ㅺ'은 'ㅆ'으로 바뀌어 '좁쌀'이 되었다.

26 ⓐ에서 '아'는 점이 없으므로 낮은 소리(평성), 'ㆍ니'와 'ㆍ씨'는 점이 한 개이므로 높은 소리(거성), 'ᄆᆞᆯ'은 점이 두 개이므로 처음은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상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는 '평성-거성-상성-거성'으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할 수 있다.

27 ㉠은 [현대어 풀이]로 볼 때 '중국과'라는 뜻이므로, 중세 국어에서는 '에'가 앞말이 장소임을 표시하는 조사가 아니라 비교를 의미하는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의 '-ㄹ씨'는 [현대어 풀이]로 볼 때 '-므로'에 해당한다. '-므로'는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ㄹ씨'는 앞말이 뒤에 오는 내

용과 인과 관계로 연결됨을 표시한다. ③ ㉢의 '-ㄴ'은 [현대어 풀이]로 볼 때 '-은'에 해당한다. '-은'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ㄴ'은 앞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함을 표시한다. ④ ㉣의 'ㅣ'는 [현대어 풀이]로 볼 때 '가'에 해당한다. '가'는 주격 조사이므로, 'ㅣ'는 앞말이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한다. ⑤ ㉤의 '을'은 [현대어 풀이]로 볼 때 '을'에 해당한다. '을'은 목적격 조사이므로 앞말이 목적어임을 표시한다.

28 '百·빅姓·셩·이'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百·빅姓·셩'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실현된 형태이다.

오답 해설 ① '나·랏'은 무정 체언 '나·라'에 관형격 조사 'ㅅ'이 실현된 형태이다. ③ '·홇·배'는 모음 'ㅏ'로 끝나는 체언 '·홇·바' 뒤에 주격 조사 'ㅣ'가 실현된 형태이다. ④ '·쁘·들'은 자음 '·ᄠᅳ' 뒤에 목격적 조사 '을'이 실현된 형태이다. ⑤ '·노·미'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놈'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실현된 형태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56~157쪽

01 (1) :말ᄊᆞ·미, 百·빅姓·셩·이, ·노·미 / ㅡ / ·홇·배 (2) 중세 국어에서는 음운 조건에 따라 '이/ㅣ/∅'가 주격 조사로 사용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는 '이/가'가 주격 조사로 사용된다. **02** (1) '나·랏:말ᄊᆞ·미'의 'ㅅ', '우리나라의 말이'의 '의' (2) 중세 국어에서는 'ㅅ'이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는 '의'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로 사용된다. **03** •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모음자 'ㆍ(아래아)'가 사용되었다. • 단어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어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 방식을 사용했다. **04** 중세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졌다. **05** 곶 **06** (1) ㉠: ᄇᆞᄅᆞᆷ + 애 ㉡: ᄇᆞᄅᆞᆯ + 애 (2) ㉠과 ㉡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애'가 앞말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거나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1 ':말ᄊᆞ·미'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말ᄊᆞᆷ'과 주격 조사 '이'가, '百·빅姓·셩·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百·빅姓·셩'과 주격 조사 '이'가, '·노·미'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놈'과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홇·배'는 반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바'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형태이다. [현대어 풀이]와 비교할 때, 현대 국어에서는 중세 국어와 달리 주격 조사로 '이/가'가 사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4 양성 모음은 'ㆍ, ㅏ, ㅗ, ㅑ, ㅛ, ㅘ' 등처럼 어감이 밝고 산뜻한 모음이고, 음성 모음은 'ㅓ, ㅜ, ㅕ, ㅠ, ㅡ, ㅝ'처럼 어감이 어둡고 큰 모음이다. ㉠은 음성 모음 'ㅓ'와 'ㅡ'가, ㉡은 음성 모음 'ㅡ'와 'ㅡ'가, ㉢은 양성 모음 'ㆍ'와 'ㆍ'가 결합했다.

05 '곶'의 종성 'ㅈ'은 팔종성법에 나타난 8개 자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06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이야기책'은 '이야기'와 '책'으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의 'ᄇᆞᄅᆞ·매'는 형태소 'ᄇᆞᄅᆞᆷ'과 조사 '애'가 결합한 뒤,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은 형태이고, ㉡의 '바·ᄅᆞ래'는 형태소 'ᄇᆞᄅᆞᆯ'과 조사 '애'가 결합한 뒤,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은 형태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부사격 조사로 '애/에'가 사용되었는데, [현대어 풀이]를 참고할 때, ㉠의 '애'는 앞말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임을, ㉡의 '애'는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58~15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7 「세종어제훈민정음」에 쓰인 어휘 중에 오늘날 의미가 확대되어 쓰이는 어휘는 없다.

13 「세종어제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 모두 성조를 방점으로 표시하였다.

16 『용비어천가』의 전절은 주로 중국의 고사를 제시하고, 후절은 주로 우리의 고사를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17 『용비어천가』는 한자어를 한자 단독으로 표기하였다.

19 『용비어천가』에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고, 현대 국어에 없는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2) 바르고 정확한 국어생활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62~167쪽

01 ①	02 ③	03 ②	04 ③	05 ②	06 ②	07 ①	08 ③
09 ⑤	10 ⑤	11 ②	12 ⑤	13 ③	14 ③	15 ④	16 ②
17 ②	18 ③	19 ④	20 ④				

01 소리대로 적으면 뜻을 파악하기 어려워 오히려 읽기에 불편하다. 어법에 맞게 적으면 형태소의 본 모양을 알 수 있으므로 파악하기 쉽고 읽기에도 편하다.

오답 해설 ②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대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한글 맞춤법이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 놓은 규정을 한글 맞춤법이라 한다. ④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은 단어를 이루는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음으로써 읽는 이가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⑤ 한글은 소리글자(표음문자)이므로 소리대로 적지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02 '거름'은 '(땅이) 걸다'의 어간 '걸–'에 '–음'이 붙은 말인데 '(땅이) 건 것'이 아니라 본뜻에서 멀어져 '비료'를 가리키게 된 것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거름'으로 적는다. '걸음'은 'ㄷ' 불규칙 용언 '걷다'의 어간 '걷–'에 '–음'이 붙은 형태이므로 '거름'과 구별하여 적는다.

오답 해설 ① '바다', '사과'는 [바다], [사과]로 소리 나므로 ㉠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② '맑아, 맑지, 맑고'와 같이 활용하는 '맑다'는 '[말가], [막찌], [말꼬]'로 소리 나지만, '맑–'으로 어간의 형태를 고정하여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④ '지붕'이나 '짤막하다'는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고 소리대로 표기한 것이다. ⑤ [꼳], [꼬치], [꼰만] 등으로 다르게 발음되지만, '꽃'의 형태를 고정하여 적은 것이다.

03 '묻다'는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뀐 불규칙 용언이다. '묻–'에 어미 '–어'를 결합할 때 'ㄷ'이 'ㄹ'로 바뀌는 것을 고려해 '물어'로 적는 것은 표음주의적 표기이고,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쓴 것은 표의주의적 표기이다. 끝소리가 'ㄹ'인 '달'이 연달아 결합할 때 'ㄹ'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다달이'로 쓴 것은 표음주의적 표기이고, 어근과 접사를 구별해서 쓴 것은 표의주의적 표기이다.

오답 해설 '같이'는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쓴 표의주의적 표기이다. 어근 '넘–'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너머'는 소리대로 쓴 표음주의적 표기이다. '깨끗이'는 어근과 접사를 구별해서 쓴 표의주의적 표기이다.

04 ⓐ~ⓒ는 모두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기본 원리만 지킬 경우, 그 의미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형태소의 본 모양을 살려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는 모두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은 것이다. ② ⓐ~ⓒ는 문장에서 각각 [닥], [달기], [당날개]로 발음된다. ④, ⑤ 소리 나는 대로 각각 [닥], [달기], [당날개]로 적을 경우 그 원형인 '닭'의 형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표기 규범이다.

05 '놋그릇'은 음절 종성에서 [ㄷ]으로 소리가 나지만 'ㄷ'을 적을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ㅅ'으로 적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ㄱ, ㅂ'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되기가 언제나 일어나는 경우이므로 발음과 달리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몹시'가 바른 표기이다. ③ 의존 명사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존 명사는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존 명사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대로 적기 때문에 '십년'이 바른 표기이다. ④ 음절 종성에서 [ㄷ]으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ㄷ'으로 적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받침을 'ㄷ'으로 적는다. ⑤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단어 첫머리 이외에는 본음대로 적기 때문에 '남녀'가 바른 표기이다.

06 '예의'의 한자음 '례(禮)'와 '여성'의 한자음 '녀(女)'는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서 각 한자음의 음운 'ㄹ'과 'ㄴ'이 탈락하고 모음만 남아 각각 [예], [여]로 소리 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목례'처럼 한자음 '례'가 단어의 첫소리가 아닌 경우 한자음 그대로 '례'로 발음되지만, '예의'처럼 '례'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ㄹ'이 탈락하고 '예'로 발음된다. ③ '예의'처럼 한자음 '례'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ㄹ'이 탈락하여 '예'로 발음되고, '노인'처럼 한자음 '로'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ㄹ'이 'ㄴ'으로 교체되어 '노'로 발음되는 것으로 보아, 한자어에서는 단어의 첫소리에 'ㄹ'이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한자어의 첫머리에서 'ㄹ', 'ㄴ'이 탈락하거나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변동은 표기에 반영된다. ⑤ ⓓ의 경우로 볼 때 외래어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07 '앎'은 어간 '알–'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다. '밝히'는 어간 '밝–'에 부사 파생 접미사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다. '섭섭히'는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라 부사의 끝음절이 '이'나 '히'로 나는 것이므로 '섭섭이'가 아니라 '섭섭히'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③, ④, ⑤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라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가 된 단어는 '길이, 달맞이, 다듬이, 높이, 믿음, 벼훑이, 쇠붙이, 얼음, 앎' 등이 있으며, 어간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단어는 '길이, 같이, 높이, 작히, 짓궂이, 많이, 밝히' 등이 있다.

08 표음주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이고, 표의주의는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표기하는 방식이다. '여자, 솜털, 영혼, 눈'은 소리대로 적은 표음주의 방식이고, '같이[가치], 맑음[말금], 바람이[바라미]'는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은 표의주의 방식이다.

09 '간편하게'에서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리고 있으므로 제40항에 따라 '간편케'로 적는다. 그러나 '생각하건대'는 '하'가 아주 줄 경우에 해당하므로 '생각건대'로 적는다.

오답 해설 ① '법석'은 제5항에 따라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② '해돋이, 걷히다, 끝이'는 [해도지], [거치다], [끄치]로 발음이 되더라도 제6항에 따라 '해돋이, 걷히다, 끝이'로 표기한다. ③ '오뚝하다'의 어근 '오뚝'에 '–이'가 붙은 것이므로 제23항에 따라 '오뚝이'로 표기한다. ④ '다달이'는 '달–달–이'가 어울려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므로 '다달이'로 표기한다.

10 '걷잡다'는 '(사람이 일을) 잘못 진행되어 가는 기세를 거두어 바로잡다.'는 의미이고, '겉잡다'는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는 의미이다. 문맥에 따라 ㉤에는 '걷잡다'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이따가'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라는 의미이고, '있다'는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라는 의미이다. 문맥에 따라 '있다가'로 써야 한다. ②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씁쓸하다'로 써야 한다. ③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정한 채'로 써야 한다. ④ 어간 '되–'에 어미 '–고'가 결합하여 활용한 경우로 '되고'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는 두 개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되었을 때, 앞 단어의 본뜻에서 멀어져 앞 단어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

로 적은 경우이다.

오답 해설 ① ⓐ처럼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적은 이유는 의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③ ⓒ의 경우, 어간의 본 모양이 살아 있는 앞 용언 '넘다, 접다, 늘다'의 뜻을 중심으로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④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 '-오'는 '이' 뒤에서는 [요]로 발음되지만, 표기의 일관성을 우선하여 '-오'로 적는다. ⑤ 제15항 [붙임 3]에 따라 문장을 연결하는 '이요'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한다.

12 '있다가'는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는 의미가, '반듯이'는 모양이나 자세가 올바르다는 의미가 있다. '안스러워', '수병아리'는 잘못된 표기로, '안쓰러워', '수평아리'로 표기해야 한다.

13 'ㄱ'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은 된소리되기가 언제나 일어나는 경우이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깍뚜기'가 아니라 '깍두기'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⑤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로, 된소리를 밝혀 적어야 한다. ②, ④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를 밝혀 적어야 한다.

14 '마중'은 '맞-'에 '-이'나 '-음'이 아닌 접미사 '-웅'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므로, ㉣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마중'으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믿음'은 [미듬]으로 발음되지만 '믿-'이라는 어근에 '-음'이 붙어 형성된 것이라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② '익-'에 부사 파생 접미사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익히'로 적어야 한다. ④ '죽음'은 '죽-'에 '-음'이 붙어 만들어진 말이므로 ㉠의 규정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고, '주검'은 '죽-'에 '-엄'이라는 접미사가 결합한 것으로 ㉢의 규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⑤ 목에 거는 물건을 뜻하는 '목걸이'는 '걸-'에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므로 ㉠의 규정에 따라 어법에 맞게 표기하고, '목거리'는 원래의 뜻과 멀어졌기 때문에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리대로 표기한 것이다.

15 '안되다'가 아니라 '되다'의 부정 표현인 '안 되다'로 써야 한다. '안 되다'는 부정 부사 '안'과 용언 '되다'로 이루어진 두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한편 합성 용언으로 굳어진 하나의 단어 '안되다'는 '그 사람의 얼굴이 참 안됐더라.'와 같이 쓰여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라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섣부르다'가 바른 표기이다. ②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인다. 한편,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누군가로부터 상을 탄 사실을 듣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상황에서는 '-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나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덤벼들어'는 '덤비다'와 '들다'가 결합한 합성 용언이므로 뒤에 오는 보조 용언 '보아라'는 띄어 써야 한다. ⑤ '(으)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으)로써'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또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된다. 이 문장에서 '인간'은 자격을 의미하므로 '인간으로서'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16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띄어 쓴다. 단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한편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따라서 '눈이 올 듯해 아버지를 도와드렸다.'가 적절하다.

17 '버리는'은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쓰는 원칙에 따라 띄어 써야 하지만 붙여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만큼'은 Ⅰ-②의 의미를 지닌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③ '만큼'은 Ⅱ-②의 기능을 하는 보조사이므로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버리고는'은 Ⅳ의 기능을 하는 보조 동사로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먹어버리고는'으로 붙여 쓸 수 있다. ⑤ '버리지않았다'에서 '버리다'는 Ⅲ-①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 본용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버리지 않았다'로 띄어 써야 한다.

18 '집어먹다'는 하나의 단어로 등재된 합성 용언이다.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다. 본용언과 본용언은 허용 규정에 따라 붙여 쓸 수 있지만, 이 경우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형인 각 용언이 주어와 호응하는 특징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집어먹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합성 동사이기에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다. ② '잊어 먹다'에서는 '잊다'라는 본용언과 '먹다'라는 보조 용언이 쓰였다. 이 경우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 원칙대로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다. ④ '집어 먹다'에서는 두 용언 사이에 '허겁지겁'처럼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다. 본용언과 본용언이 쓰인 경우이므로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다. ⑤ '잊어먹다'는 사전에 없는 단어이고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 두 용언을 띄어 써야 하지만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라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므로 붙여 쓸 수도 있다.

19 '귀머거리'는 '귀먹-'에 '-어리'라는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은 것으로 규정 ㉠을 적용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다듬이'는 동사 '다듬-'에 '-이'라는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은 형태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규정 ㉠을 적용한 것이다. ② '마개'는 동사 '막-'에 '-애'가 붙었기에,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③ '삼발이'는 명사 '삼발'에 '-이'라는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은 형태이므로,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규정 ㉡을 적용한 것이다. ⑤ '덮개'는 동사 '덮-'에 '-개'라는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었으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규정 ㉤을 적용한 것이다.

20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ㄴ'과 '지'를 띄어 쓴다.

오답 해설 ① '올듯 하다'는 제47항에 따라 '올 듯하다'로 표기해야 한다. ② '대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오시는 대로'로 띄어 써야 한다. ③ '밤, 사과, 감, 대추등이'에서 '등'은 제45항에 따라 '~ 대추 등이'로 띄어 써야 한다. ⑤ '여기서부터 입니다'에서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제41항에 따라 '여기서부터입니다'로 붙여 써야 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68~173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②	05 ④	06 ⑤	07 ③	08 ①
09 ③	10 ④	11 ③	12 ①	13 ⑤	14 ①	15 ⑤	16 ②
17 ②	18 ④	19 ④	20 ③	21 ②			

01 어근 '믿-'과 접미사 '-음'이 결합한 '믿음'은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말이다. 접미사 '-음'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앞말이 '쓸다'라는 본뜻에서 멀어져서 '쓰러진'과 같이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② 용언의 어간 '작-'과 어미 '-은'이 구별되도록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자근'이 아닌 '작은'으로 적은 것이다. ③ 접미사 '-웅'이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고 있으므로 '맞웅'이 아닌 '마중'과 같이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④ '끝'이라는 체언의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 '끄치'가 아닌 '끝이'로 적은 것이다.

02 [A]에서 '지'는 어미 '-(으)ㄴ지, -(으)ㄹ지'의 일부일 때는 띄어 쓰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부터 해야 할 지를 모르겠다.'에서 '할 지'의 '지'는 어미 '-ㄹ지'의 일부이므로 '할지'라고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동네 인심 한번 고약하구나.'에서 '한번'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므로 '한번'이라고 써야 한다. ②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에서의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④ '견우와 직녀는 일 년에 한 번 만난다.'에서 '번'은 일의 횟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한 번'이라고 띄어 써야 한다. ⑤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명 몫의 일을 해낸다.'에서 '부지런한지'의 '지'는 어미 '-ㄴ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03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에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백분률'은 '백분율'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모음 뒤에 이어지는 '렬'은 '율'로 적어야 하므로 '나열'이 바른 표기이다. ②, ④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류행 → 유행', '량심 → 양심'으로 적어야 한다. 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므로 '명중률'이 바른 표기이다.

04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 단어와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돈'은 홀로 사용될 수 없는 단위 명사이나, 조사를 제외한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앞 단어와 띄어 써야 한다. ③ '왔다'는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본용언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④ '만큼'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 단어와 띄어 써야 한다. ⑤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서 앞 단어와 띄어 써야 한다.

05 한글 맞춤법 제19항 [붙임]에 따르면 '마개(막- + -애)', '무덤(묻- + -엄)'처럼 어간에 '-이'나 '-(으)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오답 해설 ①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에 따르면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고,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않는다. ②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르면 어간에 '-(으)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만,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③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르면 어간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⑤ 한글 맞춤법 제21항에 따르면 명사 또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06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의미이고, '반듯이'는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라는 의미이므로 '척추를 반듯이 펴고 앉아야 한다.'와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안치다'는 '(사람이 밥이나 떡 따위의 음식물을) 만들기 위해 솥이나 시루 등에 넣다.'라는 의미이고, '앉히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디에) 앉게 하다.'는 의미로, 쓰임이 적절하다. ② '붙이다'는 '(사람이 무엇에 어떤 재료나 물체를) 서로 꽉 맞닿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는 의미이고, '부치다'는 '(사람이 빈대떡이나 전 따위의 음식을) 기름 친 번철에 익혀 만들다.'는 의미로, 쓰임이 적절하다. ③ '졸이다'는 '(사람이 가슴 따위를) 바짝 태워 안타깝고 초조해하다.'는 의미이고, '조리다'는 '(사람이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양념한 뒤 국물이 졸아들어 간이 스며들도록 바짝 끓이다.'는 의미로, 쓰임이 적절하다. ④ '달이다'는 '(사람이 약재, 차 따위를) 물에 넣고 끓여서 우러나오게 하다.'는 의미이고, '다리다'는 '(사람이 옷이나 천 따위를) 다리미나 인두로 문질러 구김살을 펴다.'는 의미로, 쓰임이 적절하다.

07 '가지어'는 '가지-'라는 어간에 '-어'라는 어미가 결합한 것이다. 즉, 'ㅏ'와 '-이어'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ㅣ'와 '-어'가 결합한 것이기에 제38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누이어'는 'ㅜ'와 '-이어'가 어울려 '뉘어/누여'로 줄어든 경우로, 준 대로 적는다. ② '쏘이어'는 'ㅗ'와 '-이어'가 어울려 '쐬어/쏘여'로 줄어든 경우로, 준 대로 적는다. ④ '그렇지 않은'은 '-지'와 '않-'이 어울려 '그렇잖은'으로 줄어든 경우로, 준 대로 적는다. ⑤ '변변하지 않다'는 '-하지'와 '않-'이 어울려 '변변치 않다'로 줄어든 경우로, 준 대로 적는다.

08 '따뜻이'는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므로 '따뜻이'로 적는다. '딱히'는 부사의 끝음절이 '히'로만 나므로 '딱히'로 적는다. '꼼꼼히'는 부사의 끝음절이 '이, 히'로 나므로 '꼼꼼히'로 적는다.

오답 해설 ② '가만히'는 ㉢에, '정확히'는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③ '급히'는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④ '도저히'는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작히'는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⑤ '극히'와 '엄격히'는 모두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09 '자주'는 어간 '잦-'에 접미사 '-우'가 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제19항 [붙임]과 같이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이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엮음'은 '엮다'의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으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② '땀받이'는 '받다'의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며, 어간의 원래 뜻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④ '마개'는 '막다'의 어간 '막-'에 '-이'나 '-음'이 아닌 '-애'라는 접미사가 붙어 명사가 되었으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⑤ '거름'은 어간 '걸-'과 접미사 '-음'이 붙었으나 그 어간의 뜻과 멀어져서 '비료'라는 의미가 되었으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10 '내일'은 두음 법칙이 적용된 표기이다. 이처럼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표기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 해당한다. ㉡에서 언급한 '어법에 맞도록' 함은 '두음 법칙'과 같은 음운의 변동 규정에 따른 표기가 아니라,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가니'는 '갈- + -니'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갈니'로 적지 않고 '가니'로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경우이다. ② '귀머거리, 끄트머리'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귀먹어리, 끝으머리'로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경우이다. ③ '일일이, 곳곳이'를 소리대로 적으면 '일리리, 곧꼬시'가 된다. 따라서 '일일이, 곳곳이'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⑤ '얽히고설키다'에서 '얽히고'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경우이고, '설키다'는 소리대로 적은 경우이므로 ㉠과 ㉡이 모두 섞여 있는 것이다.

11 '커녕'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② '채'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④ '겸'은 두 말을 이어 주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⑤ 숫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쓰고, 단위를 나타내는 '원'은 띄어 쓴다.

12 '도매가격(都賣價格)'과 '도맷(都賣)값'은 둘 다 합성 명사이다(ⓐ). 그런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전자는 '한자어 + 한자어'이고 후자는 '한자어 + 고유어'라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두 단어 모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의 사이시옷의 표기가 갈리는 1가지 조건은 ⓑ이다.

오답 해설 ② '전세방(傳貰房)'과 '아랫방(房)'은 둘 다 합성 명사이다(ⓐ). 그런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전자는 '한자어 + 한자어'이고 후자는 '고유어 + 한자어'라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두 단어 모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의 사이시옷의 표기가 갈리는 1가지 조건은 ⓑ이다. ③ '버섯국'과 '조갯국'은 둘 다 합성 명사이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둘 다 '고유어 + 고유어'이다(ⓑ). 그런데 전자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후자는 모음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두 단어 모두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의 사이시옷의 표기가 갈리는 1가지 조건은 ⓒ이다. ④ '인사(人事)말'과 '존댓(尊待)말'은 둘 다 합성 명사이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한자어 + 고유어'이다(ⓑ). 또한, 두 단어 모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존댓말'은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남에 비해 '인사말'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의 사이시옷의 표기가 갈리는 1가지 조건은 ⓓ이다. ⑤ '나무껍질'과 '나뭇가지'는 둘 다 합성 명사이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고유어 + 고유어'이다(ⓑ). 또한, 두 단어 모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나뭇가지'는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뀜에 비해 '나무껍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의 사이시옷의 표기가 갈리는 1가지 조건은 ⓓ이다.

13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에서 '책이요'에 쓰인 '-요'는 연결형이므로 [붙임 3]에 따라 '책이오'가 아닌 '책이요'로 적는 것이 맞지만, '저것은 붓이요.'에 쓰인 어미 '-오'는 종결형이므로 [붙임 2]에 따라 '붓이요'가 아닌 '붓이오'로 표기해야 한다.

14 '덤벼들어 보아라'에서 본용언인 '덤벼들다'는 '덤비다'와 '들다' 두 개의 동사가 결합한 합성 동사이므로 뒤에 오는 보조 용언 '보아라'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15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 봐.'에서의 '-든지'는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로 쓰였기 때문에 제56항 2에 따라 '무엇이든지'로 쓴다.

오답 해설 ① 제56항 1에 따라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 '-던'을 사용하여 '깊든 물이 얕아졌다.'는 '깊던 물이 얕아졌다.'로 수정해야 한다. ② 제56항 1에 따라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 '-던'을 사용하여 '그 사람 말 잘하든데!'는 '그 사람 말 잘하던데!'로 수정해야 한다. ③ 제56항 1에 따라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 '-던'을 사용하여 '얼마나 깜짝 놀랐든지 몰라.'는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몰라.'로 수정해야 한다. ④ 제56항 2에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다의 '-든지'를 사용하여 '산으로 가던지 바다로 가던지 해.'는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해.'로 수정해야 한다.

16 '무덤'은 어근 '묻-'과 접미사 '-엄'이 결합한 파생어이지만,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경우이고 '지붕' 또한 명사 '집'에 접미사 '-웅'이 결합한 파생어로, 어근을 밝혀 적지 않은 경우이다. '뒤뜰'은 명사 '뒤'와 명사 '뜰'이 결합한 합성어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경우이고 '쌀알'은 명사 '쌀'과 명사 '알'이 결합한 합성어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경우이다.

오답 해설 '길이'는 파생어이나 어근 '길-'의 원형이 유지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중'은 파생어로, 어근의 원형인 '맞-'을 밝혀 적지 않은 경우(㉠)이다. 한편 '무덤'과 '지붕'은 파생어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가 나는 합성어로 '혼삿길'로 표기해야 한다. ⓑ는 끝소리가 'ㄹ'인 말이 딴 말과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으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사흗날'로 표기해야 한다. ⓒ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가 나는 합성어로 '봇둑'으로 표기해야 한다. ⓓ는 끝소리가 'ㄹ'인 말이 딴 말과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으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반짇고리'로 표기해야 한다. ⓔ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가 나는 합성어로 '뱃가죽'으로 표기해야 한다. ⓕ는 끝소리가 'ㄹ'인 말이 딴 말과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으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섣달'로 표기해야 한다.

18 '옷소매'는 '옷 + 소매'의 합성어로, [온쏘매]로 소리 나나, 어법에 맞게 적는다(㉣). '밥알'은 '밥 + 알'의 합성어로, [바발]로 소리 나나, 어법에 맞게 적는다(㉣).

오답 해설 ① '이파리'는 '잎 + -아리'의 파생어로, [이파리]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그러나 '얼음'은 '얼- + -음'의 파생어로, [어름]으로 소리 나나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② '마소'는 '말 + 소'의 합성어로 [마소]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그러나 '낮잠'은 '낮 + 잠'의 합성어로 [낟짬]으로 소리 나나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③ '웃음'은 '웃- + -음'의 파생어로, [우슴]으로 소리 나나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그러나 '바가지'는 '박 + -아지'의 파생어로, [바가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⑤ '꿈'은 '꾸- + -ㅁ'의 파생어로, [꿈]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자(㉠), 어법에 맞게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그러나 '사랑니'는 '사랑 + 이'로 [사랑니]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19 '국수'는 된소리되기 규칙에 따라 [국쑤]로 발음하는 까닭 있는 된소리이다. 한글 맞춤법 제5항에서는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의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까닭 있는 된소리인 '국수'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끔'은 제5항에 따라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기 때문에 표기에 소리를 반영해서 된소리로 적은 것이다. ② 예사소리인 파열음은 'ㄱ, ㄷ, ㅂ'이다. 'ㄱ, ㄷ, ㅂ' 뒤에서는 'ㄱ, ㄷ, ㅂ, ㅈ'이 반드시 된소리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은 예외없이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③ '딱닥'으로 적는다고 해도 표준 발음이 바뀌는지는 이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다. ⑤ '잔뜩'은 용언이 아니며,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의 예이다.

20 '떠내려가'는 '뜨다 + 내려가다'로 분석할 수 있는 합성 동사이다. 합성 동사 뒤에 오는 보조 용언 '버렸다'는 띄어 써야 하므로 '떠내려가 버렸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올듯하다'는 본용언 + 보조 용언으로 '올 듯하다'로 띄어 써야 하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② '꺼져갔다'는 본용언 + 보조 용언으로 '꺼져 갔다'로 띄어 써야 하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④ '잘하는 척했다'는 관형어 + 의존 명사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하므로 '잘하는 척했다'로 띄어 써야 한다. ⑤ '도와드리다'는 '돕다 + 드리다'로 분석되는 합성 동사로,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21 '서울'이라는 체언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과 후배가 선배에게 대답하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ㄴ의 밑줄 친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ㄴ의 밑줄 친 '요'를 연결형의 '이요'로 바꾸어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ㄱ의 '이오'는 [이요]로 발음할 수 있다. ③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하오체의 종결 어미이므로, ㄷ의 밑줄 친 문장은 하오체 문장에 해당한다. ④ ㄹ에는 하오체가 쓰이고 있어, ㄹ의 밑줄 친 '요'는 '-이오'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영화') 뒤에서 줄어 쓰인 형태에 해당한다. ⑤ ㅁ에는 해요체가 쓰이고 있어, ㅁ의 밑줄 친 '요'는 둘 다 체언과 결합하여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74~175쪽

01 하나의 말은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다. 02 (1) 실패율, 회전율 (2)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한자음 '렬, 률'은 '열, 률'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다만' 규정에 따라 각각 실패율과 회전율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03 법석,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기 04 (1) 그 책을 다 읽는 데 세 시간이 걸렸다. (2) 까다롭게 검사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우리는 청군 대 백군으로 나뉘어 운동회를 했다. (4) 이충무공은 임진왜란에서 수군을 이끌고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01 '꽃'은 어떤 조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표기되는데 이처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적으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은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즉 '꽃, 꼰, 꼳'보다는 '꽃' 하나로 일관되게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꽃'은 [꼬ㅊ], [꼰], [꼳]의 세 가지로 소리 나는 형태소이지만 그 본모양에 따라 '꽃' 한 가지로 적고, [꼬치], [꼰만], [꼳꽈]도 '꽃이, 꽃만, 꽃과'로 적게 된다.

04 (1) '읽는데'의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읽는 데'로 띄어 써야 한다. '세시간'의 '시간'은 하루의 24분의 1이 되는 동안을 세는 단위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따라 '세 시간'으로 띄어 써야 한다. 다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하여 '3 시간'(원칙)과 '3시간'(허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
(2) '만큼'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검사하는 만큼'으로 띄어 써야 한다.
(3) '대'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한글 맞춤법 제45항에 따라 '청군 대 백군'으로 띄어 써야 한다.
(4) 한글 맞춤법 제48항에 따르면 성과 호는 붙여 쓰므로, '이순신'의 성과 시호를 함께 이르는 말인 '이 충무공'은 '이충무공'으로 붙여 써야 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76~17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3 '한글 맞춤법'은 발음대로 표기하되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어야 한다.

06 '지킴이'는 '지키다'의 명사형 '지킴'에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이'가 결합한 말로, 원형을 밝혀 '지킴이'라고 써야 한다.

08 '안성맞춤'은 '요구하거나 생각한 대로 잘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때 '마춤'이 아니라 '맞춤'으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다.

10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어야 하므로, '깨끗지'로 표기해야 한다.

12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뜻이나 대세를) 그대로 따르다.'의 뜻을 갖는 단어는 '좇다'이므로, '좇아'로 표기해야 한다.

15 '커녕'은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사과하기는커녕'이 적절한 표기이다.

18 보조 용언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 경우는 띄어 써야 한다.

19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따라서 '올 듯하다'로 표기해야 하고, '올듯하다'도 허용한다.

(3) 매체와 함께하는 생활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80~183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② 05 ② 06 ③ 07 ⑤ 08 ①
09 ③ 10 ⑤ 11 ③ 12 ④

01 문자는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글쓴이와 독자가 분리된 상황에서도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다수가 동시에 같은 시청각 정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영상 매체이다.

오답 해설 ① 인간은 매체를 사용하여 타인과 소통한다. ② 시청각 중심의 영상 매체는 내용을 대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③ 현대 사회는 디지털 매체 환경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④ 구술 매체는 내용이 온전히 전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02 디지털 매체는 상호 작용성(ㄱ), 복합양식성(ㄴ), 하이퍼텍스트(ㄹ) 등의 특징을 지닌다.

오답 해설 ㄷ. 영상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03 〈보기〉에 제시된 매체는 영상 매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가)는 구술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② (나)는 문자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④, ⑤ (라)~(마)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04 ㉠, ㉡ 모두 인터넷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타인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1인 미디어 방송의 확대로 폭넓은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양질의 콘텐츠인지는 알 수 없다. ③ 구술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④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디지털 매체는 구술, 문자, 영상 매체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지닌다. 쓰기와 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문자 매체이다.

05 디지털 매체는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위계적 관계에서 소통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디지털 매체는 실시간 대화를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 ③, ④ SNS를 통해 자유로운 소통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 맺기가 수월해졌다. ⑤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 폭넓은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06 Ⓐ는 문자 매체이고, Ⓑ는 디지털 매체이다. 문자 매체는 쓰기와 읽기를 중심으로 하며, 구술 매체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디지털 매체는 음성, 문자, 동영상 등을 혼합하는 복합양식성과 이용자가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호 작용성을 특징으로 한다.

오답 해설 ① 문자 매체는 상호 작용성이 약하며, 디지털 매체는 기록보다는 정보의 빠른 유통과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② 문자 매체는 구술 매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려우며, 디지털 매체는 정보 보존보다는 실시간 유통과 쌍방향 소통이 두드러진다. ④ 문자 매체는 읽기 능력에 따라 이해의 차이가 생기며, 시청각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⑤ 다수가 동시에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대중 매체인 영상 매체의 특성이며, 영상 매체는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07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중 매체인 영상 매체로 인해 다수가 특정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나타났다.

오답 해설 ① 디지털 매체는 구술, 문자, 영상 매체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② 인쇄술의 발달은 지식의 대중화를 이루게 했다. ③ 무선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소통 방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④ 기존의 대중 매체인 문자나 영상은 생산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었다.

08 문자 매체는 정보 제공에 많은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일반인들이 생산자로 참여하기는 어려우며(ㄱ), 생산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으로 소통한다(ㄴ).

오답 해설 ㄷ. 영상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문자 매체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 내용의 이해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ㄹ. 디지털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문자 매체는 정보 전달이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09 구술 매체는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하여 상황과 맥락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이나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 상황과 맥락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용을 온전히 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오답 해설 ① 매체에 따라 소통 방식과 문화가 변화하긴 했으나 이것이 구술 매체의 한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구술 매체에서 지식과 정보의 기록보다 유통에 집중했는지는 알 수 없다. ④ 구전되어 전해지는 경우보다 구전되기 힘든 경우가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⑤ 적극적으로 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서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10 문자 매체는 쓰기와 읽기를 통해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한다. 영상 매체는 시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오답 해설 ① 문자 매체는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적합하며, 영상 매체는 정보를 기록하기보다는 전달과 수용에 중점을 둔다. ② 문자 매체는 글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시청각적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영상 매체는 시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는 특성이 있다. ③ 영상 매체가 대중 매체로 적합하다는 특성이 있으며, 문자 매체는 개인적인 읽기와 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④ 문자 매체는 글쓴이와 독자가 상황과 맥락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탈맥락적 소통이 이루어진다. 영상 매체는 시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보편적인 이해를 돕는다.

11 디지털 매체의 상호 작용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정보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해석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문화를 생산하고 창조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문자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② 구술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④ 디지털 매체의 복합양식성에 대한 설명으로, 상호 작용성으로 인해 소통 방식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인쇄술의 발달이 쓰기와 읽기 중심의 소통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12 디지털 매체는 복합양식성의 특징을 지녔으나 〈보기〉에는 시청각 이미지, 즉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하이퍼텍스트를 사용해 관련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뉴스의 핵심 내용을 제목으로 제시하여 주요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③ 댓글을 달아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⑤ 공감을 표현하거나 공유하는 기능을 통해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84~187쪽

01 ⑤ 02 ① 03 ⑤ 04 ③ 05 ③ 06 ① 07 ③ 08 ③
09 ⑤ 10 ①

01 디지털 매체의 상호 작용성은 이용자가 지식과 정보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역할을 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주된 매체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과 문화도 변화해 왔다. ② 인쇄술의 발달로 책이 대량 유통되면서 지식의 대중화를 이루게 되었다. ③ 소통 기술의 변화는 소통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기술의 진화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④ 하이퍼텍스트는 다른 문서나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텍스트로,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2 ㉮는 구술 매체를 통한 소통을, ㉯는 문자 매체를 통한 소통을 보여 주고 있다. 시공간적 상황이 공유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 아니라 ㉯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②, ③, ④, ⑤ 구술 매체는 지식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문자 매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다.

03 구술 매체는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하여 상황과 맥락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이나 공간의 사람에게 이를 온전히 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불완전하나마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구술 매체는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하여 상황 맥락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와 공간의 사람과는 소통이 어렵다. ③, ④ 구술 매체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의 주된 매체로, 말하기의 특성상 내용의 전달과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04 디지털 매체는 복합양식성을 드러내는데 이는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탈상황적, 탈맥락적 소통은 문자 매체를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며 이를 막아서 글쓴이와 독자의 상호 작용을 이끈다고 볼 수 없다. ② 글 중심의 문자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④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독자가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것이 다수의 독자에게 동시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디지털 매체는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기존 대중매체와 달리 상호 작용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용자는 지식과 정보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의 역할을 겸할 수 있게 되었다.

05 〈보기〉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으로, 문자 매체를 활용해 소통하고 있으나 지식과 정보를 구체화하거나 기록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대화방에서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② 'ㅎㅎㅎ', '쵝오'나 'ㅎㅐㅎㅐ' 등의 표현을 통해 독특함이나 재미를 드러내고 있다. ④ 영상 링크를 공유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⑤ 대화 참여자들이 의견을 나누며 쌍방향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06 (마)에서는 디지털 매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만, 단점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마)에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나 1인 미디어 방송 등의 소통 방식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③ 〈보기〉에서는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⑤ 둘 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지식의 공유가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07 문자 매체는 영상 매체와 달리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 내용 이해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오답 해설 ① 매체에 따라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과 문화도 달라진다. ② 탈상황적, 탈맥락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다. ④ 구술 매체는 시공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준 것은 문자 매체이다. ⑤ 디지털 매체는 다른 매체들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08 〈보기〉에 사진 자료는 제시되었으나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댓글을 달아 이용자들이 감상이나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고 있다. ② 기형도 문학관의 엽서 쓰기 체험을 소개하는 글을 함께 게시하고 있다. ④ '블로그로 바로 가기'를 하이퍼텍스트로 활용하고 있다. ⑤ 오른쪽 화면에서 해시태그를 붙여 관련 내용을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다.

09 인쇄술의 발달로 책이 대량으로 유통되어 지식의 기록, 축적, 유통이 수월해졌고, 지식의 대중화를 이루게 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④ 디지털 매체의 소통 방식에 해당한다. ② 탈상황적, 탈맥락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문자 매체이며 인쇄술의 발달로 탈상황적, 탈맥락적 소통이 더욱 수월해졌다. ③ 구술 매체를 통한 소통은 말하기와 듣기를 중심으로 한다.

10 〈보기〉는 실시간 1인 미디어 방송으로, 이용자들이 댓글을 통해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댓글에서는 '넘넘', '꼬옥' 등의 표현으로 생생하게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맞춤법에는 어긋나므로 문자 매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③ 이용자가 서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인지는 알 수 없다. ④ 제시된 1인 미디어 방송은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사회적 관계 맺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보기〉에는 하이퍼텍스트 기능이 나타나 있지 않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88쪽

01 구술 매체는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하여 상황과 맥락을 공유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이나 공간의 사람에게 내용을 온전히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02** 인쇄술의 발달로 책이 대량으로 유통되어 지식의 기록, 축적, 유통이 수월해졌고, 지식의 대중화를 이루게 되었다.

01 구술 매체인 말하기는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기 때문에 지식이나 정보를 온전히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02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지식의 기록이나 유통이 수월해지고, 지식의 대중화를 이루게 되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8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4 시공간적 제약을 가진 구술 매체의 한계를 문자 매체가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07 하이퍼텍스트는 디지털 매체의 특징이다.

08 디지털 매체의 이용자들은 정보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해석하며 주체적으로 문화를 생산하고 창조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5 디지털 시대, 우리의 생활

(1)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매체 비평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94~199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① 05 ① 06 ⑤ 07 ④ 08 ④
09 ④ 10 ② 11 ④ 12 ④ 13 ⑤ 14 ③ 15 ②

01 주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은 내용적 측면의 비평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매체 비평 자료는 책, 신문, 영화, 웹툰, 광고 등의 매체 자료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② 매체 비평 자료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평해야 한다. ④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매체 자료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⑤ 매체 자료에 드러나는 관점의 적절성, 주제의 적합성, 제재에 대한 평가 등은 내용적 측면에서의 매체 자료 비평에 해당한다.

02 ㉠은 웹툰의 장점과 관련된 것으로 상상력, 장르, 소재 등의 한계가 없다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② 웹툰은 영화, 드라마와 달리 소리를 직접 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③, ④ 웹툰은 배경 음악 등을 삽입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이긴 하나 청각과 같은 감각이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매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웹툰에 독자에게 익숙한 장면이나 소리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다.

03 노랫말을 일반 대사와 구별할 수 있게 서체를 다르게 하고 노랫말 사이에 물결표를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어문 규정에는 맞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② 웹툰 「정년이」는 낯선 소리를 한 편의 국극처럼, 즉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결합해 소리를 만들어 내어 웹툰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③, ⑤ 정년이가 노래를 하는 장면이나 그 전의 장면 등에서 다양한 동작과 앵글, 듣는 사람들의 표정 등을 통해 소리를 시각화해 보여 주고 있다.

04 정년이 소리를 하며 내뻗은 손동작과 얼굴을 집중적으로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강조하는 것이므로 ㉣에 들어갈 기법으로는 클로즈업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롱샷은 상황을 넓게 보여 주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하이 앵글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로우 앵글은 권위나 위엄을 표현하는 방식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오버 더 숄더샷은 상대방의 반응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5 웹툰 「정년이」에서는 배우와 공연 캐릭터를 동시에 겹쳐 표현하는 식의 인물 간 오버랩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영화나 드라마의 오버랩 기법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③, ④, ⑤ 웹툰 「정년이」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6 여성 국극은 대중들에게 매우 생소한 장르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웹툰 「정년이」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국극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여성 국극은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창극의 일종이며, 여성이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역할을 맡는 갈래이다. ②, ③, ④ 웹툰은 무한함을 지닌 장르로 웹툰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시도들을 해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07 〈보기〉는 정년이 소리를 내뿜는 순간으로, 하이 앵글 즉, 화면을 볼 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도록 카메라를 피사체보다 높은 데에 위치하여 잡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오버랩'은 한 장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다음 장면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미디엄'은 인물의 허리나 가슴 위를 보여 주는 구도를 의미한다. ③ '클로즈업'은 피사체에 가까이 접근해 찍은 장면으로 대개 피사체를 화면 가득 포착한 장면을 지칭한다. ⑤ '로우 앵글'은 피사체보다 낮은 위치에서 촬영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08 웹툰 「정년이」는 정년이라는 인물이 중심을 잡으면서도 주변 인물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여 역동적인 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서사의 입체적 전개를 통해 무대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무대라는 공간이 지닌 한계라고 볼 수 없다. ② 한 인물의 드라마틱한 성장만이 아닌 주변 인물들과 함께 만들어 내는 이야기가 서사의 입체적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③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면 오히려 단선적인 서사가 전개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극복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웹툰 「정년이」에서 독자들은 서사의 입체적 전개를 통해 무대가 정년의 것만이 아님을 인지하게 된다.

09 여성 국극은 웹툰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소재이면서 독자에게 낯선 장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를 소재로 삼은 것은 인물들의 삶처럼 웹툰에도 한계가 없음을 증명하려는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국극을 알리거나 그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⑤ 여성이나 특정 인물에 국한해서만 비평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10 할아버지는 '군졸 1'이 가족과 나라를 위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생이라."라고 외치며 힘겨워하는 모습을 연기하는 것에 감화되어 결국 눈물을 흘린다. 이 장면은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여성의 연기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년의 숭고한 연기에 감동을 받게 되는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공연이 지루해서 심경 변화가 생긴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여성이 남성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것이 심경 변화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④ 연기가 서투르다고 생각한 부분은 없다. ⑤ 다른 관객이 울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1 주란은 오디션 결과 비중이 큰 '구슬아기' 역을 맡아 공연에서 강렬한 빛을 발산한다.

오답 해설 ① 도앵은 무대 밖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데, 작가는 도앵을 통해 독자에게 무대 상황을 해석해 주며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② 웹툰 「정년이」에는 성별, 신분, 예술 등 당대의 편견과 극복 과정이 드러나 있다. ③ 처음에 여성 국극에 대한 편견을 지닌 관객인 할아버지는 나중에 배우의 연기에 감화되어 눈물을 쏟는다. ⑤ 웹툰 「정년이」는 인물들의 다양한 역할과 반전을 통해 입체적 서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12 ㉠에서는 웹툰이 평면에 구현되는 시각 매체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를 극복한 웹툰 「정년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소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웹툰의 한계이다. ②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오버랩과 웹툰 「정년이」에서 사용한 오버랩의 방식이 다르다고는 하였으나 이를 웹툰의 한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⑤ (나)에서 제시한 무대라는 공간에 관한 설명이다.

13 정년은 처음에는 여성이 남성 역할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놀라워하고 반감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연기에 감동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성별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게 된다.

오답 해설 ① 정년은 여성이 남성 역할을 연기하는 것에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역할에 대해 감동하게 되면서 성별에 대한 편견을 깨닫고 극복한다. 그러나 정년이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남성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영서는 어머니의 고급문화에 대한 편견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그것을 극복하고자 자신만의 실력으로 인정을 받으려 한다. 영서가 클래식 성악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③ 도앵은 자신이 양반 가문 출신이어서 기생인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전해진 편견임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려 노력한다. ④ 도앵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편견이 자신에게 내면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국극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출신에 대한 편견이다.

14 '체화'는 '생각, 사상, 이론 따위가 몸에 배어서 자기 것이 됨.'이라는 의미이다.

15 이 글에서는 인물의 태도와 인물 유형을 중심으로, 〈보기〉에서는 인물을 그린 화풍을 중심으로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개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보기〉의 내용에만 해당된다. ④, ⑤ 이 글에 대한 설명이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200~203쪽

01 ① 02 ② 03 ⑤ 04 ⑤ 05 ③ 06 ④ 07 ⑤ 08 ⑤
09 ② 10 ④

01 (다)에서 도앵이 기생으로 일하며 국극을 시작했던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을 통해 도영은 기생으로 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서는 웹툰 「정년이」가 공연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대 전체를 보여 주는 장면, 클로즈업, 오버랩 효과 등 여러 연출 기법이 종합적으로 활용된다. ③ (마)에서 정년이 처음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이후에는 특정 역할을 하고 싶어서 국극을 시작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점차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라)에서 공연을 본 관객들이 감화되는 과정이 서술되며, 특히 손자 손에 이끌려 온 할아버지가 정년의 연기에 감동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공연의 감동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⑤ (다)에서 도앵, 영서 등의 내면에 자리 잡은 편견이 묘사되며, 그들이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강조된다.

02 영서는 정년을 견제만 하는 데서 탈피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고자 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때 영서와 정년의 경쟁은 상대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닌 자신의 길을 더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도앵은 독자가 국극이라는 낯선 장르를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③ 영서는 무대는 혼자 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던 인물이었으나, 점차 상대와 호흡하는 법을 알아 가는 입체적 인물이다. ④ 주란은 처음에는 주인공의 친구 정도로 인식되던 인물이었으나, 이후 국극에서 비중이 있는 배역을 맡으며 무대에서 강렬한 빛을 발산한다. 이를 통해 조연처럼 보였던 인물도 강한 힘과 반전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⑤ 영서와 주란은 모두 개성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03 정년은 처음에는 부자, 그 다음에는 '방자'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국극을 하려고 한다. 이는 처음에는 국극의 배우를 생계의 수단으로 여겼으나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존재 그 자체가 되고 싶은 열망이 생겼기 때문에 국극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정년이 하고 싶은 역할이 변했거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에 국극을 하려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②, ③ 정년은 처음에 부자가 되어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즉 생계를 위해 국극을 하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방자'라는 인물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04 웹툰 「정년이」에는 성별, 신분, 예술에 대한 편견이 드러나며 인물들은 이를 스스로 인지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또한 장면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웹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05 〈보기〉는 '오버랩'에 대한 설명으로, 웹툰 「정년이」에서는 배우가 공연 캐릭터와 혼연일체가 된 것 같은 열연을 펼칠 때 배우와 공연 캐릭터를 함께 그리는 오버랩 효과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군무를 추는 장면은 여러 컷으로 무대 분위기를 전할 뿐, 오버랩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② 정년이 일어나서 소리를 할 때는 하이 앵글로 잡은 컷이 배치된다. ④ 클로즈업이나 다양한 컷을 활용하여 공연 실황을 촬영한 것처럼 표현할 뿐 오버랩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한 화면에 정년과 사람들을 그려 표현할 뿐 오버랩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06 노랫말을 일반 대사와 구별하기 위해 다른 서체를 사용하고, 물결표(~) 등을 삽입하여 독자가 소리의 리듬감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청각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일부 웹툰에서는 배경 음악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웹툰 「정년이」는 이러한 방식만으로 청각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각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소리를 표현하려는 점이 특징이다. ② 배우와 공연 캐릭터를 오버랩하여 하나가 된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이것이 청각적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공연 장면에서는 하이 앵글, 클로즈업, 전체 무대 연출 등의 다양한 시각적 기법을 활용하여 입체감을 높인다. 하지만 이것이 청각적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웹툰 「정년이」는 여성 국극이라는 생소한 장르를 그대로 웹툰에 담아 독자가 소리를 떠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적 장치를 활용한다. 하지만 전통 음악을 대중음악으로 각색하지는 않았다.

07 (바)에서 글쓴이는 한계에 부딪히는 정년이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를 그리는 웹툰에도 한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열망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여성 국극이라는 장르에 대해 작가의 열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웹툰이 다루기 어려운 소재를 다루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작가의 삶을 투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주인공 정년의 열망이 드러난 작품이긴 하나, (바)에서는 한계가 없음을 증명하려는 열망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④ 독자층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08 하이 앵글로 잡은 컷을 다른 칸보다 길게 하려는 생각은 웹툰이 하단을 무한하게 이어 나갈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관련된다.

오답 해설 ① 주인공과 주변 인물을 개성 있게 드러내는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웹툰의 특징과 관련이 없다. ② 낯선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의 특징과 거리가 멀다. ③ 웹툰 「정년이」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하지 않은 오버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④ 등장인물 중 '도앵'의 기능적 역할과 관련된 설명이다.

09 〈보기〉는 이 글과 달리 「정년이」에 사용된 색과 선을 중심으로 비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는 다른 웹툰과 웹툰 「정년이」의 화풍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③ 이 글은 〈보기〉와 달리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하며 웹툰의 장점인 무한함을 연결하고 있다.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웹툰 「정년이」를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비평하고 있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긍정적 관점에서 웹툰 「정년이」를 비평하고 있다.

10 영서는 어머니의 편견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나 이를 실력으로 극복하고 당당히 인정받고자 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편견의 말들이 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영서는 처음에는 정년을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나중에는 경쟁자로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길을 넓히는 인물이다. ⑤ 영서는 처음에는 무대는 혼자 서는 거라는 생각을 지녔으나 점차 상대와 호흡하는 법을 알아 가는 인물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204쪽

01 평면에 구현되는 시각 매체로서 노래, 춤, 연기 등이 어우러지는 국극단 공연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힘든 웹툰의 한계를 의미한다. **02** 국극단의 공연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군무를 추는 장면은 여러 컷으로 보여 주어 무대 분위기를 드러내고, 노래와 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카메라로 공연 실황을 촬영한 것처럼 보여 주는 등 다양한 기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01 웹툰은 장면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02 웹툰 「정년이」는 다양한 기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해 국극단의 공연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20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2 주제의 적합성, 제재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평가는 내용적 측면에 해당한다.

04 웹툰 「정년이」는 다른 매체에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여성 국극을 소재로 끌고 왔으며 이는 대중들에게 생소한 장르이다.

09 "왜 국극을 하려 하느냐?"라는 질문에 정년은 처음에 부자가 되고 싶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국극을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2) 복합양식의 글 읽기와 쓰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208~211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① **05** ④ **06** ⑤ **07** ③ **08** ②
09 ③ **10** ② **11** ④

01 이 글은 기사문으로, 기사문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더불어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가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기사문에는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표제가 있다. ② 이 글은 인터넷 기사문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독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글이다. ③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기사문은 독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④ 이 글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므로 시각, 청각 등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02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되는 양보다 소각되거나 버려지는 양이 많고, 이로 인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음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지는 알 수 없으며, 이를 인과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표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독약'에 빗대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② 기사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을 삽입하여 바다에 버려지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프탈레이트'의 예를 들어 밝히고 있다. ④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03 이 글에서 글쓴이는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이다. ③ 이 글에서 플라스틱의 유용성을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이 글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기는 하나, 미세 플라스틱의 생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의 독성 물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미세 플라스틱이 독성 물질을 빨아들일 수 없도록 해양 환경을 정화하자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04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그래프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은 복합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바다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연간 1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언급되었을 뿐, 일반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 오염 정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되는 양보다 소각되거나 버려지는 양이 많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⑤ 미세 플라스틱은 각종 화합 물질이 첨가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체로도 해양 생물이나 인간에게 유해하다.

05 글쓴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어 일으키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세계자연기금에서 발표한 동영상을 제시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글쓴이는 동영상을 제시하여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③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보고서 그래프를 인용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요인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요인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06 인간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약 5g 정도이며 대부분은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였으나, 예측량보다 많은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2050년이 되면 전체 물고기의 무게보다 바닷속 플라스틱의 무게가 더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② 섭취된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상위 포식자로 이동하며 먹이 사슬의 모든 단계에 있는 생물들의 몸속에 잔류한다. ③ 해양 생물이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거쳐 결국 인간에게 다시 돌아온다. ④ 인간이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과 나노 플라스틱은 몸 안에 잔류하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07 이 글의 글쓴이는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알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글쓴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은 미세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나 법적 제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임을 밝히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내분비 계통을 교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08 이 글에 쓰인 대부분의 자료에 출처가 표기되어 있으나 2018년 야생 병코돌고래의 소변에서 한 종류 이상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의 출처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동영상, 그래프, 사진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③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문답의 형식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 인간이 일주일 동안 먹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신용 카드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 이 글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과정'이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09 기사문에 사용된 복합양식 자료 중 해양 쓰레기 형성의 주요 요인을 나타내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복합양식의 자료를 활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② 이 글에 제시된 복합양식 자료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④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과정에 대한 그림과,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에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⑤ 해변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사진이나 2050년이 되면 전체 물고기의 무게보다 바닷속 플라스틱의 무게가 더 나갈 것이라는 예측 등은 출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공동 보고서의 주제는 합성 섬유의 미세 플라스틱 배출의 문제점과 해결책이고, 공동 보고서의 목적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공동 보고서의 주제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으로 볼 수 없다. ③ 공동 보고서의 목적이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합성 섬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④ 공동 보고서의 주제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위험성으로 볼 수 없다. ⑤ 공동 보고서의 주제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으로 볼 수 없다.

1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는 동아리 부원들이 직접 실시한 조사의 결과로 신뢰할 만하다. 단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라고 해서 전문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자료 1〉은 자료 조사 결과에 제시하여 합성 섬유를 세탁할 때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② 〈자료 2〉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문가의 견해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에 제시할 수 있다. ③ 〈자료 3〉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로 이를 보고서에 제시하면 합성 섬유로 된 옷을 모르고 구매하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⑤ 〈자료 4〉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요인 중 합성 섬유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나타내므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212~215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② 05 ⑤ 06 ③ 07 ⑤ 08 ⑤
09 ④ 10 ④ 11 ① 12 ⑤

01 기사문을 쓸 때는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과장하여 표현하지 않는 등의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쓴 기사문이다. ② 인터넷 기사문은 일반적인 글과 달리 디지털 매체를 통해 독자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③ 디지털 매체에 수록하는 글은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복합양식을 활용해 글을 쓰면 많은 양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02 기사문의 표제를 통해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 과학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③ 기사문에 삽입된 영상은 출처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④ 이 글에서 독자의 배경지식을 환기하는 부분은 없다. 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해양 생태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부분은 없다.

03 글쓴이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알려 독자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설득하고자 이 글을 썼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을 쓴 의도가 인간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글쓴이가 전 세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제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을 말하고자 했다고는 볼 수 없다. ⑤ 글쓴이의 의도는 인간이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04 해변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사진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변과 해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을 통해서 인간의 비도덕성을 비판하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요인의 비중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동영상을 삽입하여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요인 중 합성 섬유가 가장 많음을 구체적 수치를 통해 제시하여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⑤ 버려진 플라스틱이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 주어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에 인간이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05 미세 플라스틱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화학 물질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화학 물질이 첨가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을 읽은 독자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②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이 합성 섬유임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인간에게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과 나노 플라스틱이 유발하는 질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2050년 이후 바닷속 플라스틱의 무게가 물고기의 무게보다 더 나갈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6 미세 플라스틱을 '화학 물질의 혼합물'이라 표현한 것은 미세 플라스틱에 물속의 각종 오염 물질이 달라붙어 있음을 의미한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 물질이 첨가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미세 플라스틱을 '독약'에 빗대고 있다. ② 해양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④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들을 거쳐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문답의 형식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07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모둠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도출하여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을 정해야 한다. 모둠의 장이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공동 보고서의 주제는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동 보고서의 주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럿이 함께 조사할 수 있는 주제인지, 공동의 목적에 맞는 주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④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제인지 고려해야 한다.

08 〈자료 4〉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합성 섬유의 비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항목에 배치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자료 1〉은 '자료 조사 결과' 항목에 배치해야 한다. ② 〈자료 1〉은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여 확인한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다. ③ 〈자료 2〉는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로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에 배치해야 한다. ④ 〈자료 3〉은 학생들이 평소 옷의 소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합성 섬유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는 사실 또한 모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09 자료 조사 결과 합성 섬유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것은 학생들과 일반인들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자료 조사 결과를 보면 합성 섬유의 성분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자료 조사 결과 천연 섬유가 포함된 의류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자료를 통해 세탁 시간과 물의 온도도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연 섬유가 섞인 의류를 구입하고, 낮은 온도의 물로 짧은 시간 의류를 세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수집한 자료 중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료는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며 자료를 변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공동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는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 ② 자료를 수집할 때는 수집한 자료의 내용이 왜곡되었거나 거짓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수집한 자료는 보고서의 주제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수집한 자료들을 공동 보고서의 목차에 맞게 배치한 후 추가로 수집할 자료를 결정해야 한다.

11 공동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는 출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자료를 수집할 때는 유명인보다는 조사 대상과 관련된 전문가를 인터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③ 관찰 조사를 할 때는 대상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정보를 얻는 자세가 필요하다. ④ 문헌 조사 역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설문 조사에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12 학생들이 합성 섬유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무지한 것이지 무관심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가정 교육 여부는 〈보기〉의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설문 조사 항목 (1)을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옷을 사거나 입을 때 소재를 확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설문 조사 항목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이 합성 섬유 이용과 미세 플라스틱 배출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미세 플라스틱 배출 요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④ 설문 조사 항목 (2)의 기록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216쪽

01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02** • 주제: 합성 섬유 미세 플라스틱 배출의 문제점과 해결책 • 목적: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01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글쓴이의 관점이다.

02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한 환경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를 통해 공동 보고서의 주제는 '합성 섬유 미세 플라스틱 배출의 문제점과 해결책'이고 목적은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임을 알 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21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3 기사문에 글쓴이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글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09 공동 보고서를 쓸 때에는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의 양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10 복합양식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글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복합양식으로 글의 내용을 전달하면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최종 점검 모의고사

제 1 회

본문 220~225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④	06 ⑤	07 ⑤	08 ④
09 ④	10 ④	11 ①	12 ③	13 ③	14 ⑤	15 ④	16 ⑤
17 ④	18 ⑤	19 ①	20 ③	21 ③	22 ④	23 ④	

01 이 글은 별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세 가지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현대 사회의 특징을 언급하며 화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② 별점 제도가 발생한 배경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③ 집단 지성과 별점 제도의 개념을 언급하였으나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④ 별점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한계점도 언급하지 않았다.

02 별점 참여자는 전체 이용자를 대표하는 그룹에서 뽑은 무작위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사람의 평가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별점을 조작하거나 감정적으로 별점을 주는 행위로 인해 판매자나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② 별점 제도는 유용하나 악용되면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④ 별점 제도가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⑤ 판매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하고 있다.

03 유전자 연구 논문의 학문적 가치는 별점이라는 단순한 평가 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과학적 기여도는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평가되어야 하므로, 별점 제도의 활용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별점 제도가 기업 내 평가 시스템에 활용된 사례로, 직무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점에서 적절하다. ③ 별점 평가를 통해 도서의 인기도를 반영하고 추천 도서를 선정하는 사례이므로 적절하다. ④ 별점 제도가 맛집 평가 및 추천에 사용된 것은 별점 제도의 활용 사례로 적절하다. ⑤ 별점을 통해 영화관에서 상영된 최고의 영화를 선정하는 것은 별점 제도의 활용 사례로 적절하다.

04 〈그림 2〉는 엠(M)자형 분포 곡선을 보이는 음식점의 평점 분포이다. 이 분포에 따르면 이 음식점은 호불호가 뚜렷한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비록 양극단에 치우쳐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② 〈그림 1〉은 정상 분포 곡선으로 중간값에 가장 많은 이용자가 있어 중간값이 유의미하다. ③ 〈그림 2〉는 엠(M)자형 분포 곡선으로 중간값 근처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특성을 지닌다. ⑤ ㉠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05 익명성은 평가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지만, 허위 악성 평가를 조장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허위 악성 평가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용 내역 인증은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만 평가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허위 평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적절하다. ② 별점 작성 이력을 통해 별점 작성자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관리하면, 의도적인 악성 평가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허위 평가를 줄이는 데 적절하다. ③ 감정적이고 부정확한 평가를 필터링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술은 악성 평가를 줄이는 데 유용하며, 별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허위 악성 평가를 줄이는 기술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들이 직접 악성 평가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면, 문제 해결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허위 평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허위 악성 평가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06 이 글은 집단 지성의 문제점을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와 논리적 분석을 통해 별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상의 예시를 통해 별점 평균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② 별점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③ 별점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며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④ 배달 플랫폼 조사 결과를 들어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07 이 글은 별점 제도를 중심으로 집단 지성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논의하며, 소상공인 조사 사례를 들어 실제 피해 규모를 언급함으로써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짜 뉴스의 문제점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나, 이 글의 주제는 별점 제도의 장단점이며, 가짜 뉴스와의 비교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② 별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고 장점도 설명하고 있다. ③ 사회적 독서 활동과 별점 제도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③ 사회적 독서 활동과 별점 제도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별점 제도의 장점만을 강조하기보다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논의하며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08 서연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기는 하나, 특정 대화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부여하여 대화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민수와 서연이 별점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느낀 점을 공유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 ②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며 협력적으로 대화를 이어 가고 있다. ③ 서연이 독서 일지 작성과 같은 구체적 행동 계획을 제안하여 대화가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⑤ 서연과 세정이 의견을 정리하고 새로운 논의 주제를 제안하며 대화를 체계적으로 이끌고 있다.

09 (가)에서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면 지성적으로 보이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이나 그것은 인간의 지성을 흉내 내는 수준으로, 인간의 감정을 지니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 제시된 견해로 볼 수 없다. ② 인공지능은 인간이 인터넷 공간에 쌓아 놓은 데이터를 모아 원하는 결과를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지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③, ⑤ (가)에서 언급되고 있는 견해가 아니다.

10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반성적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 지성(㉡)이다.

오답 해설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집단적으로 쌓인 ㉠의 일부를 모방하는 수준이다. ② ㉠은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으로, 인지적 차원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을 흉내 낸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은 반성과 투영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11 ㉮는 신경 세포들 사이의 결합 강도가 변하는 신경 가소성이 강할수록 출력 신호의 세기가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② 입력 신호의 세기와 ㉮는 무관하다. ③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세기가 동기화되는 것은 아니다. ④, ⑤ 신경 세포들 사이의 결합 강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12 양파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지 돌기로 신호가 입력되며, 가느다란 줄기(ⓑ) 부분은 축삭 돌기로 신호가 출력된다.

13 입력 신호가 신경 세포의 시냅스를 따라 이동하면서 학습(출력)이 이루어지는데 시냅스의 결합 강도에 따라 학습 능력이 달라진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가지 돌기의 수나 임곗값,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일치성에 따라 학습 능력이 달라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④ 같은 입력이라도 시냅스의 결합 강도에 따라 출력(학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력된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 학습 능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14 학습은 시냅스 결합 강도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축삭 돌기에서 생성된 신호가 바로 기억으로 저장된다는 설명은 적절하

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달팽이와 인간 모두 신경 가소성에 기반한 학습 원리는 동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자전거 타기와 같은 기술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고 동작이 자동화되므로 학습의 사례로 적합하다. ③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가 강화된다는 원리는 글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④ 신경 가소성은 기억과 학습의 근본 원리로, 연결 강도의 변화가 중심이다.

15 인공지능은 신경 가소성의 원리를 모방하여 시냅스 결합 강도를 조정하고 학습을 반복해 더 나은 출력값을 생성한다.

오답 해설 ① 인공지능은 신경계의 일부 원리를 모델링하지만 신경계와 구조가 동일하지는 않다. ② 인공지능은 감정을 학습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며, 신경계 구조를 모델링하여 학습하는 과정만 유사하다. ③ 인공지능은 입력 데이터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하며 차별적으로 처리한다. ⑤ 학습 과정은 신경 세포의 축삭 돌기 모방보다 시냅스 결합 강도 조정에 가깝다.

16 (가)는 별점 제도의 장점(편리함, 집단 지성의 힘)과 단점(허위 악성 평가)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특정 사례보다는 일반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③ (가)는 주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어조로 서술되고 있다. ④ (가)는 별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대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7 실명 인증은 개인 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가)에서 별점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언급되지도 않았다.

오답 해설 ① 허위나 악성 평가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악의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 작성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극소수의 평가로 전체 별점이 왜곡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자의 수가 일정 기준치를 넘어야 공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추가 정보를 열람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방안은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

18 구매한 적이 없는 제품에 반복적으로 낮은 평점을 남기는 것은 악의적인 행위로 집단 지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훼손하는 부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소비자 리뷰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는 방식은 집단 지성의 힘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② 다양한 후기와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집단 지성의 긍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③ 온라인 백과사전은 전형적인 집단 지성의 사례로, 다수의 기여로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예다. ④ '좋아요'를 통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스템은 집단 지성을 활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19 (가)는 별점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이므로 별점 제도를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별점 제도 때문에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의 사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이를 더 알고자 하는 행위는 적절하다. ③ 사회적 독서 활동으로 독서 동아리 모임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반응은 적절하다. ④ 별점 제도가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의견으로 보아 집단 지성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는 반응은 적절하다. ⑤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독자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반응은 적절하다.

20 (나)는 관계론적 접근이라는 철학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논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는 실험 결과가 아니라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② 역사적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④ (나)는 감정적 어조가 아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어조로 서술되어 있다. ⑤ (나)에 법적인 논의는 다뤄지지 않았으며, 도덕적 지위와 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21 '인간과 인공지능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인공지능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과 로봇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규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인공지능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섣부른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② 인공지능에게 도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인간에게 도덕적 질문을 유발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④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인공지능과 인간의 분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⑤ 인공지능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22 (나)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는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인간과 로봇 간의 관계와 상호 작용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관계론적 접근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는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관계 맺기의 방식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② (나)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무조건 배제하지도 윤리적 문제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③ (나)에서는 로봇과 가축, 반려동물의 관계를 비교하며, 로봇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⑤ (나)에서는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관계와 상호 작용이 도덕적 지위 부여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23 로봇 청소기가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과 로봇의 관계 맺기가 아니라 로봇의 단순한 작업 수행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감정 로봇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가족의 역할을 하는 사례는 (나)에서 언급된 관계 맺기의 한 예이다. ② 전쟁터에서 군사 로봇이 전우처럼 동료와 협력하는 것은 인간과 로봇이 관계를 맺는 구체적 예에 해당한다. ③ 이는 (나)에 제시된 사례로, 인간과 로봇이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관계 맺기의 예에 해당한다. ⑤ 농사 로봇이 농부와 상호 작용하는 것은 인간과 로봇이 관계를 맺는 사례에 해당한다.

제2회

본문 226~233쪽

01 ④	02 ①	03 ①	04 ③	05 ③	06 ①	07 ②	08 ③
09 ④	10 ①	11 ①	12 ④	13 ④	14 ①	15 ②	16 ①
17 ④	18 ④	19 ③	20 ⑤	21 ⑤	22 ③	23 ③	24 ⑤
25 ②							

01 향가는 삼국 시대 말에 발생하여 고려 초까지 승려나 화랑 등에 의해 향유되던 노래로(ㄱ),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적는 향찰로 표기되었다(ㄷ). 또한 10구체 향가는 3단 구성을 보이며 낙구에 감탄사가 나타난다(ㄴ).

오답 해설 ㄹ. 향가는 4행으로 된 초기 향가의 형태인 4구체, 과도기적 형태의 8구체, 가장 정제된 형태의 10구체 향가로 발전하였다.

02 '가는 곳'은 화자가 아니라 죽은 누이가 간 곳, 즉 저승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② '잎'은 누이를 의미하므로 '떨어질 잎'은 누이의 죽음을 의미한다. ③ 잎을 떨어지게 만든 '이른 바람'은 누이를 일찍 죽게 만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④ '한 가지'는 같은 부모에서 난 혈육 관계를 의미한다. ⑤ 제목의 한자 뜻을 참고하면 화자가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3 10구체 향가는 '4-4-2'의 의미 단락 형식이 나타나며 낙구(마지막 2행)는 시상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가)에서 시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8~10행이 아닌 9~10행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10구체 향가는 향가라는 문학 형식이 완성된, 가장 정제된 형태로서 이후에 등장하는 시가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③ (가)의 '아아'라는 형태는 이후 (다)의 '모쳐라'와 같은 감탄사를 통해 형식상의 특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④ 10구체 향가의 '기-서-결'의 의미 단락 형식이 시조의 '초장-중장-종장'의 3장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⑤ (다)는 사설시조로 평시조인 (나)에 비해 길이가 길어진 것으로 보아 형식상의 제약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04 (나)에서는 달과 청풍을 의인화하여 자연물을 친근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으나, (다)에서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권력 구조의 비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누이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라)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서 '한 간'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다)의 종장에서는 화자를 '두터비'로 바꾸어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⑤ (라)는 3, 4, 5연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5 초려삼간 중에 자신은 한 칸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달과 청풍에 한 칸씩 맡겨 두겠다는 것으로 보아, (나)의 화자는 물욕이 없고 자연과 친화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는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의지와 다짐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십 년 동안 준비하여 고작 '초려삼간'을 지어 낸 것을 통해 화자의 욕심 없고 소박한 삶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④ '두험'은 부패한 지방 관리가 백성을 수탈하여 축적한 재물을 의미한다. ⑤ '달, 구름, 하늘, 바람' 등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의미하며, 2연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 전체 구성상 안정감과 균형감을 부여하고 있다.

06 ㄱ. (가)는 평시조, (나)는 사설시조이다. (가)와 (나)는 모두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오답 해설 ㄴ. (나)는 사설시조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성을 지닌 평시조(가)에서 변형된 형식을 지닌다. ㄷ. (가)는 평시조로 3(4)·4조의 음수율, 4음보의 규칙성을 보인다. (나)는 사설시조로 이러한 규칙성에서 벗어난다. ㄹ. 중장의 길이가 2구 이상 길어지는 것은 사설시조의 특징으로, 평시조의 특징은 아니다.

07 (가)의 화자는 자연에 은거하며 그 속에서 즐기는 소박한 삶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의 화자는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에 묻혀 여유롭게 지내는 삶에 대한 즐거움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봄의 경치를 즐기는 모습은 (다)의 화자에만 해당한다. ③ (가)와 (다)의 화자 모두 삶에 대한 회한과 무상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다)의 화자 모두 속세의 삶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인간이 지닌 본연을 회복하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가)와 (다)의 화자 모두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08 〈보기〉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는 한시이다. (나)의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중장이 길어진 형태이다.

오답 해설 ①, ② (가)의 '두터비', 〈보기〉의 '참새'는 탐관오리를, (가)의 '파리', 〈보기〉의 '홀아비'는 힘없는 백성을 의미한다. ④ (나)의 종장에서는 두터비의 말을 통해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⑤ (나)의 '두험'은 탐관오리가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의미하며 〈보기〉의 '벼'와 '기장'은 농민이 힘들게 지은 농작물을 의미한다.

Plus 〈보기〉 사리화_이제현

갈래	한시
성격	풍자적, 상징적, 현실적
주제	권력자들의 농민 수탈에 대한 비판 / 가혹한 수탈로 인한 농민의 피폐한 삶
해제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을, 참새가 백성들이 애써 지은 곡식을 쪼아 먹는 것에 빗대어 풍자함.

09 (라)는 우물 속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사나이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하고 있다. 우물 속의 자연물이 현실 속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고백적이고 차분한 어조로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② '사나이가 ~ -ㅂ니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우물 속 '사나이'를 보며 화자는 자신에 대한 미움, 연민, 그리움의 심리 상태를 보이며 이를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⑤ '우물'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10 ⓐ는 속세의 사람들에게 자연에 묻혀 사는 화자의 즐거움과 자부심을 표현한 구절이다.

오답 해설 ② ⓑ는 자연의 주인, 자연을 즐기는 사람으로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③ ⓒ는 '칼로 재단했는가, 붓으로 그려 냈는가'라는 의미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드러난다. ④ 봄기운에 흥겨운 화자의 마음을 수풀의 새에 감정 이입하여 드러내고 있다. ⑤ ⓔ에서는 설의법을 통해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11 이 글은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국문 소설이다.

오답 해설 ②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통해 주인공 성진의 득도 과정을 다루고 있다. ③ 천상 세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귀양을 오는 적강 모티프를 차용하여 성진과 팔선녀가 꿈속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 환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④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나타나며 그중 불교의 공(空)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⑤ 염정 소설로서의 재미뿐만 아니라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도 드러내고 있다.

12 양소유는 과거 부귀영화를 누린 영웅들이 지금은 죽고 사라진 것을 보며 세속적 욕망은 결국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성진은 스승인 육관 대사의 명령으로 지옥으로 추방되어 염라대왕을 만나고 있다. ② 염라대왕은 성진과 팔선녀를 인간 세상에서 환생하도록 하고 있다. ③ 환생한 양소유와 팔선녀가 인간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⑤ 양소유

는 인간 세계의 인생무상을 깨닫고 불도에 귀의하고자 다짐하고 있다.

13 ㉮에서 양소유는 자신과 처첩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도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고식지계'는 '당장 편한 것만 택하는 꾀나 방법'을 의미한다. ② '만시지탄'은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한탄'을 의미한다. ③ '주마간산'은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⑤ '화룡점정'은 '용을 그릴 때 마지막에 눈을 그려 완성시킨다는 뜻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킴을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14 ⓐ에서 염라대왕은 성진이 장차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는 팔선녀가 염라대왕 앞으로 불려 온 이유로, 맑은 세계를 더렵혔다는 이유가 드러난다. ③ ⓒ는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④ ⓓ는 양소유의 비범한 용모와 지혜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⑤ ⓔ는 유교에서 중시하는 가치인 입신양명이 드러난 부분이다.

15 〈보기〉는 고전소설의 전기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은 '전기(傳奇)'를 의미한다. ㉡은 성진이 저승문으로 들어가 지옥 성에 이르는 기이한 장면으로 전기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성진이 스승에게 절을 하는 장면으로 전기성과 관련이 없다. ③, ④, ⑤ 모두 비현실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16 양소유는 불승의 외양, 즉 흰 눈썹과 푸른 눈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보통 불승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성진의 꿈속 인물인 양소유는 꿈에서 불승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 ③ 성진은 꿈에서 깬 뒤 부귀공명을 이룬 양소유의 삶이 모두 꿈속 일이었음을 깨닫는다. ④ 양소유는 자신의 앞에 나타난 불승인 육관 대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⑤ 불승이 도술로 성진을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부분에 도술을 부린다는 것은 도교적 신선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7 ㉮는 육관 대사로, 도술을 부린다는 점에서 작품의 비현실적인 요소를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⑤ 불승은 양소유가 꿈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직면하고 궁극적으로는 불문에 귀의하여 삶의 본질을 깨닫도록 이끌고 있다. ② 육관 대사는 호접지몽 고사를 인용하여 인간 세상과 꿈의 구별이 무의미함을 일깨우고 있다. ③ 육관 대사의 도술로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18 ㉣은 '어떤 일로 인하여 생기는 재난'이라는 의미이다.

19 부귀영화와 남녀 정욕이 모두 헛된 것이라며 꿈속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성진의 생각과 관련된다. 작가는 [A]를 통해 꿈과 현실은 다르지 않으며, 꿈과 현실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⑤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고 성진과 양소유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④ 인간 세상과 꿈의 구별이 무의미하며 꿈과 현실을 구별하려는 생각조차 버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0 주인공의 이름을 통해 '속세에서 잠깐 노닐다 결국 불법을 통해 참된 본성을 깨닫는다'는 불교적 가치관을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성진은 현실과 꿈을 다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주인공의 이름이 이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세상의 부귀공명을 이루었으나 인생무상을 깨닫고 불도에 귀의하고 있으므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③ 〈보기〉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④ 입신양명은 유교 사회의 이상적 가치에 해당하므로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2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이 글은 주인공의 성장 이야기를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와 연결시켜 표현하고 있다. ③ 현재형 서술을 통해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22 작품 속에 삽입된 노래는 주인공이 즐겨 듣고 따라 부르는 대상으로 주인공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는 기능을 한다. 이 노래를 통해 인물이 처한 현실의 문제점을 짐작하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④, ⑤ 노래를 통해 더 이상 타인의 기준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인물의 심리와 의지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주인공과 채영이 함께 공유하며 감정을 나누고 있다.

23 '지(G)-그리핀'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모든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만 같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의 목소리로 공감을 받고 편안해지는 '나'의 느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모든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만 같다'고 하며 설레고 벅차면서 편안해지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⑤ '나'는 ㉠의 목소리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며 목소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4 ㉮는 ㉡의 윤곽을 이어서 그렸으나 날개를 더욱 크게 그렸으므로 윤곽이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연우는 '연우-그리핀'을 그리면서 ㉡과 달리 독수리의 날개에 사자의 몸통을 지닌 '그리핀'을 떠올린다. 이는 자신만의 고유성을 가진 크고 강한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연우는 ㉡을 보면서 낙서가 새를 그린 것임을 알게 되고 거울을 깨고 우주까지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했을 방의 전 주인을 생각한다.

25 ㉢은 채영이 불안을 해소하고 터뜨린 웃음소리이다(ㄷ). 그 웃음에 '나'도 위로를 받으면서 이를 '나 혼자만의 음악'이라고 말하고 있다(ㄴ).

오답 해설 ㄱ. '나 혼자만의 음악'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현실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자신을 이해해 주는 위로로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고 볼 수 없다. ㄹ. 채영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적 상상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위로받고 웃음을 터뜨리고 있으므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 없다.

제3회

본문 234~239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⑤	05 ③	06 ②	07 ⑤	08 ⑤
09 ③	10 ③	11 ④	12 ⑤	13 ⑤	14 ②	15 ②	16 ⑤
17 ⑤	18 ⑤	19 ⑤	20 ③	21 ⑤			

01 협상은 각자의 이익과 주장이 다를 경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서로의 요구와 양보가 가능한 지점을 찾아 합의하는 것이다. 이 글은 동아리 측과 주민 측이 소극장 대여를 두고 대안을 찾아 타협하기 위한 담화이다.

02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보와 설득을 통해 실현 가능한 타협안을 찾는 것이지 자신의 관점이나 이익을 관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협상 참여자는 협상 목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만, 구체적 국면에서는 유연성 있는 자세와 전략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협상의 진행에 따라 원안을 적절히 수정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②, ③, ⑤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의사소통으로 적절하다.

03 ⓐ는 동아리 대표가 공연 장소 대여와 관련된 협상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발화이고, ⓑ는 주민 대표가 동아리 대표의 공연 장소 대여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 발화이다.

04 주민 대표는 '아파트 내 시설을 외부에 대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언급을 통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그것은 상대측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지 아파트 주민 측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동아리 대표는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때 상대방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있다. ② 주민 대표는 동아리 대표에게 아파트 문화 센터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려는 이유를 묻고 있다. ③ 동아리 대표는 학교 강당의 지붕 공사 때문에 학교 강당에서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공연 장소를 알아보다가 이곳 문화 센터 소극장이 학교와 인접하고, 소극장 무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연극 공연을 하는데 최적의 장소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④ 주민 대표의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렇지만 ~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에서 상대측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상대측 요구 사항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05 주민 대표는 추가적인 관리 비용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이유로 들어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라 문화 센터 노인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는 연극 공연에 동아리 학생들이 도움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아파트 내 시설을 외부에 대여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관리 비용을 언급했으나 장소 대여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②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는 하였으나, 학업에 전념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④ 아파트 주민이 감수해야 할 불편 사항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다른 장소를 빌릴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⑤ 연극 내용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므로 다빛아파트 주민들이 연극 공연을 관람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측은 동아리 대표이다.

06 [B]에서 동아리 대표와 주민 대표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예의 바르고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의사소통에서는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며,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07 ㉠은 주민 대표가 연극 동아리 학생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공감을 드러낸 발화이다.

오답 해설 ①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발화라고 보기 어렵다. ②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발화라고 보기 어렵다. ③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발화라고 보기 어렵다. ④ 상대방의 협상 태도를 지적하는 발화라고 보기 어렵다.

08 기행문은 여정, 견문, 감상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글이다.

오답 해설 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설명문이다. ②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소설에서의 서술 방식에 해당한다. ③ 운율을 살리기 위해 어미를 반복하여 서술하는 것은 주로 시에서 나타나는 서술 방식이다. ④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독자의 생각을 설득하는 글은 논설문이다.

09 기행문은 여정, 견문, 감상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고, 의문형 표현으로 내면을 진솔하게 서술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의문형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기행문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풀과 나무, 강과 길 등의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④ 현재형 서술은 글의 생동감과 현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 글은 현재형 서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⑤ 여정, 견문, 감상을 구성 요소로 하여 글을 쓰고 있다.

10 글을 쓸 때는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작문 관습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글을 써야 한다. 글의 종류에 따른 전형적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종류에 따른 전형적 구조나 전개 방식 같은 것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글을 쓰는 목적에 어울리는 주제를 설정하여 글을 쓰고 있다. ② 작문 관습을 지켜 글을 써서 독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④ 작문 윤리를 지켜서 책임감 있는 글을 쓰고 있다. ⑤ 역사와 문화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을 예상 독자로 하여 글을 쓰고 있다.

11 '삼례 문화 예술촌'은 오래된 목재 창고를 개조한 곳으로 일반적인 예술촌의 모습과 다르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삼례 문화 예술촌'의 벽에는 아직도 '협동 생산 공동 판매', '삼례 ○○ 창고' 같은 글씨가 남아 있다. ② '삼례 문화 예술촌'은 일제 강점기 때 양곡 수탈을 겪은 역사가 담긴 양곡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곳이다. ③ '삼례 문화 예술촌'은 1970~80년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재 창고 형태의 문화 예술 공간이다. ⑤ '삼례 문화 예술촌'은 원형 보전에 역점을 두어 외관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나 내부는 대부분 개조하여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12 기행문으로서 여정, 견문, 감상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생성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은 '작문 윤리'가 아니라 '작문 관습'에 대한 점검 사항이다.

오답 해설 ① 비속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②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 느낀 점을 과장해서 쓴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③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 허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④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13 이 글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삼례 문화 예술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삼례 문화 예술촌'이 현재 창고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삼례 문화 예술촌'이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지는 알 수 없다. ③ '삼례 문화 예술촌'이 원형 보전에 역점을 두어 겉모습이 창고 그대로인 것을 볼 때 과거의 아픔을 지우려는 노력을 주제로 보기는 어렵다. ④ '삼례 문화 예술촌'이 삼례역의 발전에 따라 교통의 요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14 이 글은 문장의 길이를 비교적 짧게 하여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삼례 문화 예술촌'을 다녀온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감상이나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글쓴이의 감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글쓴이가 직접 본 것 외에도 들은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

15 글쓴이가 책 공방에서 직접 책을 만들어 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미디어 아트 미술관'은 목재 창고였던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내부는 '첨단 예술'의 세상에 걸맞게 개조되어 있었다. ③ 책 박물관에는 '전라도 여자' 기획전이 열리고 있었고, 프랑스어로 번역된 『춘향전』이 전시되어 있었다. ④ 인터랙티브 아트는 관람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⑤ 문화 카페는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되거나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16 글을 쓸 때는 글의 종류에 따라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해야 하고, 글쓰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글의 종류에 따른 작문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글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작문 관습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기행문이므로 기행문의 작문 관습인 여정, 견문, 감상에 따라 내용을 구성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글에는 그 글에 적합한 작문 관습을 적용해야 한다. ② 글의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할 때의 구성 요소는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③ 글쓰기의 전 과정에서 글쓴이는 기행문이라는 글의 종류와 관련된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글을 써야 한다. ④ 글쓴이는 작문 관습에 따라 여행에서 경험하고 감상한 것들을 생생하고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

17 오래된 것들과 새로운 것들, 시간 위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져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곳은 '문화 카페'가 아니라 '문화 카페' 밖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미디어 아트 미술관'의 외관과 내부가 다른 광경에 순식간에 100년을 시간 이동한 것 같아 놀랍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책 공방에 있는 '목궤선'을 보고 국가유산급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목공소'에서 조선 목수들의 철학이 담긴 나무 가구와 각종 연장이 전시된 것을 보았다. ④ 글쓴이는 '디자인 박물관'이 한국산업디자인협회 공모전의 수상 작품들을 모아 놓아 젊은 관람객들의 호응이 높은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18 이 글의 협상에서 협상 상대를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상대방과 자신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협상 상대방을 교체하는 것은 올바른 협상 전략이라 볼 수 없다. 협상은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상호 검토해 입장 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동아리 대표는 연기 기초 훈련의 개념과 세부적인 훈련 내용을 설명해 줌으로써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동아리 대표와 주민 대표는 모두 상대방과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여 요구 사항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각각의 입장을 표명하고 수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④ 동아리 대표는 학생들의 늦은 귀가 시간을 이유로 들어 평일 저녁에 공연하는 대신 토요일에 한 번 추가 공연하는 대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19 ㉠의 앞에서 주민 대표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한 수정안을 제시하자 동아리 대표는 상대측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 의사소통의 점검 항목 중 '협상의 목적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였는가?'에 부합한다.

오답 해설 ④ 협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협력적 의사소통 방법이다.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 상대방의 제안을 반박하는 태도는 협력적 말하기의 태도와 거리가 멀다.

20 무대 정리 및 무대 주변 청소는 동아리 학생들이 하고 나머지 구역의 청소는 주민 측에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객석 청소를 동아리 학생들이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직장인들을 위해 토요일 오후 3시에 한 번 더 공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공연장 주변에 안내 요원을 배치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공연 일주일 전부터 매일 4시부터 7시까지 연습하고 공연 전날은 9시까지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연극 동아리 학생들은 2~3명씩 당번을 정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노인 학교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을 돕기로 합의하였다.

21 협상은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헤아려서 양쪽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상대방에 대한 공감적 듣기와 말하기 태도가 필요하다. ②, ③ 우리말 문화의 전통을 익히고 언어 관습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④ 관용과 배려의 태도로 말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제4회

본문 240~245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④	05 ①	06 ④	07 ⑤	08 ④
09 ②	10 ④	11 ③	12 ②	13 ②	14 ④	15 ①	16 ③
17 ②	18 ②	19 ⑤	20 ⑤	21 ⑤	22 ①	23 ①	

01 ㉠ 중세 국어는 시대 구분상 10세기 초에서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말한다. ㉢ 'ㅿ'의 이름은 '반치음'이며,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기본자 중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든 이체자이다. ㉣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에서도 높임 표현이 존재했으며, 주로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되었다.

오답 해설 ㉡ 우리말의 표기 체계인 훈민정음의 창제 연도는 1443년이고, 반포 연도는 1446년이다. ㉤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음운이 존재하며 훈민정음 28자를 기준으로 'ㆆ, ㅿ, ㅎ, ㆍ'이 소실 음운이다.

02 현대 국어도 종성에는 '값'과 같이 자음을 병서하여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중세 국어 시기에는 오늘날에 사용하지 않는 음운 'ㆍ', 'ㅱ' 등이 사용되었다. ③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였다. ④ 「세종어제훈민정음」에서 한자어를 표기할 때는 한자와 우리말을 병기하여 표기하고 있다. 이것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해당한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03 「세종어제훈민정음」에서 한자어를 표기할 때는 한자와 우리말을 함께 표기하는데 이것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해당한다. 이 표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말에 형식 종성을 표기해 초성-중성-종성을 모두 갖추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형식 종성이 표기된 것은 '爲·윙'뿐이다.

오답 해설 ① '·새·로'와 '·날·로'에는 거성을 표시하는 방점 한 개가 쓰였다. ② '百·빅姓·셩·이'와 ':말ᄊᆞ·미'에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이' 형태의 주격 조사가 쓰이고 있다. ④ '·쁘·들'과 '·뿌·메'에서는 앞 음절의 모음인 음성 모음 'ㅡ'와 'ㅜ'의 영향으로 이어지는 음절에서 음성 모음 'ㅡ'와 'ㅐ'가 사용되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고 있다. ⑤ '·노·미'와 'ᄯᅳ르·미니·라'에서는 앞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쓰는 이어적기가 나타나고 있다.

04 ㉣은 '이 + ᄅᆞᆯ'에서 목적격 조사 'ᄅᆞᆯ'이, '·ᄃᆞᄅᆞᆯ(ᄃᆞᆯ + ᄋᆞᆯ)'에서는 목적격 조사 'ᄋᆞᆯ'이 쓰였다.

오답 해설 ① ㉠과 달리 '나·라·히(나랗 + 이)'을 통해 'ㅎ'을 말음으로 가지는 체언인 '나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ㅎ'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과 '니·셰시·니'에서 첫소리에 'ㄴ' 음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에 쓰인 주격 조사 'ㅣ'와 '烽火(봉화) ㅣ'를 통해 선행 체언이 'ㅣ'가 아닌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주격 조사 'ㅣ'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과 '·플'을 통해 입술소리 아래에 평순 모음 'ㅡ'가 원순 모음으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 현상이 중세 국어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05 중세 국어 시기에 비교의 의미를 지닌 부사격 조사 '에'는 현대 국어의 '와/과'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세 국어 시기에 비교의 의미를 지닌 조사가 없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첫소리의 'ㄴ' 음이 현대 국어에 오면서 탈락이 되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 ③ 중세 국어 시기 서로 다른 두 자음이 어두에 오는 어두 자음군이 현대 국어에 오면서 된소리로 표기되었다. ④ 중세 국어에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펴디'로 표기되고 있다. ⑤ 중세 국어에는 입술소리 아래 오는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06 글자 운영 방식으로 ⓐ는 이어쓰기(연서)로 순경음을, ⓑ는 나란히쓰기(병서) 방식을 이르는 말로, '수ᄫᅵ'의 'ᄫ', 'ᄠᅳ들'의 'ㅂㄷ'이 각각에 해당한다.

07 기본형 '밍ᄀᆞᆯ다'로 미루어 보아 ㉮는 현대 국어의 용언과 같다(㉠). 현대어 풀이에 '만드니'로 해석된 것을 참고할 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 '-ᄂᆞ-'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쓰인 문장의 주어가 '나'인 것으로 보아, ㉮의 '-오-'는 1인칭 주어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사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ᄂᆞ-'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주로 동사와 결합한다. '먹다', '보다'는 동사이지만 '가깝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와 결합하지 않는다.

08 『용비어천가』에는 한자어도 표기되어 있다. 또한 한글의 우수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태조 이성계와 그 선조들의 업적을 밝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작되었다. ② 이 글은 선조들의 뛰어난 업적을 밝혀, 후대 왕들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다. ③ 이 글은 조선의 왕과 중국의 왕을 비교하여 조선 왕의 뛰어난 능력과 업적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다. ⑤ 훈민정음을 만든 뒤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시험하고 훈민정음에 국자(國字)로서의 권위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09 ㉠ '깊고, 높고'는 8종성법이 적용되지 않은 단어이다. ㉣ 이 글이 끊어 적기를 표기법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 이 글에서는 어두 자음군이 나타나지 않는다. ㉤ '하ᄂᆞᆯ히'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ㅎ 종성 체언의 'ㅎ'이 드러나고 있다.

10 ⓓ가 높이고 있는 주체는 '하ᄂᆞᆯㅎ'이다.

오답 해설 ① ⓐ가 높이고 있는 주체는 '하ᄂᆞᆯㅎ'이다. ② ⓑ는 주체인 금나라 태조를 높이고 있다. ③ ⓒ는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⑤ ⓔ가 높이고 있는 주체는 태조 이성계이다.

11 가.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었다(상형의 원리). 나. 한글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가획의 원리). 다. 한글은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들을 합쳐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합용의 원리). 라. 한글은 기존의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초성자로 사용하였다(병서, 어두 자음군).

오답 해설 ① 학생 1은 상형의 원리(가) ② 학생 2는 합용의 원리(다) ④ 학생 4는 합용의 원리(다) ⑤ 학생 5는 병서, 어두 자음군(라)

12 '넘겨만봐'는 앞말인 본용언 '넘겨'에 조사 '만'이 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 '봐'는 띄어 써야 하므로 '넘겨만봐'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할만하다'는 본용언 '할'과 보조 용언 '만하다'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지만 붙여 씀도 허용한다. ③ '다시없을 듯하다'의 '다시없을'과 '듯하다'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지만 붙여 씀도 허용한다. ④ '깨뜨려버렸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지만 붙여 씀도 허용한다. ⑤ '아는 척하지'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지만 붙여 씀도 허용한다.

13 '막(다) + -애', '죽(다) + -엄'은 어간을 밝혀 적지 않고 '마개, 주검'으로 표기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돌, 눈물'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도록 적은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③ '읽어, 읽는'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은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국물, 종로'는 [궁물], [종노]로 발음되지만 음운 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적은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⑤ '하야니'와 '까마면'은 어간과 음운이 줄어든 대로 적은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14 '일찍이'와 '오뚝이'는 부사 '일찍'과 '오뚝'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된 것은 그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에 해당하므로 ㉢을 따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생긋이'는 부사 '생긋'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을 따른 것이다. '같이'는 어간 '같-'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으로 ㉠을 따른 것이다. ② '방긋이'는 부사 '방긋'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을 따른 것이다. '꾸준히'는 '-하다'가 붙는 어근 '꾸준'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을 따른 것이다. ③ '많이'는 어간 '많-'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따라서 ㉠을 따른 것이다. '더욱이'는 부사 '더욱'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을 따른 것이다. ⑤ '봉긋이'는 부사 '봉긋'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을 따른 것이다. '빠듯이'는 '-하다'가 붙는 어근 '빠듯'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을 따른 것이다.

15 '샅샅이'는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이므로 '-이'로 적은 것이고, '꼼꼼히'는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만 나는 것이므로 '-히'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 '너그러히'는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기 때문에 '너그러이'로 적어야 한다. ㉣ '헛되히'는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기 때문에 '헛되이'로 적어야 한다. ㉤ '이'나 '히'로만 나는 것은 '-히'로 적어야 하므로 '과감이'는 '과감히'로 적어야 한다.

16 '-ㄴ지'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형용사, '이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의 뒤에 붙어, 주로 동사 '모르다'와 함께 쓰여,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힘든지'로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그는 요즘 하는 일마다 잘 안된다'에서 '안되다'는 하나의 형용사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불행한 상태를 나타내는데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② '나는 먹는 만큼 살이 찌는 체질이다'에서 '만큼'은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그와 같은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④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쓰고, '원'은 단위성 의존 명사이므로 적절하게 띄어 쓴 것이다. ⑤ '자식을 조건 없이 믿어 주는 사람은 부모뿐이다.'에서 '뿐'은 체언이나 부사어의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17 '발바닥'은 [발빠닥]으로 소리 나지만, 한 단어, 즉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므로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제5항을 적용하여 '싹뚝'이 아니라 '싹둑'으로 적는다. ③ '갑자기'는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제5항을 적용하여 표기한다. ④ '같다'는 부사가 아니며, '같이'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은 제25항이 아니라, 어간에 '-이'가 붙어 부사로 된 것이므로 제19항에 따른 것이다. ⑤ 제25항에 따르면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따라서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라는 뜻의 표기는 '반듯이'가 바른 표기이다.

18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는 제45항의 규정에 따르면 열거할 때 쓰이는 '등'은 띄어 써야 하므로 '돈 등'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개'는 단위를 나타내므로 '한 개씩'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③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많은 것'으로 써야 한다. ⑤ 교수는 관직명에 해당하므로 앞말과 띄어 '민 교수'와 같이 써야 한다. 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 씀이 원칙이나 붙여 씀도 허용하므로 '축하해 주었다'가 원칙적인 표기이다.

19 '휩쓸다, 부릅뜨다'는 '휘- + 쓸다, 부르- + 뜨다'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옛날에는 '쓸다, 뜨다'가 '쓸다, 쁘다'의 형태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한글 맞춤법 제31항은 두 말이 어울릴 적에 소리가 덧나는 것을 '소리대로' 적기 위한 규정이다. ②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의 예로 '멥쌀(메ㅂ쌀), 볍씨(벼ㅂ쌀), 접때(저ㅂ때)' 등을 들 수 있다. ③ '암, 수' 뒤에 다른 단어가 결합할 때 그 단어의 첫소리가 거센소리가 되었다면 'ㅎ' 소리가 덧나기 때문이다. ④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뒤의 단어가 '싸리, 쌀, 때'일 때,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앞의 단어가 '암, 수, 살' 등일 때 일어난다.

20 이 글은 디지털 매체와 관련하여, '복합양식성', '하이퍼텍스트', '상호 작용성' 등의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체별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구술 매체, 문자 매체, 영상 매체, 디지털 매체의 순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매체의 변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매체의 변천에 따라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가 변화했음도 설명하고 있지만 소통 방식의 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② 매체를 이용한 소통 문화의 특성을 소개함에 있어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지 않다. ③ 특정 이론의 관점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매체를 이용한 소통 문화의 특성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는 드러나 있지 않다.

21 ⓐ는 다른 시공간의 사람과는 소통이 어렵지만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하여 상황과 맥락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매체이며, ⓑ는 시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하여 상황 맥락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와 공간의 사람과는 소통이 어렵다. ⓑ는 정보를 기록하기보다는 전달과 수용에 중점을 두기에 다수가 동시에 정보를 수용하기가 가능하다. ② ⓐ는 정보를 구전으로 전하는 데 적합하며, ⓑ는 정보를 기록하기보다는 전달과 수용에 중점을 두는 매체이다. ③ ⓐ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의 매체로 말하기를 통해 화자와 청자가 상황과 맥락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는 시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보편적인 이해를 돕는다. 글의 내용을 중심으로 탈맥락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자 매체이다. ④ ⓐ는 지식의 보존과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는 시청각 이미지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매체이다. 시공간을 초월해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문자 매체이다.

22 ㄱ. 대체로 정보 전달이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문자 매체) ㄴ. 보편적으로 수용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디지털 매체) ㄷ.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해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다.(문자 매체) ㄹ. 수용자가 매체 자료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디지털 매체) ㅁ.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디지털 매체) ㅂ. 다른 문서나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디지털 매체)

23 〈보기〉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사례이다. 〈보기〉에 사진 자료는 제시되었으나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② 문학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댓글로 적은 것은 게시글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댓글에 댓글을 단 것은 타자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문자와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는 디지털 매체로서 복합양식성을 지니고 있다. ⑤ 블로그 바로가기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여러 자료를 넘나들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5회

본문 246~251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④	05 ②	06 ④	07 ⑤	08 ④
09 ①	10 ④	11 ④	12 ③	13 ⑤	14 ⑤	15 ④	16 ②
17 ①	18 ③	19 ③	20 ②	21 ①	22 ④		

01 매체 비평 자료는 매체 자료를 주체적·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하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오답 해설 ① 매체 비평 자료는 책, 신문, 영화, 웹툰, 광고 등의 매체 자료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담고 있다. ② 매체 비평 자료는 매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비평한 것이다. ③ 표현 방법의 효과와 적절성, 구조의 유기성에 대한 평가는 형식적 측면의 평가이다. ⑤ 매체 자료에 드러나는 관점의 적절성, 주제의 적합성, 제재에 대한 평가 등은 내용적 측면에서의 평가이다.

02 웹툰 「정년이」는 다양한 촬영 기법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공연의 입체감을 살리고 있다. 실제 공연을 촬영한 장면을 웹툰에 실은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웹툰의 매체적 특성을 바탕으로 「정년이」의 특성과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웹툰 「정년이」가 화면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 소리를 시각화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웹툰 「정년이」가 화면을 통해 국극단 공연을 형상화하는 형식적 방법에 대해 비평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웹툰 「정년이」의 인물의 성격과 서사 전개 방식에 대해 비평하고 있다.

03 웹툰 「정년이」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여성 국극'을 소재로 끌고 와 독자들이 소리를 떠올리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③ 웹툰 「정년이」 이전에도 소리를 다루는 웹툰 작품이 있었지만, 2차원의 평면으로 표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④ 웹툰은 2차원의 평면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⑤ 웹툰 「정년이」는 대중들에게 매우 생소한 '여성 국극'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04 노랫말을 일반 대사와 구별할 수 있게 서체를 다르게 하고 노랫말 사이에 물결표를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고 하였으나, 일반 대사에 물결표를 넣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웹툰 「정년이」는 낯선 소리를 한 편의 국극처럼, 즉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결합해 소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웹툰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③ 정년이가 노래를 하는 장면에서 다양한 동작과 앵글을 통해 소리를 시각화해 보여 주고 있다. ⑤ 정년이가 노래하는 모습과 정년이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을 다양한 앵글로 그려 청각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소리를 시각화하고 있다.

05 정년이 소리를 하며 내뻗은 손동작과 얼굴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므로 ㉠에 들어갈 촬영 기법으로는 클로즈업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롱샷은 상황을 넓게 보여 주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하이 앵글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로우 앵글은 권위나 위엄을 표현하는 방식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오버 더 숄더샷은 상대방의 반응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6 '노랫말, 동작, 앵글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교향곡 연주처럼 울려 퍼지는 것 같다.'는 웹툰 「정년이」가 평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가법을 사용한 것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이다. 실제 교향곡을 삽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웹툰 「정년이」에서는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공연의 시작 부분은 전체 화면을 그리고 있다. ② 전체 무대 뒤에 펼쳐지는 장면들을 다양한 컷으로 그려 무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③ 인물의 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해당 인물을 클로즈업하여 공연 실황을 촬영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⑤ 때로는 배우의 열연을 오버랩 효과를 통해 그려 내고 있다.

07 일반적인 영화나 드라마의 오버랩과 달리 웹툰 「정년이」의 오버랩은 배우와 공연 캐릭터를 겹치게 그려 인물의 열연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영화나 드라마에서 쓰이는 오버랩에 대한 설명이다. ② 무대를 여러 컷으로 분할해 보여 주는 기법은 오버랩과 관련이 없다. ③ 클로즈업 기법으로 인물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④ 클로즈업 기법으로 인물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08 〈보기〉는 웹툰 「정년이」에서 주변 인물에게도 입체적이고 개성적인 성격을 부여해 서사의 입체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에서 서사의 입체적 전개를 통해 무대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한 내용과 부합한다.

오답 해설 ① 무대의 열린 공간으로서의 특성은 무대가 현실과 분리된 별도의 가상 공간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② 닫힌 공간으로 인한 무대의 특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였으나 〈보기〉와는 관련이 없다. ③ 〈보기〉와 이 글은 주인공의 입체성을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보기〉와 이 글은 웹툰이 무대의 닫힌 공간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09 (가), (나)는 웹툰 「정년이」의 내용에 대해 비평하고 있다. 형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가), (나)는 웹툰 「정년이」가 극복하고자 한 세 가지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등장인물들이 성별, 신분, 예술에 대한 편견을 스스로 극복해 가는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④ 웹툰 「정년이」가 극복하고자 하는 한계는 시대와 사회의 편견이기도 하고 등장인물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기도 하다. ⑤ 인물들의 내적 성장은 관객에게 전해져 관객을 감화시키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10 정년은 처음에는 여성이 남성 역할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놀라워하고 반감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연기에 감동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성별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게 된다.

오답 해설 ① 정년이 지니고 있던 편견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지 자신의 연기력에 대한 편견이 아니다. ② 영서는 어머니의 고급문화에 대한 편견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자신이 가진 실력을 바탕으로 예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③ 도앵은 양반 가문 출신으로서 자신도 모르게 신분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었다. ⑤ 도앵은 양반 가문과 기생 출신은 다르다는, 신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스스로 깨닫고 이겨 내려 하는 인물이다.

11 정년이 진정한 배우로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존재 그 자체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국극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

오답 해설 ① 정년이 원하는 배역이 바뀌어서는 아니다. ② 정년이 처음에는 배우를 생계의 수단으로 여겼으나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③ 정년의 열망은 주인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⑤ 정년이 '방자' 역할을 해야 진정한 배우가 된다고 여겼다기보다는 '방자' 역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존재 그 자체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음을 의미한다.

12 글쓴이는 '정년'을 향한 질문을 작품 전체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해 그 답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의의를 부각하고자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정년이」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질문이다. ② 「정년이」라는 웹툰에서 작가가 생소한 소재를 다루는 것으로 작가 스스로가 한계에 부딪히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 ④ 「정년이」가 웹툰의 한계를 극복하여 웹툰의 무한함을 증명하려 했음을 강조하려는 질문이다. ⑤ 글쓴이는 질문에 대해 '인물의 삶과, 웹툰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답을 제시하였다.

13 ㉤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홀리게 함.'

이다.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끎.'은 '유혹'의 의미이다.

14 하이 앵글로 잡은 컷을 다른 칸보다 세로로 길게 그리려는 생각은 웹툰이 하단을 무한하게 이어 나갈 수 있다는 특성과 관련된다.

오답 해설 ① 소리를 시각화하려는 노력으로 물결표를 넣는 것은 〈보기〉와 관련이 없다. ② 주인공과 주변 인물을 개성 있게 묘사하여 극 전개의 입체감을 살리는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웹툰의 특징과 관련이 없다. ③ '클로즈업'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인물을 세밀하게 그리는 것은 〈보기〉와 관련이 없다. ④ 등장인물 중 '도앵'의 기능적 역할과 관련된 설명이다.

15 글쓴이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알려 독자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설득하고자 한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목적이 인간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글의 목적이 인간이 해양 생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글은 다양한 환경 오염의 문제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이다. ⑤ 이 글은 미세 플라스틱 제조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16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고, 오염된 생태계가 인류를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인간과 해양 생물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미세 플라스틱을 '독약'으로 표현하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해양 주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삽입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축적되어 인간이 섭취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⑤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약 5g의 미세 플라틱을 먹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글은 이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17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이 복합적임을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플라스틱 쓰레기 중 일부는 재활용되고 일부는 소각되거나 버려지는데, 그중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였다. ③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이 우리나라의 문제임을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바다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연간 100만 톤에 이르고 있다. 바다에 유입되는 일반 쓰레기의 양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미세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에서 유해한 각종 화학 물질이 첨가된다고 하였다.

18 인간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했을 때 유발될 수 있는 구체적 질병에 대한 전문가의 인터뷰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동영상을 삽입할 때 출처를 밝혀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② 동영상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④ 해변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사진을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⑤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그래프를 통해 여러 요인 중 합성 섬유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리고자 하였다.

19 미세 플라스틱을 '화학 물질의 혼합물'이라 표현한 것은 미세 플라스틱에 물속의 각종 오염 물질이 달라붙어 있음을 의미한 것이지,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화학 물질이 첨가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독약'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② 해양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④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들을 거쳐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먹이 사슬의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⑤ 문답의 형식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20 인간의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2050년이 되면 바닷속 물고기의 무게보다 바닷속 플라스틱의 무게가 더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③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의 모든 단계에 있는 생물들의 몸속에 잔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해양 생물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⑤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 들어온 독성 물질이나 나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 위험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21 '사진'은 기사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강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 제시된 '동영상'은 기사의 내용과 연관된 자료이나, 기사를 영상화한 자료는 아니다. ③ 이 글에 쓰인 '그래프'의 출처는 명시되어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이 글에 제시된 '그림'은 글쓴이가 그린 것이 아니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자료이다. ⑤ '보고서'에 인간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제시한 비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22 자료 조사 결과 합성 섬유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것은 학생들과 일반인들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도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자료 조사 결과를 보면 합성 섬유의 성분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자료를 통해 세탁 시간과 물의 온도도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자료 조사 결과 아크릴로 만든 의류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연 섬유가 섞인 의류를 구입하고, 낮은 온도의 물로 짧은 시간 의류를 세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Memo

Memo

Memo